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Professors' Career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이 영 광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

지도교수 정 철 영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이 영 광

이영광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이 영 광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해당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변인 간의 직접효과,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학교 3, 4학년 학생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적정 표집 크기를 고려하여 490명을 표집 크기로 결정하였고 층화 · 군집 · 비율 표집 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1 · 2차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4월 5일(화)부터 4월 29일(금)까지 25일간 수행되었다. 그 결과, 목표 표집 수 490부를 모두 확보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37개, 이상치 40개를 제거하여 총 413개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국내 · 외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1 · 2차 번안,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및 탐색적 ·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화하였고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 보완한 후,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화하였다. 자료 분석은 IB

M SPSS Statistics 26.0 패키지와 R 4.1.1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둘째,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단순매개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외생변인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외생변인이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이중매개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정서, 동기 및 행동의 영향이 교수 진로지지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셋째, 교수의 진로지지는 대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울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를 촉진하여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진로탐색행동이 자율적 진로 동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할 수 있다. 여섯째, 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결론를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써 첫째,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이들의 긍정 정서, 졸업 후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수의 진로지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써 첫째, 우리나라 맥락을 고려한 교수 진로지지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진로탐색행동 특징을 구명하여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진로탐색행동 측정 도구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차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선택몰입,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구조적 관계

학 번 : 2019-34377

목 차

국 문 초 록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 가설 ····· 5
4. 용어의 정의 ····· 7
5. 연구의 제한 ····· 9

II. 이론적 배경 ····· 11

1. 대학생의 진로 특성 ····· 11
2. 진로선택몰입 ····· 16
3. 진로선택몰입 관련 주요 변인 ····· 26
4.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 관계 ····· 61

III. 연구 방법 ····· 89

1. 연구 모형 ····· 89
2. 연구 대상 ····· 90
3. 조사 도구 ····· 94
4. 자료 수집 ····· 124
5. 자료 분석 ····· 126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33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 133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 137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 141
4. 논의 ····· 149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75

1. 요약 ····· 175
2. 결론 ····· 176
3. 제언 ····· 179

참고문헌 ····· 183

부록 ····· 219

【부록 1】 교수 진로지지 번안 및 타당화 ····· 219
【부록 2】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번안 및 타당화 ····· 233
【부록 3】 1차 예비조사 질문지 ····· 249
【부록 4】 2차 예비조사 질문지 ····· 259
【부록 5】 본조사 질문지 ····· 263

Abstarct ····· 273

표 목 차

<표 Ⅱ-1> 진로선택몰입 측정 도구 종합 ····· 25
<표 Ⅱ-2> 교수 진로지지 관련 측정도구 종합 ····· 32
<표 Ⅱ-3> 정서지능 측정도구 ····· 38
<표 Ⅱ-4> 국내·외 선행문헌의 진로 정의 종합 ····· 40
<표 Ⅱ-5> 자기결정이론에 따른 동기 구분 ····· 41
<표 Ⅱ-6> 자율적 진로 동기 관련 측정도구 종합 ····· 46
<표 Ⅱ-7> 진로탐색행동 관련 측정도구 종합 ····· 52
<표 Ⅱ-8>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도구 ····· 60
<표 Ⅱ-9>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별 변인 간 관계 종합 ····· 87

<표 Ⅲ-1> 지역별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생 수 현황(2021년 기준) ····· 90
<표 Ⅲ-2> 전공 및 성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2021년 기준) ····· 91
<표 Ⅲ-3> 조사 도구의 구성 ····· 94
<표 Ⅲ-4> 조사 도구 타당도 판단 근거 ····· 95
<표 Ⅲ-5>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 99
<표 Ⅲ-6>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100
<표 Ⅲ-7>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 101
<표 Ⅲ-8>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02
<표 Ⅲ-9>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 104
<표 Ⅲ-10>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105
<표 Ⅲ-11>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 106
<표 Ⅲ-12> 정서지능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107
<표 Ⅲ-13> 정서지능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 108
<표 Ⅲ-14>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 개념타당도 검증 결과 ····· 109
<표 Ⅲ-15>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 110

<표 Ⅲ-16>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11
<표 Ⅲ-17>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 114
<표 Ⅲ-18>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116
<표 Ⅲ-19>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 118
<표 Ⅲ-20>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19
<표 Ⅲ-21>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 121
<표 Ⅲ-22>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122
<표 Ⅲ-23>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 124
<표 Ⅲ-2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25
<표 Ⅲ-25> 연구 가설별 자료 분석 방법 ····· 131

<표 Ⅳ-1> 관찰변인 기술통계량 ····· 134
<표 Ⅳ-2>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 135
<표 Ⅳ-3>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 136
<표 Ⅳ-4>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 137
<표 Ⅳ-5>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 140
<표 Ⅳ-6>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 140
<표 Ⅳ-7>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 간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 142
<표 Ⅳ-8> 직접효과 분석 결과 ····· 144
<표 Ⅳ-9> 단순 매개효과 분석 결과 ····· 145
<표 Ⅳ-10>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 146
<표 Ⅳ-11>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1단계: 모형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 분석 결과 ···· 147
<표 Ⅳ-12>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2단계: 조절된 매개지수 분석 결과 ····· 148
<표 Ⅳ-13> 가설별 연구 결과 종합 ····· 149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불확실성 관련 개념 ····· 57

[그림 Ⅲ-1] 연구 모형 ····· 89
[그림 Ⅲ-2] 표집 방법 ····· 93

[그림 Ⅳ-1] 측정모형 분석 결과 ····· 138
[그림 Ⅳ-2] 구조모형 분석 결과(연구 모형) ····· 141
[그림 Ⅳ-3] 구조모형 분석 결과(수정 모형) ····· 1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선행연구(김태환, 2019; Blustein et al., 1989)는 이를 진로선택몰입으로 명명하며 진로 대안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 및 목적과 동일시 함으로써 선택한 진로 대안에 대해 강한 확신과 애착을 갖는 상태로 보았다. 대학생 시기 진로선택몰입의 중요성은 다수 진로 이론가들의 주장에 기반을 둔다. 진로발달이론을 제안한 Ginzberg et al.(1951)과 Super(1973)는 청소년기의 진로탐색 단계가 진로선택몰입을 위한 단계로 이어짐을 주장하였고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한 Harren(1979)은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이 진로 몰입으로 이어짐을 주장하였다. 진로 이론가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생 시기에 진로선택몰입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021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이재열 외, 2021)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고민으로서 졸업 후 진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특히,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을 떠나는 중도 탈락 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박대호, 2019)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진로 변경을 위해 휴학을 하고 있으며(황혜원, 2021) 대학생활을 이어가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격과 이력을 채우기 위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김하늬 외, 2019).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의 진로선택몰입 중요성을 바탕으로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변인 간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다수 국내·외 경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일부 경험

연구 결과는 진로 이론의 주장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첫째,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진로 이론(Ginzberg et al., 1951; Harren, 1979; Lent & Brown, 2013; Reardon et al., 2017; Savickas et al., 2018; Super, 1972)은 진로선택몰입을 위해 진로탐색행동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나 최근 경험 연구(Paxiao & Gamboa, 2021; Porfeli & Skorikov, 2010; Xu & Tracey, 2014)는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Paxiao & Gamboa(2021)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은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받을 때에만 진로미결정을 낮추었고 Porfeli & Skorikov(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했을 때에만 진로미결정을 낮추었으며 Xu & Tracey(2015)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인내가 조절했을 때, 진로탐색행동이 진로미결정을 낮추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을 양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질적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진로선택몰입을 위한 진로탐색행동 수행 시, 자율적 동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 경제, 정치 등의 환경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불확실성을 경험하기 때문에(Arbona et al., 2021)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 자율적 동기와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 체계이론(Patton & McMahon, 2014) 등 구성주의에 기반한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를 이해함에 있어 정서, 동기, 성격 등 다양한 개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관련 경험 연구는 일부 특성만을 고려하여 관련 변인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예컨대, 인지, 동기, 행동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 중 한, 두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진로선택몰입 또는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구명하였다(김수진, 2018; 김태환, 2013; 민지애, 유금란,

2015; 윤경, 김진강, 2018). 특히, 그간 진로 연구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공윤정, 2014),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정서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 연구만(김진희, 박미진, 2014; 김태환, 2019)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의 영향을 확인하여(공윤정, 2014)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긍정 정서의 영향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막연함, 불안 등의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고은숙, 2019; 김은애, 진성미, 2015; 임은미, 2011; 임정아, 조아미, 2021)하기 때문에, 부정정서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판단되나 진로선택몰입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의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시도 또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성주의 기반 진로 이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동기 요인으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 성격 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긍정 정서로서 정서지능의 개인 특성들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 및 체계이론(Patton & McMahon, 2014) 모두, 개인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경험 연구는 주로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부모 또는 가족의 영향을 구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그 외, 중요한 타인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수행되지 못했다.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대학의 진로지원 역할이 강조(Akos, 2021)됨에 따라, 대학생 진로를 위한 교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이민욱 외, 2020; Dey & Cruzvergara, 2014; Schlesinger et al., 2021)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 교수의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정은진 외, 2018; 한상근 외, 2019). 특히, COVID-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이환의, 차재빈, 2020), 대학 커리어센터 내 진로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진로개발을 위한 교수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가 높아짐에 따라 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정철영, 이영광, 2020)과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정보 제공이 유의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신효정 외, 2010; 이영광, 2020; 정철영, 이영광, 2020; 최수미, 강유림,

2013)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교수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교수의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정서, 성격, 동기 및 행동 요인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서 교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이 변인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구명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및 정서지능의 관계를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이 매개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대학생의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정서지능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6. 정서지능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7.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8.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9.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생의 교수 진로지지 및 정서지능이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1.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4.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5.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6. 정서지능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7.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8.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가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a career choice)은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특정한 진로 대안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 및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선택한 진로 대안에 대해 강한 확신과 애착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 관찰변인으로 구성된다. 진로목표 선택은 진로목표로서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진로목표 동일시는 진로목표 달성을 통해 수행할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김태환, 2019).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은 김태환(2019)이 개발한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교수 진로지지

교수 진로지지(professors' career support)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 정보 및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을 의미한다. 교수 진로지지는 자기탐색 함양,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세 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된다. 자기탐색 함양은 학생의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을 의미하고 정보적 지지는 직업세계에 관한 조언,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지는 학생 진로에 관심과 흥미를 표현하고 경청하는 교수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은 Zhang et al.(2021)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한 측정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정서지능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 활용, 정서 조절의 네 가지 관찰변인으로 구성된다. 자기정서 이해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타인정서 이해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서조절은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서활용은 긍정적인 행동과 성과를 함양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ong & Law, 2002).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은 Wong & Law(2002)가 개발하고 탁진국(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측정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자율적 진로 동기

자율적 진로 동기(autonomous career motivation)는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로서 내재 동기와 동일시 조절 동기의 두 가지 관찰변인으로 구분된다. 내재 동기는 재미나 즐거움에 의해 발현된 수행 의도를 의미하고 동일시 조절 동기는 특정 행동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발현된 수행 의도를 의미한다(김태환, 2019; 정은교, 2021).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은 정은교(2021)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은 전생애 동안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서 관찰변인은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신에 대한 탐색은 타인과 매체, 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직업에 대한 탐색은 타인과 매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은 최동선(2003)이 개발하고 연구자가 일부 수정한 측정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복잡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서 관찰변인은 정보수집 선호, 수용, 부적응 및 회피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보수집 선호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 인지, 행동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수용은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의미하며 부적응 및 회피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관찰변인은 Xu & Tracey(2015)가 개발하고 연구자가 번안한 측정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학생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시점이 2022년 1학기 초반이고 COVID-19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교수와의 상호작용 및 대학 생활 중 진로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 결과에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1, 2학년 학생을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3, 4학년 학생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국내 모든 대학생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 특성

가. 개인 차원의 특성

최근 구성주의 기반 진로 이론(Lent & Brown, 2013; McMahon & Patton, 2019; Savickas et al., 2018; Vondracek et al., 2014)은 개인의 진로를 이해함에 있어 정서, 인지, 동기, 행동 등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직업행동 및 발달(vocational behaviour and development)의 생활체계이론(Living System Theory)(Vondracek & Ford, 2019)은 사람이 항상 전체, 통합된 조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정서, 인지, 동기, 행동 등이 단절되어 이해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전체, 통합된 조직으로서 개인의 직업행동 및 발달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진로발달의 체계이론 프레임워크(Patton & McMahon, 2014)는 개인의 진로를 이해함에 있어, 흥미, 적성, 가치관 등 다양한 개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체계이론 관점 하에, 진로발달이론(Ginzberg et al., 1951; Super, 1973), 진로구성이론(Savkickas et al., 2018),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및 진로의사결정이론(Harren, 1979; Reardon et al., 2017)은 개인 차원의 대학생 진로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된다.

개인 차원의 대학생 진로 특성 중 첫 번째 특성으로서,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시기이다.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과업이 수행된다. 직업선택을 일련의 결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본 Ginzberg et al.(1951)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 단계(exploration stage), 구체화 단계(crystalization stage), 특수화 단계(specification stage)를 포함하는 현실기(realistic period, 18~22세)로서, 이 시기에 개인은 진로탐색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Super(1973)는 직

업발달 단계(vocational development stage)를 성장기(growth stage, 출생~14세),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4세), 유지기(maintenance stage, 46~65세), 쇠퇴기(decline stage, 65세 이후)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고 이 중, 탐색기를 잠정기(tentative, 15~17세), 전환기(transition, 18~21세), 시행기(trial, 22~24세)로 구분하였다. Super(1973)의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잠장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한 Harren(1979)에 따르면, 대학생은 진로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에 몰입하는 일련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 특히, 몰입 단계에서 대학생은 진로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주관적 확신과 타인의 의견까지 통합하여 자신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더하게 된다(Harren, 1979).

둘째,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시기이다. 진로의사결정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Savkickas et al., 2018),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모두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기반이 됨을 주장한다. 한편, 진로탐색은 전생애에 걸친 진로발달 및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Jiang et al., 2019)로서 전생애 동안 진로탐색이 수행되나,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은 초·중등학생 시기의 진로탐색과 다소 차이가 있다. Arnett(2006)은 대학생 시기의 탐색이 중·고등학생 시기의 탐색과 질적으로 구분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김태환(2019)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탐색은 직업의 성격과 자신과의 일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탐색인 반면, 대학생 시기의 탐색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Porfeli & Skorikov(2010)는 이를 구체적 진로탐색행동(specific career exploration)으로 명명하였고 자신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진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롭고 자극적인 정보를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전반적 진로탐색행동(diversive career exploration)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 대학생이 인식한 전반적 진로탐색은 진로미결정을 높이고, 진로자신감을 낮춘 반면, 구체적 진로탐색은 진로미결정을 낮추고

진로자신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행동은 전반적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진로탐색행동과 달리,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강조되는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대학생 시기는 직업세계로 이행하기 이전 시기로서, 취업 또는 창업 등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점차 높아지는 시기이다. Symonds et al.(2019)은 직업 세계로 진출을 앞둔 시기에 직업 세계로 이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높아짐을 주장하였고 정은교(2021)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직업 세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음을 주장하였다. 2020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이재열 외, 2020) 결과, 응답자는 졸업 후 진로계획으로서 취업(56.1%), 시험준비(공무원, 임용, 자격증 등)(19.9%), 창업(5.1%)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적 동기이자 가치를 인식하는 동기 즉,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17)에서 제안한 자율적 동기가 기반이 될 때,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과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Paxiao & Gamboa(2021)의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 모두 진로탐색을 높일 수 있지만, 자율적 동기가 전제될 때에만 진로탐색행동이 진로미결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Paixao & Gamboa(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을 위해 자율적 진로동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생 시기는 진로에 관한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정서는 동기와 행동 그리고 진로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

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김은애, 진성미(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인 대학생이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정아, 조아미(2021)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대학 입학이라는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진로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전공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고은숙(2019)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은 진로를 무거운 숙제로 느끼고 힘들지만 넘어야 하는 현실의 장벽으로 인식하며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은미(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막연함,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환경 차원의 특성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진로 이론(Lent & Brown, 2013; McMahon & Patton, 2019; Savickas et al., 2018; Vondracek et al., 2014)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에 주목한다. 이 중, 진로발달의 체계이론 프레임워크(McMahon & Patton, 2019; Patton & McMahon, 2014)는 개인의 진로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된다. 특히, Patton & McMahon(2014)은 환경을 역사, 환경을 정치, 지역, 노동시장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차원의 환경-구조적 체계(environmental-societal system)와 가족, 친구, 학교 등을 포함하는 미시적 차원의 상호작용 체계(social system)의 두 가지로 환경을 구분한다.

거시적 차원의 환경 특성으로서 오늘날 사회, 경제, 정치 등의 환경-사회적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Arbona et al., 2021). 4차 산업혁명(Schwab, 2016), 제2의 기계시대(Brynjolfsson & McAfee, 2014) 등으로 불리우는 기술발전은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선행연구는 기술발전이 직업세계 변화를 촉진하여 인간 노동을 인공지능 및 자동화로 대체하고(Frey & Osborn, 2013) 반복적 직무를 대체하며(Autor

et al., 2005), 신기술 일자리를 증가(Citi, 2016; David, 2015)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미래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관해 불확실성을 경험한다(Arbona et al., 2021).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대졸 취업률이 2011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남궁민, 2021) 감염병 또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진로의사결정 관련 연구는 기술 발전 및 직업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 진로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Xu, 2020).

미시적 차원의 상호작용 체계로서 주목받는 요인은 교수이다. 최근, 대학은 진로 상담, 진로심리검사, 진로 수업 등 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Akos, 2021). 그러나, Schlesinger et al.(2021)은 오늘날 학생들의 진로 계획과 진로의사결정이 복잡함을 고려할 때, 대학 커리어센터가 학생들의 진로개발 지원에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교수가 학생들과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진로개발에 있어 교수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한다(Schlesinger et al., 2021). 1990년대 이후로 대학진로지도 주체가 전문 상담사에서 교육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 Dey & Cruzvergara(2014)의 연구 결과 또한, 위의 주장을 지지한다. 특히, COVID-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이환의, 차재빈, 2020), 대학 커리어센터의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진로개발을 위한 교수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수의 진로지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 현장에서 교수의 진로지도는 양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흡한 실정이다(이민욱 외, 2020). 이에 대한 이유로서 장현진 외(2017)는 교수의 업무 과다와 진로지도 역량 부족을 제시하였고 장서영 외(2014) 또한, 진로지도 관련 지식과 기술 부족을 제시한 바 있다.

2. 진로선택몰입

가. 진로선택몰입 개념

1) 진로선택몰입 정의

초기 몰입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체성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Erikson (1982)은 자아정체성(ego identity)의 핵심 개념으로서 충실(fidelity)의 개념을 제안하였고(Waterman, 2015) 이후, 정체성 이론(Luyckx et al., 2005; Marcia, 1966)은 Erikson의 충실 개념을 몰입(commitment)의 개념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몰입을 선택을 의미하는 몰입 형성(commitment making)과 선택한 사항에 대해 동일감을 인식하는 몰입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체성의 주요 요인으로서 몰입을 연구하였다. 진로(career) 관련 연구 분야에서 몰입은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s)의 개념으로 연구되었다(Blustein et al., 1989). 과거 진로선택몰입은 주로 진로발달이론과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 논의되었으나(Blustein et al., 1989) 이후, 진로정체성 연구(Porfeli et al., 2011)에서 진로정체성의 구성요인으로 진로 몰입을 논의하고 있고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진로구성이론(Rudolph et al., 2017; Savickas & Porfeli, 2012)과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에서도 진로구성 과정의 성과로서 몰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진로정체성 연구는 진로 몰입을 진로몰입 형성, 진로몰입 동일시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체성 이론이 몰입을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의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분한 관점을 이어갔다.

진로선택은 진로결정 전,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진로 대안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사전적, 학술적 정의에 기반으로 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택은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학술적 정의로서, 김태환(2019)은 진로선택을 진로의사결정 이전, 잠정적으로 진로 대안을 뽑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즉, 진로선택은 사전적 정의로서 다양한 대안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술적 정의로서 잠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commitment)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 및 애착 상태를 의미한다. Blustein et al.(1989)은 몰입을 신념, 사고 및 미래 방향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정의하였고 Luyckx et al.(2005)는 몰입을 강한 확신 또는 선택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들 정의는 몰입이 확신 및 애착 상태이자 몰입의 시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선택의 개념과 몰입의 개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을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특정한 진로 대안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 및 목적과 동일시 함으로써 선택한 진로 대안에 대해 강한 확신과 애착을 갖는 상태로 정의한다. 해당 정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진로선택몰입의 시점은 진로결정 이전이며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진로선택 개념에 기반을 두며 특히,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 대안을 마련한 이후, 진로 대안을 줄여가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몰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Harren(1979)과 Reardon et al.(2017)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에 동일시, 확신 및 애착을 갖는 상태이다. 이는 몰입 개념에 기반을 두며 특히, 몰입을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로 구분한 정체성 이론의 주장에 기반을 둔다. 다수 선행연구 또한, 진로선택몰입의 양상을 동일시, 확신 및 애착의 상태로 보았다. Harren(1979)은 몰입을 자신의 주관적 신념(subjective conviction)을 자기 개념체계에 통합(integration with self-concept system)하는 과정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자기 확신(self-confidence), 미래 지향성(future orientation)으로 보았고 Blustein et al.(1989)은 진로선택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s)을 특정한 직업 목표에 확고한 애착을 수반한 개인의 명확한 직업 선호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김태환(2019)은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표를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애착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은 태도(attitude)로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포함된 개념이며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Blustein et al.(1989)은 몰입을 특정 사고에 대한 확신 상태,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보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태로 보았다. OZTEMEL(2018)는 진로몰입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잠재적인 장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태환(2019) 또한, 진로선택몰입이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2) 진로선택몰입 구성요인

진로선택몰입의 구성요인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진로목표 선택과 진로목표 동일시 개념은 정체성 이론에 기반을 둔다. Erikson(1982)부터 Marcia(1966)와 Luyckx et al.(2006)까지 정체성 이론가들은 몰입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개념 내 몰입 형성(commitment making)과 몰입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를 포함하였다. 몰입 형성은 선택을 하는 것, 몰입 동일시는 선택한 사항에 대해 동일감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Luyckx et al., 2005). 진로목표 선택은 정체성 이론에서 제안한 몰입 형성 개념에 기반을 두며 진로목표 동일시는 몰입 동일시 개념에 기반을 둔다(김태환, 2019).

최근 선행연구는 몰입이 가족의 권유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Porfeli et al., 2011; Waterman, 2015). Blustein et al.(1989)은 진로선택몰입 과정에 개인적인 본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진로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e)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진로배제경향은 가능한 빨리 중요한 진로 결정에 전념하고자 하는 경향으로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진로 대안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자신의 직업적 선호를 유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홍은선, 2020; Blustein et al., 1989). 그러나, 진로배제경향은 가족의 권유와 같은 외부 영향에 의해 높아질 수 있어,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홍은선,

2020; Waterman, 2015). 이에 따라, 김태환(2019)은 선행연구가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며 진로선택몰입 개념 내에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로목표 선택은 진로목표로서 자신이 입직할 직업분야를 선택하였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진로목표 동일시는 진로목표 달성을 통해 수행할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김태환, 2019).

3) 진로선택몰입 유사 개념

진로선택몰입은 정상 경험(flow)(배상기, 2013) 혹은, 열의(engagement)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몰입으로 번역되어 다수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상 경험은 사람이 어떤 활동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에 느끼는 의식 상태(Csikszentmihalyi, 1990)를 의미한다. 정상 경험의 개념을 제안한 Csikszentmihalyi(1990)에 따르면, 정상 경험은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 발현되고 그 행위가 수행되는 시점에만 발현된다고 하였다. 즉, 정상 경험은 특정 순간에 발현되는 상태로서 시점이 현재에 있고 발현되는 기간은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한정된다. 진로선택몰입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진로선택몰입의 시점이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지속될 수 있어 정상 경험에 비해 발현되는 시점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정상 경험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열의(engagement) 또한, 몰입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Kahn(1990)은 열의를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Kahn(1990)의 정의를 기반으로 볼 때, 열의는 특정 활동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진로선택몰입과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의미하는 진로선택몰입과 달리, 열의 개념 내에 신체적 반응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진로선택몰입이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열의는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에 한정되어 발현된다는 점에서 열의와 진로선택몰입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몰입, 진로의사결정 몰입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진로선택, 진로결정, 진로의사결정 간 개념 차이를 논의함으로써 진로선택몰입, 진로결정몰입, 진로의사결정몰입의 개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은 최종적인 결과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진로 대안을 뽑는 진로선택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사전적으로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또한, 학술적으로 김태환(2019)은 진로결정을 진로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로 보았고 이현민(2020)은 진로결정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진로결정은 진로의사결정의 최종 결과로서 진로에 관한 행동,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유지하려는 상태라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다양한 진로 대안 중 일부를 뽑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선택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진로의사결정은 진로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강조(김봉환 외, 2015)한다는 점에서 진로선택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수 선행연구는 진로의사결정을 일련의 과정으로 제안하였다(Gati et al., 1993; Harren, 1979; Peterson et al., 1991).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진로의사결정을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한 정도를 연구(조규형, 2018)하거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 인식, 처리하는 방식을 유형화하기도 하였다(Gati et al., 2010; Harren, 1979). 진로의사결정 관련 연구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이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다양한 진로 대안 중 일부를 뽑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선택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성(career decidedness), 진로결정수준과 구분된다. 진로선택몰입의 유사개념으로서 진로결정성은 진로 선택에 대한 개인의 확신 수준을 의미한다(Blustein, et al., 1989). 진로선택몰입은 확신 수준뿐만 아니라 자신감 및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성에 비해 광의적 개념이다(Blustein et al., 1989).

진로결정수준은 다양한 진로목표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진로목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김태환, 2019).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특정한 진로 대안을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 대안에 대해 강한 확신과 애착을 갖는 상태로서 하나의 직업 분야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Harren, 1979).

나. 진로선택몰입 관련 이론

진로선택몰입 관련 이론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발달 또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다. 진로발달이론(Ginzberg et al., 1951; Super, 1973)은 진로탐색 단계 이후 진로선택몰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진로발달이론과 진로의사결정이론을 결합한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인식 단계-계획 단계-몰입 단계-이행 단계로 제안하면서 진로탐색이 이루어지는 계획 단계 이후에 몰입 단계가 이어짐을 주장하였다. 진로정보처리이론을 제안한 Reardon et al.(2017) 또한,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 이후에 진로 대안을 좁혀가는 몰입 과정이 이어짐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관점은 진로선택몰입을 진로정체성의 구성요소로 보는 관점이다. 정체성 이론(Luyckx et al., 2005; Marcia, 1966)은 몰입을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orfeli et al.(2011)은 진로정체성 지위의 구성요인을 진로탐색(전반적 진로탐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진로몰입 형성, 진로몰입 동일시), 진로자기의심, 진로유연성으로 구분하였다.

Porfeli et al.(2011)은 이 중, 진로몰입(career commitment)을 진로몰입 형성(career commitment making)과 진로몰입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areer commitment)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진로몰입 형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상태를 의미하고 진로몰입 동일시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미래에 자신의 목표, 가치와 부합할 것이며 외부 환경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체성 이론 관점 하에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몰입 형성과 몰입 동일시로 구분된다.

세 번째 관점은 진로선택몰입을 진로구성 과정의 성과로 보는 관점이다. 진로적응이론을 제시한 Savickas는 진로적응모형을 제시하면서 진로적응 과정을 진로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로 구분된 과정으로 보았다(Savickas & Porfeli, 2012). 특히, 적응결과(adaptation results)는 적응의 결과이자 적응을 위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도달하는 상태로서(Savickas & Porfeli, 2012), Rudolph et al.(2017)는 적응결과로서 진로 몰입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Brown & Lent, 2019) 또한, 진로탐색 이후에 진로성과가 창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 이론은 진로선택몰입을 진로구성 과정의 성과로 상정할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구명하는 데에도 초점을 둔다. 진로적응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성과를 야기하는 일련의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의 정의, 인지, 행동적 특성이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진로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점은 진로선택몰입 양상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서 관련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의 구성 요인을 세분화하는데 관심을 둔다. 현재,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은 제안되지 못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Blustein et al.(1989)은 진로선택몰입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직업탐색 및 몰입(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VEC)으로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기 전, 다양한 진로 대안을 탐색하는데 개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진로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ure; TTF)으로서 진로탐색과 몰입 없이, 잠정적인 진로 선택을

고수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한편, Porfeli et al.(2011)은 적절한 진로탐색이 없이 가족의 의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몰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진로배제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보지 않았다. Waterman(2015) 또한, 내재화되지 않은 몰입을 피상적 몰입(committed as label)으로 보았다. 김태환(2019)은 진로선택몰입 관련 선행연구가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및 애착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진로선택몰입의 구성요인을 진로목표 선택(choice of career goal), 진로목표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areer goal),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confidence & attachment toward career choice)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특히,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진로선택몰입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요인으로서 Blustein et al.(1989)이 제안한 진로선택몰입의 구성요소인 진로배제경향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피상적인 몰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Porfeli et al, 2011; Waterman, 2015)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김태환, 2019).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로서 진로선택몰입을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과업으로 본 진로발달이론,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진로선택몰입을 제안한 진로정보처리이론의 관점을 취한다. 또한, 진로선택몰입을 진로구성 과정의 성과로 본 진로구성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진로선택몰입을 다양한 양상으로 구분한 관련 선행연구의 관점을 바탕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 진로선택몰입 측정

Blustein et al.(198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 도구는 진로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의미하는 직업탐색몰입(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VEC)과 다른 진로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선호를 유지하려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하는 진로배제경향(ten

dency to foreclose; TTF)의 두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탐색몰입 19개 문항, 진로배제경향 9개 문항의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lustein et al.(1989)의 진로선택몰입 측정 도구의 문항 응답 방식은 Likert 7점 척도이다. 직업탐색몰입의 문항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와 같이 부정 문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선행연구(최수정, 2007)는 역채점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합산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측정된다. 한편, 진로배제경향이 직업분야 선호 없이, 다른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김태환, 2019; Waterman, 2015)에서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Porfeli et al.(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정체성 지위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 도구는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제고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별 10개 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진로몰입은 진로에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갖고 접근하는지를 의미하는 진로몰입 형성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진로몰입 동일시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Porfeli et al.(2011)의 직업 정체성 지위 측정 도구의 문항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평균 점수를 통해 수준을 측정한다. 한편, 직업 정체성 지위 측정 도구는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을 구분하는데 초점이 있고 진로몰입 문항이 10문항으로 문항 수가 적다는 점에서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김태환(2019)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 도구는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목표 선택은 7개 문항, 진로목표 동일시는 6개 문항,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6개 문항의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김태환(2019)의 측정 도구는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구성요인을 포함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상기 논의한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진로선택몰입 측정 도구 종합

구분		Blustein et al.(1989)	Porfeli et al.(2011)	김태환(2019)
조사대상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조사 도구 구성	명칭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CCCS)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진로선택몰입
	문항 수	28문항	30문항	19문항
	구성 요인	• 직업탐색몰입(19문항) • 진로배제경향(9문항)	• 진로탐색(10문항) • 진로몰입(10문항) - 진로몰입 확신(5문항) - 진로몰입 동일시(5문항) • 진로재고(10문항)	• 진로목표 선택(7문항) • 진로목표 동일시(6문항) •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6문항)
	응답 범위	7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합산	평균	평균
조사 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구인타당도 교차타당도	구인타당도 교차타당도	구인타당도 교차타당도
	신뢰도	• 직업탐색몰입: .91-.92 • 진로배제경향: .78-.84	• 진로몰입 형성: .81-.83. • 진로몰입 동일시: .62-.64.	• 진로목표 선택: .92 • 진로목표 동일시: .86 •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85
조사 도구 특징		직업탐색몰입 중심으로 활용됨.	진로탐색과 진로몰입 수준에 따른 진로정체감 지위 군집을 구분하는데 초점이 있음.	국내 맥락을 반영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측정도구

자료: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342-378.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 853-871.

3. 진로선택몰입 관련 주요 변인

가. 교수 진로지지

1) 교수 진로지지 개념

가) 교수 진로지지 정의

교수 진로지지(professors' career support)는 사회적 지지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온 개념으로서 Tardy(1985)에 의해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다수의 선행연구는 Tardy(1985)가 제시한 사회적 지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인화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지지원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기존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교수 또는 교사지지를 측정하는데 활용되거나 부모지지 또는, 친구지지를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Nolten, 1994). 이후,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을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타당화되었다. 예컨대, Wong et al.(2020)은 교사지지를 일반적 교사지지(general support)와 특수적 교사지지(specific support)로 구분하였다. 특수적 교사지지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Williams & Deci, 1996), 교수자 진로지지(Zhang et al., 2021) 등이 포함된다.

교수 지지는 학생에게 정서, 정보, 물질 및 평가적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Tardy(1985)의 사회적 지지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Malecki et al.(2000)는 교사지지를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를 포함한 전략과 행동의 합으로 정의하였고 Cobb(1976)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존중, 인정, 격려 등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보나 물질적 원조까지 포함하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으로 정의하였다. 지지(support)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1]을 의미함을(Cambridge dictionary, n.d.) 고려할

1) support: to help someone often when they are having problems(Cambridge Dictionary, n.d.)

때, 교수 지지는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며 특히,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하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수 지지의 개념을 고려할 때, 교수 진로지지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정서, 정보, 도구 및 평가적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수 진로지지의 구성요인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수 진로지지를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 정보 및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으로 정의한다. 교수 진로지지 구성요인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나) 교수 진로지지 구성요인

교수 진로지지의 구성요인은 Tardy(1985)의 사회적 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교수가 학생 진로에 관심과 흥미를 표현하고(Wong et al., 2020) 경청하는(Zhang et al., 2021) 교수의 행동이며 정보적 지지는 직업세계에 관한 조언(advice), 정보 및 지식(knowledge)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Tardy, 1985; Wong et al., 2020; Zhang et al., 2021)을 의미한다. Wong et al.(2020)의 연구 결과, 교수자는 학생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자기효능감을 계발하며 기대를 갖는 등 학생 진로에 관심과 흥미를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Zhang et al.(2021)은 정서적 지지를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수용 그리고 공감적 경청으로 정의하였고 정보적 지지를 주어진 과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Zhang et al.(2021)은 진로 관련 교수자 지지 측정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정서적 지지를 교수자로부터 긍정적 기대 및 격려로 정의하였고 정보적 지지를 일터에서의 요구 사항, 취업 시장, 고용 전망 및 학생 전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자의 도움으로 정의하였다.

도구적 지지는 교수가 학생 진로와 관련하여 금전, 시간 및 기술적 지원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을 의미하고(Tardy, 1985; Zhang et al., 2021) 평가적 지지는 학생의 진로개발을 칭찬하거나 피드

백을 제공하는 교수의 행동(Tardy, 1985; Zhang et al., 2021)을 의미한다. Tardy(1985)는 도구적 지지를 금전, 시간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고 평가적 지지를 칭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Zhang et al.(2021)은 도구적 지지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평가적 지지와 관련 개념인 피드백 및 타당화(feedback and validation)를 담당하고 있는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칭찬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교수 진로지지의 구성요인은 크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구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의 개념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개념과 일부 중복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요한 타인이 정보적 지지를 제공할 때, 시간을 할애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해당 지지를 정보적 지지로 봐야하는 것인지 도구적 지지로 봐야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도구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적 지지의 개념 또한, 정서적 지지의 개념과 일부 중복된다. 중요한 타인이 평가적 지지로서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평가적으로 지지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때문에, 평가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를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교수 진로지지의 구성요인 내 자기탐색 함양이 포함될 수 있다. Zhang et al.(2021)은 학생 진로에 초점을 둔 교수자의 지지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진로 관련 교수자 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로 관련 교수자 지지 척도의 구성 요인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자기탐색 함양의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자기탐색 함양은 사회적 지지, 교수 지지 척도에서 고려되지 않은 구성요인으로서 Zhang et al.(2021)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행동으로 보았고 자기 탐색 함양을 통해 학생 진로에 대한 교수자의 구체적인 지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 교수 진로지지 유사 개념

교수 진로지지는 교사-학생 관계(teacher-student relationship), 교사애착(attachment)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교사-학생 관계는 교사지지와 교사애착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교사-학생 관계는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 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이의빈, 한창근, 2017)을 의미하며 국내·외 선행연구(김남희, 2011; Davis, 2003)는 교사-학생 관계를 애착 관점과 사회적 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교사애착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롭고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의미(박정아 외, 2019)한다. 교사 애착은 교사-학생 관계의 애착 관점에 해당되며 애착 이론에 기반을 둔다.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1969)로서 안정 유형, 불안정 유형, 회피 유형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Ainsworth et al., 1983). 초기 애착 연구는 부모-자녀 간의 애착에 초점을 두었으나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애착 연구는 이웃, 학교, 또래와의 애착으로 확대되었다(Berterton, 1992). 애착 관점에서 교사 애착은 부모 애착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사지지는 교사-학생 관계의 사회적 지지 관점으로 Tardy(1985)의 사회적 지지 프레임워크가 이론적 기반이 된다. Tardy(1985)는 선행연구제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측정이 일관되지 않는 한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방향(direction), 성질(disposition), 기술/평가(description/evaluation), 내용(content) 및 네트워크(network)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개념화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고 다수 선행연구가 Tardy(1985)의 구분을 근거로 사회적 지지 또는 교사지지를 개념화 하였다.

교사지지와 교사애착은 교사-학생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관련 선행연구는 교사-학생 관계와 교사지지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김남희, 2011). 한편, Davis(2003)에 따르면, 동기(혹은 지지) 관점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만 교사 주도의 관계 형성에

더욱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애착 관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김남희(2011)는 교사지지가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지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단선적인 정보인 반면, 교사 애착을 의미하는 교사-학생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서적 유대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실제, 김남희(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수업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 애착과 교사지지가 구분되는 개념임을 구명하였다. 즉, 교사애착은 교사와 학생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서적 유대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일방향적 영향을 의미하는 교사지지와 구분된다.

2) 교수 진로지지 측정

Nolten(1994)은 Tardy(1985)의 사회적 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Tardy(1985)가 제안한 사회적 지지 프레임워크에 따라 Nolten(1994)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이며 지지원은 부모, 교사, 또래이다. 각 지지원별 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5문항, 도구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2문항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Nolten(1994)의 측정도구는 사회적 지지 프레임워크라는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진로에 초점을 둔 교수의 행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미라(2000)는 Nolten(1994)의 측정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미라(2000)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 교사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지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지지원별 정서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2문항, 도구적 지지 2문항, 평가적 지지 2문항의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라(2000)의 측정도구는 많은 국내 연구에서 활용되는 측정도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통계적 타당성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 진로에 관한 교사의 행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측정도구 중 또 다른 하나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가 있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 문헌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이며 지지원은 부모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한다. 한편, 부모, 교사, 또래 등 각각의 지지원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묻는다는 점이 해당 측정도구의 특징이다.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박지원(1985)의 측정도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반면, 특정한 사회적 지지원을 특정하지 않아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간호분야에서 개발되어 해당 문항을 교육학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른 측정도구와 마찬가지로 교수의 진로지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Zhang et al.(2021)은 중국의 기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교수자[2] 지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Zhang et al.(2021)은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구인을 3가지로 구분하였고 전문가 대상 적절성 검토 및 학생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문항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은 자기탐색 함양,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세 개이고 문항 수는 자기탐색 함양 6개 문항, 정보적 지지 5개 문항, 정서적 지지 5개 문항이며 응답 범위는 Likert 5점 척도이다. Zhang et al.(2021)의 진로 관련 교수자 지지 측정도구

2) Zhang et al.(2021)은 Teacher Suppor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측정도구가 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타당화되었고 중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Teacher가 교사뿐만 아니라 교수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자로 표현하였음.

는 학생의 진로를 지지하기 위한 교수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기 논의한 교수 진로지지 측정도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교수 진로지지 관련 측정도구 종합

구분		Nolten(1994)	이미라(2000)	박지원(1985)	Zhang et al. (2021)
조사대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전문대학
조사 도구 구성	명칭	Student Social Support Scale(SSSS)	사회적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척도	Career-related teacher support scale
	문항 수	15문항	9문항	25문항	16문항
	구성 요인	• 정서적 지지 • 정보적 지지 • 도구적 지지 • 평가적 지지	• 정서적 지지 • 정보적 지지 • 도구적 지지 • 평가적 지지	• 정서적 지지 • 정보적 지지 • 도구적 지지 • 평가적 지지	• 자기탐색 함양 • 정보적 지지 • 정서적 지지
	응답 범위	6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조사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안면타당도 수렴타당도	-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	.97	.84	.94	.92
조사 도구 특징		지지원별 문항 구성	지지원별 문항 구성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	간호분야에서 개발	중등단계 및 고등단계 학생 대상 타당화

자료: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Zhang, J., Chen, G., & Yuen, M.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related Teacher Support Scale: data from Chin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1(1), 161-185.

나. 정서지능

1) 정서지능 개념

가) 정서지능 정의

정서지능은 Thorndike(1920)의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Kukah et al., 2021). 이후, Gardner(1984)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개념을 제시하며 다중지능으로서 개인 내 지능과 개인 간 지능 내 정서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Payne(1986)의 미출간 박사학위논문이며(Matthews et al., 2002) Salovey & Mayer(1990)에 의해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본격적으로 개념화 및 논의되기 시작하였고(Kukah et al., 2021) Goleman(1995)에 의해 대중화되었다(Matthews et al., 2002). 이후, 정서지능은 정서지능을 하나의 인지적 능력으로 간주하는 기술 기반 모델(skill-based model)의 관점과 정서지능을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특성 기반 모델(trait-based model) 또는 혼합 모델(mix model)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지능의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다. 사전적으로 정서(emotion)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학술적으로 정서는 주관적, 생물학적, 목적지향적, 사회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개념(Reeve, 2002)으로서 특히, Mayne & Ramsey(2001)의 관점에 따르면 정서는 정서반응의 차원(유쾌함-불쾌함)과 강도의 차원(각성수준, 높음-낮음)의 2차원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행복이라는 정서는 유쾌한 정서반응이자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정서인 반면, 슬픔이라는 정서는 불쾌한 정서반응이자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정서이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정서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야기된다. 위협감, 외로움, 기쁨 등의 정서는 그만의 독특한 신호(signals)를 갖고 있어, 개인은 이러한 정서적 신호 정보를 평가한다(Mayer et al., 2004). 때문

에, 정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기 쉬우며 일시적이다(Matthews et al., 2002).

지능은 추상적인 사고를 수행하는 능력(capacity)이자 학습하는 능력이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et al., 2004). Matthews et al.(2002) 또한, 지능을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다양한 심리적 능력이자 개인이 특정 인지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 지능은 인지적 측면의 능력으로서 사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서지능을 인지적 능력으로 보는 기술 기반 모델의 관점 하에,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Mayer & Salovet, 1997; Mayer et al., 2004; Wong & Law, 2002)으로 정의된다. 특히, Wong & Law(2002)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정서 관련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수반되는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Goleman(1995)이 제안한 정서지능의 5개 구성요인 중 자기관리 요인 내, 성실성, 주도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Mattews(2002)는 Goleman (1995)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고 독립적인 특질들을 정서지능이라는 하나의 구인 내에 모두 합쳐놓았다고 비판하였다. Mattews(2002)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정서지능을 인지적 능력으로 보는 협의의 관점, 즉 기술 기반 모델의 관점을 취하며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나) 정서지능 구성요인

정서지능을 인지적 능력으로 보는 기술 기반 모델의 관점을 바탕으로 Mayer et al.(2004)은 정서지능을 정서의 인식 및 표현, 사고 촉진을 위한 정서의 활용, 정서의 이해 및 정서 관리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얼굴, 목소리, 그 외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촉진을 위한 정서의 활용은 감정을 사

고와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정서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목적, 자기 지식, 사회적 인식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Wong & Law(2002)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을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정서지능을 정의한 다수 선행연구(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Salovey & Mayer, 1990)에서 제안한 정서지능의 구분과 맥을 같이한다. 자기정서 이해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타인정서 이해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정서조절은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정서활용은 긍정적인 행동과 성과를 함양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ong & Law, 2002).

주목할 점은 정서지능이 자신의 정서에 관한 지능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Goleman, 1995; Mayer et al., 2004)는 정서지능을 개념화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고려하였다. 이는 정서지능이 Thordike(1920)의 사회적 지능의 개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안윤정, 2015). 즉, 정서지능의 초점은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데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측정하는 것에도 초점을 둔다(Kukah et al., 2021). 또한, 자기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의 개념에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개념까지 포함된다. 정서지능을 정의한 다수 선행연구(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Salovey & Mayer, 1990)는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정서지능 개념 내에 고려하였다. 정서지능의 유래 및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 내 타인정서 이해를 포함한다.

다) 정서지능 유사 개념

정서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발현만을 의미하는 감정(feeling)과 구분된다(APA Dictionary, n.d.). '밖으로' 의 의미의 라틴어 e와 '움직이다.' 를 뜻하는 movere로부터 정서의 개념이 유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차여진, 2015), 정서는 밖으로 표출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기분(moods)는 정서에 비해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정서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Matthews et al., 2002).

이러한 정서와 기분을 모두 포괄하여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으로 부르기도 한다(Matthews et al., 2002). 정의적 영역의 개념은 Bloom(1956)이 제안한 교육목표분류에 근거한다. Bloom(1956)은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과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심동적 영역(psycho-motor domain)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정의적 영역을 분류하였으나 학자들마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점이 상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통된 주장은 정의적 영역이 흥미, 태도, 감상, 가치관, 감정, 신념 등이 포함되는 인지적 영역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김은혜 외, 2015).

정서지능은 정서와 관련된 지능이라는 점에서 다중지능과 개념적으로 유사할 수 있으며 특히, 곽이랑(2013)의 연구에서 두 지능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다중지능과 달리 정서지능은 초점이 정서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ardner(1993)는 지능을 언어지능, 논리 · 수학지능, 신체 · 운동지능, 음악지능, 시각 ·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지능의 여덟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볼 때, 다중지능은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은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로 구분되어, 다중지능과 달리 지능의 초점이 정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서지능 측정

Salovey et al.(2003)의 측정도구는 정서 인식, 사고 촉진을 위한 정서 활용, 정서 이해, 정서 관리의 네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능력과제 또는 정서수행 과제를 제시하여 정답을 맞추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특성 기반 모델(trait-based model)에 기반하여 정서지능을 인지적인 능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연구는 정서지능에 정답이 있는 것에 의문을 제시한다. Matthews et al.(2010)은 정서가 사회 맥락 속에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답이 있는 문항채점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를 기쁨의 눈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슬픔의 눈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이경민, 임웅, 2016).

Boyatzis et al.(2000)은 정서지능의 특성 기반 모델(trait-based model) 또는 혼합 모델(mix model) 관점을 기반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성요인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기술의 네 가지로서 다양한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성을 측정하도록 문항이 개발되었다. 한편, Mattews(2002)는 특성 기반 모델에 근거를 둔 정서지능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함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해당 측정도구를 활용했을 때의 도출된 결과가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인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측정 도구는 공식적인 간행물로 소개되지 않아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Wong & Law(2002)는 특성 기반 모델에 근거하여 정서지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구성요인은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네 가지이며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특성 기반 모델을 근거로 정서지능을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Boyatzis et al.(2002)의 측정도구와 비교할 때, 정서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연구에 활용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신뢰도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기 논의한 정서지능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정서지능 측정도구

구분		Salovey et al.(2003)	Boyatzis et al.(2000)	Wong & Law(2002)
조사대상		대학생	청소년 및 성인	대학생
조사 도구 구성	명칭	MSCEIT V2.0 (Mayer, 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ECI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WLEIS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요인, 문항 수	4요인, 141문항	5요인, 110문항	4요인, 16문항
	구성 요인	• 정서 인식 • 사고 촉진을 위한 정서 활용 • 정서 이해 • 정서 관리	• 자기인식 • 자기관리 • 사회적 인식 • 대인관계 기술	• 자기정서이해 • 타인정서이해 • 정서활용 • 정서조절
	응답 범위	선택형 및 서답형	확인 어려움	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수행능력검사 (각 영역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반응)	• 자기 및 관리자 평가 • 직접 평가 • 동료 평가	평균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구인타당도	확인 어려움	구인타당도
	신뢰도	.67~.93	.58~.81	.83~.90
조사도구 특징		• 정서지능을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정신적인 능력으로 보는 관점 • 정해진 채점 준거가 있는 수행평가 방식으로 정서지능 측정(이수미, 2010)	• 측정도구가 공식적인 간행물에 소개되지 않음(Mattews, 2002) • 정서지능 내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Mattews, 2002)	• Salovey & Mayer(1990)이 제시한 정서지능 개념을 근거로 측정도구 개발

자료: Boyatzis, R. E., Goleman, D., & Rhee, K. (2000). Clustering compet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ECI).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99(6), 343-362.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 Lopes, P. N. (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abilities with the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Wong, C. S., & Law, K. S. (2002).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The Leadership Quarterly.

다. 자율적 진로 동기

1) 자율적 진로 동기 개념

가) 자율적 진로 동기 정의

자율적 동기의 개념은 1980년대부터 논의된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율성의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가정하며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외재적인 동기라 할지라도 주인의식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율적 동기의 개념을 제안하였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17). 이후, 자율적 동기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되었다. 특히, 진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Guay(2005)가 자율적 동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자율성 개념을 제안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율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김태환(2019)은 Sheldon et al.(2017)의 자율적 동기 측정 도구를 진로탐색에 초점을 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개념을 제안하였고 정은교(2021)는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율적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 진로 동기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진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자율적 동기 관련 연구는 '진로탐색' 혹은 '졸업 후 일을 하는 것' 등으로 동기의 초점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Ryan & Connell(1989)은 자율성 개념을 바탕으로 동기를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와 통제된 동기(controlled motivation)로 재구분하였다. 자율적 동기는 자신의 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Ryan & Deci, 2006; Sheldon et al., 2017)로서 내적 조절 동기, 통합된 조절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가 포함된다. 반면, 통제적 동기에는 부과된 조절 동기, 외적 조절 동기가 해당된다. 진로 연구 분야에 자율적 동기 개념을 적용한 Guay(2005)는 진로결정자율성을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인지하는 동기의 수준으로 정의하였고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개념을 제안한 김태환(2019)은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진로탐색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로 정의하였다. 정은교(2021)는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를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로 보았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자율적 진로 동기를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 의도로 정의한다. 해당 정의는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를 수행 의도로 정의한 김태환(2019)의 정의와 자기결정성 진로 동기를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로 본 정은교(2021)의 정의에 기반을 둔다. 특히, 진로가 일과 관련한 경험의 총체(<표 Ⅱ-4> 참조)임을 감안할 때, 진로 동기는 일과 관련한 행위의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표 Ⅱ-4> 국내·외 선행문헌의 진로 정의 종합

구분	정의
국내 정의	• 앞으로 나아갈 길(국립국어원) •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의 일생을 체계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일의 개념(이현림, 2007) •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들(김계현, 1995)
국외 정의	• The totality of work one does in a lifetime(Sears, 1982; Hoyt, 1974) • Career = work + leisure (McDaniels, 1989) • Time extended working out of a purposeful life pattern through work undertaken by the person(Patterson et al., 2002)

나) 자율적 진로 동기 구성요인

자기결정 이론은 메타이론으로서 6개의 하위 이론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하위 이론인 유기적통합이론은 외재적 동기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유기적통합이론에 따르면, 외적 동기는 자율성에 기반한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일시 조절(regulation through identification) 및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동기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Ryan & Deci, 2017)(<표 Ⅱ-5> 참조). 외적 조절 동기는 개인에게 내재화가 전혀 안된 동기이며 보상, 타인으로부터 인정, 칭찬을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이는 조건화 이론(Skinner, 1953) 관

점의 동기와 맥을 같이한다. 부과된 조절 동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에 따른 동기로서 죄책감, 불안에 의한 동기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0). 동일시 조절은 외적 동기이지만 나름의 가치를 부여한 동기를 의미하며 상당히 내재화된 동기이나 행동 자체에서 느껴지는 만족,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 동기와는 구분된다(Ryan & Deci, 2000, 2017). 마지막으로 통합된 조절은 외적 동기가 완전히 내재화된 동기를 의미한다(Ryan & Deci, 2017). 즉, 외적 요구를 자기 자신에게 일치시킨 동기를 의미한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김아영, 2002; Sheldon et al., 2017)는 통합된 조절 동기는 동일시 조절 동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실증연구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표 Ⅱ-5> 자기결정이론에 따른 동기 구분

구분	비자기결정적					자기결정적
동기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 동기
조절 유형	무조절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적 조절
인과 소재	없음	외적	약간 외적	약간 내적	내적	내적
관련 조절 과정	무의도 무가치 무능력 통제의 결여	외적 제한에 따른 외적인 보상과 처벌	자기통제 자아의 개입 내적인 보상과 처벌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겨 가치를 둠	일치 자각 자기통합	흥미 즐거움 고유한 만족

자료: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ro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The Guilford Press.

자율적 진로 동기의 구성 요인은 선행연구마다 공통적으로 내재 동기와 동일시 조절 동기의 두 개 요인을 포함한다(김태환, 2019; 정은교, 2021; Guay, 2005; Ryan & Connel, 1989; Sheldon et al, 2017). 자율적 동기를 주장한 Ryan & Connel(1989)은 자율적 동기의 구성요인으로서 내재 동기, 통합된 조절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를 제안하였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Gagne' et al., 2015; Mallett et al., 2007; Tremblay et al., 2009; Vallerand et al., 1992)는 통합된 조절 동기가 동일시 조절 및 내재 동기와 통계적으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태환(2019)은 Sheldon et al.(2017)의 자율적 동기의 개념을 근거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 또한,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하여 내적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의 세 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김태환(2019)과 Sheldon et al.(2017)의 자율적 동기 구분의 특징은 부과된 조절 동기를 긍정적 동기와 부정적 동기로 구분하여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를 자율적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목표지향성을 접근 지향과 회피 지향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선행연구(Assor et al., 2009) 접근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자율적 동기 내에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를 포함하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 관련한 선행연구(김태환, 2019; 정은교, 2021)의 정의를 바탕으로 내재 동기를 재미나 즐거움에 의해 발현된 수행 의도로 정의하고 동일시 조절 동기를 특정 행동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발현된 수행 의도로 정의한다.

다) 자율적 진로 동기 유사 개념

자율적 진로 동기는 일 동기(work motivation), 진로결정자율성(Guay, 2005)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김태환, 2019)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 동기는 개인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work hard) 하고 잘 하는지(work well)의 정도를 의미하며 일터에서의 일에 대한 인식(arousal), 방향(direction), 지속성(persistence)을 의미한다(Golembiewski, 2019). 즉, 일 동기의 측정 대상은 직업세계로 이행한 이후의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직업세계 이행 이전의 대상에 초점이 있는 자율적 진로 동기의 개념과 구분된다.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의 이론적 기반이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17)인 반면, 일 동기는 자기결정이론과 관련성이 낮게 때문에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율성(Guay, 2005)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김태환, 2019)는 동기의 대상이 진로탐색에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

고 인지하는 동기의 수준을 의미한다(Guay, 2005). 정의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진로결정자율성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진로와 관련한 정보 수집,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진로 대안에 대한 정보 수집, 진로목표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자신에 대한 정보(가치, 성격, 흥미 등) 수집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진로결정자율성의 초점이 진로탐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에 주인의식을 느끼고 흥미 및 관심,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의도를 의미한다(김태환, 2019).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초점은 진로탐색행동에 있다. 측정도구 또한, '나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 에 관한 동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진로결정자율성과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는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적 동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 공통되지만, 동기의 초점이 진로탐색에 있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려는 동기를 의미하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자율적 진로 동기 측정

Ryan & Connell(1989)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동기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숙제를 왜 합니까?' 와 같이 측정 문항은 초·중학생의 학업과 친사회적 행동의 이유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내적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로 구성된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고 부과된 조절 동기, 외재적 조절 동기로 구성된 통제된 동기를 측정한다. 총 26개 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 학업 동기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있어 대학생 대상 진로 동기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진로 분야에서 자율적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 척도가 있다. Guay(2005)는 진로의사결정에서의 동기에 관한 관심이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Ryan & Connell(1989)의 동기 분류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의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R

yan & Connell(1989)과 마찬가지로,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내적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로 구성되는 자율적 동기, 부과된 조절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성된 통제된 동기로 구분된다.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된다.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 척도는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활용하여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한다. 자율성 지수 산출 공식은 '(내적동기+동일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절)' 이며 산출된 지수의 합이 높은 개인은 높은 자율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활용한 자기결정 동기의 측정 방법은 각 요인이 지닌 독특한 효과를 감춰버리고 많은 양의 정보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Chemolli & Gagne, 2014; Gagne et al., 2015; Howard et al., 2018; Van den Broeck et al., 2013). 예컨대, 상대적 자율성 지수가 3점인 경우, 자율적 동기가 7점이면서 통제적 동기가 4점인 학생과 자율적 동기가 4점이면서 통제적 동기가 1점인 학생 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선행연구는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활용하기 보다, 각 요인 점수를 개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또는 자기결정성 동기 요인을 각각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로 통합한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Gagne et al., 2015; Van den Broeck et al., 2013).

Sheldon et al.(2017)은 자율적 동기 측정 도구가 선행연구별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동 영역 전반에 적용가능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Sheldon et al.(2017)은 선행연구가 부과된 조절 동기가 자신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긍정적 측면과 자신의 가치를 잃는 것을 회피하려는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예컨대,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해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는 죄책감, 불안 등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김태환, 2019).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Sheldon et al.(2017)은 자율적 동기를 내적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로 구분하였고 통제된 동기는 부정적으로 부과된 동기, 외재적 조절 동기, 무동기로 구분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해당 측정도구는 다양한 맥락에 맞게 측정도구를 수정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또한, 상대적 자율성 지수가 아닌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통해 동기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과된 조절 동기를 긍정적 및 부정적 동기로 구분하는 시도는 현재까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며 진로 및 진로의사결정 맥락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측정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로 동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 중 정은교(202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를 개발하였다. 정은교(2021)가 개발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의 하위요인은 무동기,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동일시 조절, 내재 동기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해당 측정도구는 학업을 마친 후 장래에 취업이나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채점 방식에 있어, 정은교(2021)는 Guay(2005)의 진로결정자율성 측정도구 채점 방식인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기반으로 자기결정성 진로동기를 C-SDI 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C-SDI는 '(무동기x-3)+(부과된 조절x-2)+(외적 조절x-1)+(동일시조절x2)+(내재동기x4)'의 공식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정은교(2021)는 상대적 자율성 지수 산정 시, 많은 양의 정보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기결정성 동기 요인을 각각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로 구분하여 각 동기 유형의 합산 점수를 연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기 논의한 자율적 진로 동기 관련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표 Ⅱ-6> 자율적 진로 동기 관련 측정도구 종합

구분		Ryan & Connell(1989)	Guay(2005)	Sheldon et al.(2017)	정은교(2021)
조사대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학생	대학생 및 직장인	대학생
조사 도구 구성	명칭	Self-Regulation Questionnaires(SRQ)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Relative Autonomy Index(RAI)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
	문항 수	26문항	32문항	24문항	35문항
	구성 요인	• 자율적 동기 -내적 동기(6문항) -동일시 조절 동기(7문항) • 통제된 동기 -부과된 조절 동기(7문항) -외재적 조절 동기(6문항)	• 자율적 동기 -내적 동기(8문항) -동일시 조절 동기(8문항) • 통제된 동기 -부과된 조절 동기(8문항) -외재적 동기(8문항)	• 자율적 동기 -내적동기(4문항) -동일시 조절 동기(4문항) -긍정적으로 부과된 조절 동기(4문항) • 통제된 동기 -부정적으로 부과된 조절동기(4문항) -외재적 조절 동기(4문항) -무동기	• 무동기(7문항) • 외적 조절(7문항) • 부과된 조절(7문항) • 동일시 조절(7문항) • 내재 동기(7문항)
	응답 범위	4점 (Likert scale)	7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6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평균	합산	평균	평균
조사 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교차타당도 구인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동시타당도
	신뢰도	학업: .62-82 친사회적 행동 .62-.87	.91-.95	.74~.81	.76-.89
조사 도구 특징		학업 동기에 초점	상대적 자율성 지수를 활용하여 정보 손실이 있음.	김태환(2019)은 진로탐색 맥락에서 측정도구 구성	대학생의 직업 세계로 이행에 초점

자료: 정은교. (2021). 정은교. (2021).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77-97.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

Sheldon, K. M., Osin, E. N., Gordeeva, T. O., Suchkov, D. D., & Sychev, O. A. (2017). Evaluating the dimensionality of self-determination theory's relative autonomy continu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9), 1215-1238.

라. 진로탐색행동

1) 진로탐색행동 개념

가) 진로탐색행동 정의

진로탐색행동은 Jordaan(1963)이 일반적인 탐색행동의 개념을 진로 분야에 적용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Porfeli & Skorikov, 2010; Taveira & Moreno, 2003). 특히, Joardaan(1963)은 조사, 실험, 탐구, 시도, 가설검증을 진로탐색의 대표적인 행동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진로발달이론(Ginzberg et al, 1951; Super, 1957), 사회학습이론(Krumboltz, 1979), 진로의사결정이론(Harren, 1979; Gati & Asher, 2001; Reardon et al., 2017),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및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13)은 진로탐색행동을 진로발달,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구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은 전생애 동안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은석, 2020; 이영광, 김기민, 2022; 최동선, 2003)이다. 이러한 정의는 진로탐색행동의 목적, 대상, 양상 및 기간으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진로탐색행동의 목적은 진로발달 또는 진로의사결정이다. 진로발달이론(Ginzberg et al., 1951; Super, 1951)은 진로탐색 단계의 상위 발달 단계로서 진로결정 및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이론 관점에서 진로탐색은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Harren, 1979; Reardon et al., 2017).

진로탐색행동의 대상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이다. 진로의사결정 맥락에서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을 제안한 Reardon et al.(2017)은 진로 정보 수집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최동선, 2003; Felsman & Blustein, 1999; Ketterson & Blustein, 1997; Stumpf & Lockhart, 1987)가 진로탐색을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의 양상은 행동적, 인지적 활동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진로탐색에서 정보수집 활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이은석, 2020). 그러나, 진로탐색은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대안을 마련하고 진로대안을 평가하며 진로대안을 내재화하는 인지적 활동 또한 포함되어 있다(이은석, 2020). 진로의사결정이론(Gati & Asher, 2001; Harren, 1979; Reardon et al., 2017)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자신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 대안을 마련하며 진로를 선택한 후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일련의 행동적, 인지적 활동 과정으로 보았다. 사회학습이론을 제시한 Krumboltz(1979) 또한, 진로탐색행동을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진로탐색을 인지적, 행동적 활동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행동의 기간은 전 생애이다. 선행연구(Flum & Blustein, 2000; Stumpf et al., 1983; Super, 1980)는 진로탐색행동이 전생애에 걸쳐 수행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및 진로구성이론(Savicas, 2013)은 진로탐색을 진로성과 창출을 위한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진로탐색부터 진로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진로구성 과정은 평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진로탐색행동 관련 국외 문헌을 분석한 Jiang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은 아동기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연구되었다.

나) 진로탐색행동 구성요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탐색행동의 구인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Stump et al.(1983)은 진로탐색의 주요한 두 가지 대상이 환경과 자신이라고 하였고 최동선(2003)은 진로탐색이 행위자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진로탐색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최동선, 2003; Felsman & Blustein, 1999; Ketterson & Blustein, 1997; Stumpf & Lockh

art, 1987)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이 구분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최동선(2003)이 제안한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을 고려할 때, 자신에 대한 탐색은 타인과 매체, 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탐색은 타인과 매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은 인지적, 행동적 활동으로서 정의적 요인은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 개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선행연구의 진로탐색행동 정의를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Jordaan(1963)은 진로탐색행동을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함양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Stumpf et al.(1983)은 진로탐색행동을 직업 발달과 관련한 행동 및 인지적 탐색 과정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의 경우, 최동선(2003)은 진로탐색행동을 앞으로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self-appraisal)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은교(2021)는 진로탐색행동이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 활동이 포함된 개념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는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소로서 정의적 요인(Flum & Blustein, 2000)이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하나, 정의적 요인은 진로탐색행동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Krumboltz, 1979)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탐색행동에 따른 학습 경험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야기한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의 모델을 제시한 Stumpf et al(1983)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에 따라 개인은 만족을 경험하거나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과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은 정의적 요인을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다) 진로탐색행동 유사 개념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은 직업탐색행동(vocational explo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구직행동(job search behavior) 개념과 구분된다. 직업탐색행동은 그 초점이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수준의 비교대상이라기 보다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정훈, 2015).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은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직업탐색행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서(김봉환, 김계현, 1997) 행동의 시점이 진로결정 이후라는 점이 특징이다.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의사결정 이전 시점에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임을 고려할 때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사결정 이후에도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임정훈, 2015; 조영아, 정철영, 2013).

구직행동은 취업과 관련된 잠재적인 직업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들을 검토 및 확장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선아, 신강현, 2018). 정의에 따르면, 구직행동은 직업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Werbel, 2000) 노동경제학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직업 획득을 위한 행동만을 강조하여 심리적인 속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구직행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의 개념과 구분되며 일부 선행연구(서진숙, 1998; 조애리, 1999)는 구직행동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이 구직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주장한 바 있다.

2) 진로탐색행동 측정

진로탐색행동의 초기 측정도구로서 Stumpf et al.(1983)의 Career Explora

tion Survey(CES)는 3개 영역, 16요인,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탐색행동에 대한 신념, 탐색과정,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의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Likert 5점 및 7점 척도로 측정된다. 한편, Stumpf et al.(1983)의 측정도구는 문항 수가 많아 경험 연구에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며(Jiang et al., 2019) 신뢰도 또한,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Tracey et al.(2006)의 측정도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areer Exploration Scale(CES)을 개발하였다. 단일요인으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Tracey et al.(2006)의 측정도구는 지난 3개월 간의 행동을 강조하며 인지적 활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Jiang et al., 2019). 진로탐색행동이 전생애 동안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은석, 2020; 최동선, 2003)임을 고려할 때, 해당 측정도구는 인지적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Porfeli & Skorikov(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타당화하였다. Porfeli & Skorikov(2010)의 측정도구는 과거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한 선행연구의 논의와 달리 전반적 탐색과 구체적 탐색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구성 요인은 전반적 탐색과 구체적 탐색의 두 가지이고 각 요인은 5개 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한편, 해당 측정도구는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호기심과 탐색을 측정하는 Kashda et al.(2009)의 측정도구를 진로탐색 맥락으로 수정한 도구로서 진로탐색행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측정도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진로탐색행동의 초점이 전반적 탐색과 구체적 탐색을 측정하는데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행동 수준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김태환, 2019).

최동선(2003)의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의 2개 요인,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최동선(2003)의 측정도구는 약 20년 동안 국내 진로탐색행동 관련 연

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이영광, 김기민, 2022). 선행연구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구인타당도가 확보된 결과 또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상기 진로탐색행동 관련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진로탐색행동 관련 측정도구 종합

구분		Stumpf et al.(1983)	최동선(2003)	Tracey et al.(2006)	Porfeli & Skorikov(2010)
조사대상		대학생	대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조사도구 구성	명칭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	Career exploration scale(CES)	Specific &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문항 수	3영역, 16요인, 59문항	2요인, 28문항	13문항	2요인, 5문항
	구성 요인	• 탐색행동에 대한 신념 • 탐색과정 •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 자신에 대한 탐색 • 직업에 대한 탐색	단일요인	• 전반적 탐색 • 구체적 탐색
	응답 범위	1~5점 및 7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합산	평균	평균	평균
조사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	.67~.89	.81~.92	.80	.81~.92
조사 도구 특징		문항 수가 많아, 경험 연구에 활용하는데 제한적임 (Jiang et al., 2019).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측정도구	지난 3개월간의 행동을 강조하 인지 활동은 고려하지 않음(Jiang et al., 2019)	문항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음(김태환, 2019).

자료: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orfeli, E. J., & Skorikov, V. B.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Tracey, T. J., Lent, R. W., Brown, S. D., Soresi, S., & Nota, L. (2006). Adherence to RIASEC structure in relation to career exploration and parenting style: Longitudinal and idiothetic consider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248-261.

마.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1)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개념

가)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정의

불확실성 인내(tolerance of uncertainty)는 모호함 인내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Frenkle-Brunswik(1949)가 처음으로 모호함 인내력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 Budner(1963)에 의해, 모호함 인내력 및 인내력 부족의 개념이 체계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60년간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이 연구되었다(Storme et al., 2019).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은 Krohne(1993)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으로서 제시되었다. 이후, 걱정(worry) 연구 분야에서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Buhr & Dugas, 2002). 한편, 오늘날 선행연구는 모호함 인내력과 불확실성 인내력의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Hillen et al., 2017).

사전적 의미로서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표준국어대사전, n.d.)'로서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이아라, 2013).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는 학술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Hillen et al.(2017)은 불확실성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을 가장 상위 개념으로 보았고 하위 개념으로서 모호성(ambiguity), 개연성(probability), 복잡성(complexity)이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모호성은 신뢰롭고 적절한 정보의 부족 상태를 의미하고 개연성은 미래 사건에 대한 임의적 상태(randomness)를 의미하며 복잡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의 특징(예: 다양한 특징, 인과 요인, 영향 요인)을 의미한다(Hillen et al., 2017). 초기 연구로서 모호함 인내의 개념을 체계화 한 Budner(1963)의 주장 또한, Hillen et al.(2017)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Budner(1963)는 모호성을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성향으로 보았다. 모호한 상황이란 익숙한 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상황(novelty), 많은 정보가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complexity), 상반된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insolubility)을 의미한다. Budner(1963)의 정보가 부족한 새로운 상황, 많은 정보가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 상반된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은 Hillen et al.(2017)의 개연성, 모호성, 복잡성의 개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 인내란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복잡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표준국어대사전, n.d..)' 을 의미하며 참고 견디는 것에는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포함한다. Hillen et al.(2017)은 불확실성 인내를 세계의 특별한 측면에 대한 무지를 인식함으로써 비롯된 부정적, 긍정적 심리적 반응(response)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심리적 반응 내에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이 포함됨을 주장하였다. 그 외, 다수 선행연구는 불확실성 인내 혹은, 인내 부족을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이슬(2016)은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을 미래의 불확실함을 수용하지 못하여 불확실함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이에 불확실함을 인지, 행동 차원에서 회피하거나 불확실함을 줄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는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서성식(2018)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모호한 사건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하고 미래에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Freeston et al.(1994)은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을 매일의 삶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함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Ladouceur et al.(1998)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이 정보를 인식하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상(way)으로 정의하였으며 Koerner & Dugas(2008)은 불확실성과 그 의미 및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이 야기되는 기질적 특성(dispositional characteristic)으로 정의하였다.

불확실성 인내의 개념을 고려할 때,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복잡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정

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며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의사결정 및 심리적 과정(Harren, 1979)으로서 진로결정 여부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는 심리적, 행동적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이다(이영광, 정철영, 2021). 따라서, 진로를 결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진로결정성 및 진로결정과 개념적 차이가 있다(이현민, 2020).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부족의 모호성(ambiguity), 미래의 불분명한 상태로서 개연성(probability), 다양한 정보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complexity)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진로의사결정 과정 중,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나)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구성요인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구성요인은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의 반응으로서 부적응 및 회피, 수용, 그리고 정보수집 선호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Lipshitz & Strauss(1997)에 의하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은 (1) 불확실성 회피·억압(tactics of suppression), (2) 불확실성 감소(tactics of reduction) (3) 불확실성 인정(tactics of acknowledgement)의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선행연구(김이영, 2018; Buhr & Dugas, 2002)는 개인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등의 부적응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아라(2013)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피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였고 그 외, 선행연구(서성식, 2018, Carleton et al., 2007)는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을 측정함에 있어 부적응 및 회피 수준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불확실성을 수용(이아라, 2013; Hillen et al., 2017)한다고 하였다. 이아라(2013)는 실험 연구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진로탐색과정에 효과적인 반응임을 주장하였다. 그 외, 다수 선행연구(Frattaroli & Thomas, 2011; Klein & Boals, 2001; Yogo & Fujihara, 2008)는 불확실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긍정적임을 구명하였다.

또한, 개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아라(2013)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은 가장 먼저 추가적인 정보나 행동들로 불확실성을 감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수 선행연구(서성식, 2018; Carleton et al., 2007; Lipshitz & Strauss, 1997; McEvoy & Mahoney, 2012)는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을 측정함에 있어 불확실한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계획하는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인내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하려하여 궁극적으로 걱정을 가중시킨다(김두리 외, 2020). 반면, 긍정적인 상태에 기반한 정보 수집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거나 진로미결정을 낮추는 등 개인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Xu & Tracey, 2015). 즉, 개인이 정보 수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보 수집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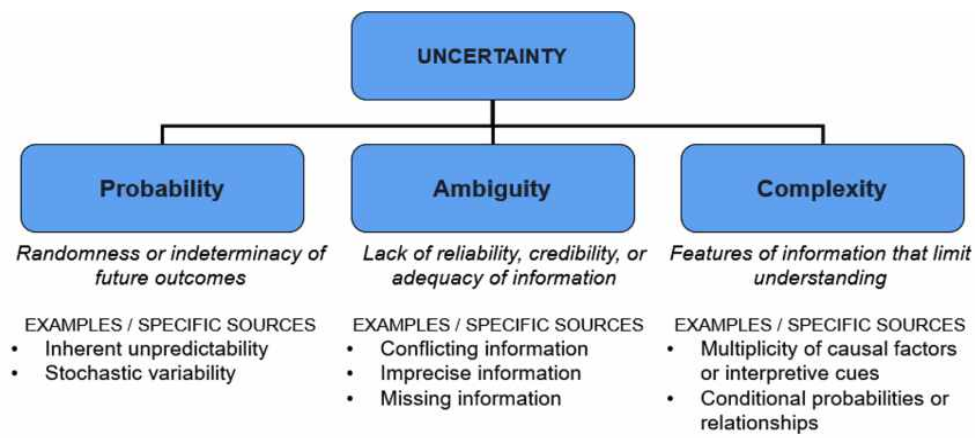
선행연구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서 정보수집, 수용, 부적응 및 회피의 세 가지 반응을 보임을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성요인을 정보수집 선호, 수용, 부적응 및 회피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개념과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구성요인별 개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정보수집 선호를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수용을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부적응 및 회피를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성요인으로서 정보수집 선호, 수용, 부적응 및 회피의 세 가지 반응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낮아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개인은 모호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Storme et al., 201

9). Xu & Tracey(2015)의 연구 결과가 상기 논의를 지지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모호함 인내의 구성요인인 선호, 인내, 혐오의 세 구성요인은 상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 간 상관이 높지 않다는 점은 개인이 높은 선호 수준이 항상 높은 수준의 인내 또는, 낮은 수준의 혐오와 관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유사 개념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성격 변인이라는 점에서 진로의사결정 모호성 인내와 유사하지만(Storme et al., 2019; Xu & Tracey, 2015) 불확실성이 모호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Hillen et al.(2017)이 제시한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 구분에 따르면, 불확실성은 모호성, 개연성, 복잡성을 포괄한다([그림 Ⅱ-1] 참조). 이 중, 모호성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Hillen et al.(2017)의 관점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의사결정 모호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림 Ⅱ-1〕 불확실성 관련 개념

자료: Hillen, M. A., Gutheil, C. M., Strout, T. D., Smets, E. M., & Han, P. K. (2017). Tolerance of uncertainty: Conceptual analysis, integrative model, and implications for health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180, 62-75.

또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결정 불확실성 인내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진로의사결정이 과정을 강조하는 개념(이영광, 정철영, 2021)인 반면, 진로결정은 결정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이현민, 2020)임을 고려할 때, 진로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를 결정한 이후, 결정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를 의미한다면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인식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를 의미한다.

2)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

불확실성 인내력 측정도구는 프랑스 학자인 Freeston et al.(1994)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후, Buhr & Dugus(2002)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하였다. 그러나, Burhr & Dugus(2002)의 연구에서는 4개 요인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등 선행연구마다 일관된 요인 구조를 보이지 않았다. Carleton et al.(2007)은 기존 측정도구가 문항 간 상관이 높고 요인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향성과 억제성의 두 개 요인 구조 및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여 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불확실성 인내력 측정도구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행연구는 측정도구를 역채점하여 불확실성 인내력을 측정한다. 한편, 진로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역채점을 함으로써 인내력을 측정함에 있어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McLain(2009)는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는 한계를 바탕으로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를 개발하였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 측정도구는 낯섦(unfamiliar), 불용(insoluble), 복잡(complex)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측정도구는 비교적 현재 모호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

정하는데 초점이 있다. 한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모호함 인식을 측정하여 진로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나는 모호한 상황을 잘 견딜 수 없다.’, ‘나는 모호한 상황을 선호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Xu & Tracey(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모호함 인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요인은 선호, 인내, 혐오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별 6개 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주목할 점은, 진로결정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측정도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모호함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라는 점이다. 예컨대, ‘나는 진로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있다’, ‘나는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와 같이 모든 문항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상기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관련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도구

구분		Carleton et al.(2007)	McLain(2009)	Xu & Tracey(2015)
조사대상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조사 도구 구성	명칭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The Multiple Stimulus Types Ambiguity Tolerance scale-Ⅱ	Career Decision Ambiguity Tolerance Scale
	요인, 문항 수	2요인, 12문항	3요인, 13개 문항	3요인, 18개 문항
	구성 요인	• 전향성(prospective IU) • 억제성(inhibitory IU)	• 낯섦(unfamiliar) • 불용(insoluble) • 복잡(complex)	• 선호(preference) • 인내(tolerance) • 혐오(aversion)
	응답 범위	4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평균	평균	평균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
	신뢰도	.68~.82	.83	.70~.83
조사도구 특징		• 진로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 낮음. • 선행연구는 역채점을 통해 불확실성 인내력을 측정	• 비교적 현재의 불확실성 초점이 있고 진로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 낮음.	•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 맥락을 고려하여 개발된 측정도구

자료: Carleton, R. N. (201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construct in the context of anxiety disord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Expert Review of Neurotherapeutics, 12(8), 937-947.
McLain, D. L. (2009). Evidence of the properties of an ambiguity tolerance measure: The multiple stimulus types ambiguity tolerance scale-II (MSTAT-II). Psychological reports, 105(3), 975-988.
Xu, H., & Tracey, T. J. (2015). Career decision ambiguity tolerance scal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9.

4. 진로선택몰입과 관련 주요 변인 간 관계

가. 변인 간 직접효과

1)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 간 직접효과

진로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 근거한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개인이 진로 문제를 인식하면서 시작되며 이후 자신과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몰입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Reardon et al.(2017)은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다양한 맥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맥락 요인으로서 교수의 진로지지가 대학생의 진로몰입을 위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은 개인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기반으로 마련된 이론으로서(Savickas, 2013) 개인의 진로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로구성이론의 주장을 고려할 때, 교수 진로지지와 같은 맥락 영향은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적응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맥락 요인이 진로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맥락 요인으로서 교수 진로지지가 진로성과인 진로선택몰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 또한,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지지한다. 경험 연구는 교수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교수 지지가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침을 구명한 결과와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침을 구명한 결과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교수 지지는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미정

(2019)의 연구에서는 교수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몰입 구성요인 내 진로선택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연구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Kautish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관광 서비스 분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mers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정서적 멘토링이 과학 분야 진로 몰입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멘토링은 교수를 포함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의미한다. 김민선, 최보금(2016)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진로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상호작용, 수업에 대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한 상호작용(예: 진로에 대해 교수와 의논함)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변인 간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교수 진로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경험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 이성희(2020)의 연구에서는 교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외생변인과 그릿의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구조적 관계를 확인했을 때, 교수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그릿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2015)의 연구에서는 교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구조적 관계를 구명했을 때,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 간 제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2)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 간 직접효과

관련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의 하위 이론인 인지평가이론과 유기적통합이론은 외부의 영향이 개인의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Ryan & Deci, 2017). 인지평가이론은 1970년대와 80년대 보상, 처벌, 평가, 피드백 및 다른 외적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제시된 이론으로서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에 초점을 둔다(Ryan & Deci, 2017). 인지평가이론은 3개의 가설을 제시한다(Ryan & Deci, 2017). 첫째, 통제를 위한 외적 사건은 개인의 내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적 사건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외적 통제 소재(external perceived locus of causality)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외적 사건은 개인의 내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외적 사건이 개인의 유능감을 함양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개인의 유능감을 침해하는 외적 사건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외적 사건은 정보적 측면, 통제적 측면, 비동기적 측면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보적 측면의 외적 사건은 유능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적 통제 소재(internal perceived locus of causality)를 함양하여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통제적 측면의 외적 사건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고 외적 통제소재 인식을 강화하여 내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무동기적 측면의 외적 사건은 내적, 외적 동기 모두 감소시키고 무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Ryan & Deci, 2017). 유기적통합이론의 5가지 가설을 제시하며 이 중, 한 가지 가설로서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의 세 가지 기본욕구를 위한 지지는 외적 요인의 내재화를 촉진시킴을 주장하였다(Ryan & Deci, 2017). 이는 교수의 긍정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타인과의 연결된 인식 및 자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라, 교수의 진로지지가 자율적 진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 결과 또한,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의 정적인 직접 관계를 지지한다. 다수 경험 연구는 교수 지지 및 교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자율적 동기 간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교수 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가 자율적 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김미정(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 지지가 자율적 동기를 의미하는 자기결정성 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지지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달리, 교수지지는 자기결정성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잠재변인(자기조절학습능력, 진로결정수준)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표준화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랑, 문혁준(201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중요한 타인과 진로결정자율성 및 구성요인으로서 내적동기와 확인된 조절 간의 상관 계수는 가족과 진로결정 자율성 및 구성요인 간 상관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보금, 조성희(2013)의 연구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수업 및 수업 외에서의 상호작용이 내재된 조절 동기와 확인된 조절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이 점차 높아진 유형의 경우, 낮아지는 유형에 비해 내재된 조절 동기와 확인된 조절 동기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Mustapa et al.(2019)는 다수 경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가 내적 동기를 강화함을 주장하였고 Sarwar & Khalid(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에 대한 동기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Tezci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동기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진로지원 내에 교수의 진로지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학교의 진로지원과 자율적 동기 간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의 결과 또한,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 간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곽현신(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율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학 진로개발지원 변인을

진로결정자율성의 예측변인으로 상정하였고 진로결정자율성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사회적 지지의 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상훈 외(2020)의 연구에서는 폴리텍대학 재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결정성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인 중, 학교 진로 관련 지원이 부모의 관심과 친구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화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효과

진로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과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 근거한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에 따르면, 개인은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한 후에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이 진로탐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은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을 포괄하며 다양한 맥락 요인이 진로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 요인이 적응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또한, 맥락 요인이 진로행동으로서 진로탐색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상기 진로 이론은 공통적으로 진로탐색행동에 다양한 맥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론의 주장을 종합하면, 맥락 요인인 교수의 진로지지가 진로행동 변인인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험 연구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정적인 직접 관계를 지지한다. 경험 연구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적인 관계를 보고한 결과와 간접적인 관계를 보고한 결과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적인 관계를 구명한 연구로서 다수 경험 연구는 교수 지지 및 교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김지흔, 정민주(2020)의 연구에서는 항공서비스 전공대학생들이 인식한 교수의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나(2021)의 연구에서는 교수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친구 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 지지의 표준화 계수는 교수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중요한 타인으로서 교수가 부모 및 친구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미(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의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순으로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sran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한 진로탐색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eung & Arnold(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지지가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동료의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교사의 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연구를 통합하여 분석한 문헌연구 결과 또한,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지지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Jiang et al.(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탐색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 관련 국외 문헌을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Kleine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진로와 관련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에 유의한 정적인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간접적 관계를 구명한 연구로서 일부 경험 연구는 변인 간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 교수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구명하였다. 이성희, 문경숙(2021)의 연구에서는 교수 지지가 진로탐색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 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상관계수는 부모 지지와 진로탐색행동 상관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외생변인으로서 교수 지지, 부모 지지 및 친구 지지와 매개변인으로서 그릿과 진로결정수준, 종속변인으로서 진로탐색행동 간 구조적 관계를 검정한 결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교수 지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심리적 변인인 그릿을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an(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생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으로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 종속변인으로서 진로선택 간 구조적 관계를 구명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 간 직접효과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과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은 정서를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적응준비와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개인의 진로성과를 의미하는 적응결과 간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지 않았지만, 진로적응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였던 강혜정(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응준비가 적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정서를 포함한 개인의 특성 변인이 진로선택몰입을 포함한 개인의 진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두 가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으로서 정서지능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선택몰입이 진로선택과 선택한 진로에 확신과 애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진로결정 관련 변인을 유사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간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

입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관련 경험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다. 경험 연구의 결과는 첫째, 정서지능의 구성요인과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간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 둘째, 정서지능 전체 및 구성요인 모두가 진로결정 관련 변인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 셋째,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간 관계가 부적인 결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정서지능의 구성요인과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간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서, 이진희, 이영미(2017)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인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 및 구성요인 모두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활용, 자기정서 인식, 정서조절, 타인정서 인식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각 정서지능의 구성요인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 분석 결과, 자기정서 인식과 정서활용만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타인정서 인식과 정서조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운, 박성실(201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의 각 구성요인이 진로결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장벽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경우, 외생변인인 정서지능은 진로장벽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영, 신소흥(2016)의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이 인식한 감성지능의 구성요인 중 감성조절만이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정서 이해, 타인 정서 이해, 정서 활용은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의 구성요인 중 공감과 관계 조정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만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몰입이 덜한 것임을 의미할 때, 정서활용 및 정서 조절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Fabio & Palazzeschi(2009)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구성요인 모두 진로결정어려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결정 어려움 구성요인별 상관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서지능 전체 및 구성요인 모두가 진로결정 관련 변인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현영(2018)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전체뿐만 아니라, 구성요인인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활용, 정서조절 모두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회귀계수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현영(2018)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지능이 오히려 학생의 진로결정을 확고하게 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로결정에 대한 정서지능의 역할을 보다 상세히 탐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관련 변인 간 관계가 부적인 결과로서 최진규(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 전체, 자기정서 이해, 정서활용, 정서 조절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타인정서 이해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결과,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의 각 구성요인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결과,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타인정서 이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진규(2018)는 타인정서 이해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의 의견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아 자신의 의견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종운, 박성실(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 모두가 진로미결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종운, 박성실(2014)은 우리나라의 정서적 특성 상,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나 부모님의 의견이 자신의 진로결정과 대치될 때, 감정이입으로 인해, 쉽게 나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모님과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킴을 주장하였다. 오히려, 정서지능이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유의한 총효과를 보였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지능과 진로 관련 다른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5)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간 직접효과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이 기반이 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정서를 포함한 개인 특성이 동기를 의미하는 목표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진로발달의 행동이론(action theroy of career development)을 주장한 Young et al.(1996)은 개인의 진로를 구성함에 있어 정서의 역할 세 가지를 제안하면서 정서가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혼란, 도전, 지루함과 같은 정서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 연구 또한,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의 관계를 지지한다. 진로결정자율성은 자율적 진로 동기 개념을 진로결정 맥락에 적용하여 개발한 측정도구(Guay, 2003)라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련 경험 연구는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성현승, 김현숙(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의 구성요인 중 정서활용이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이 인식한 진로결정자율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강석(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율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진로 동기는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기결정성 및 자기결정성 동기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 결과는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정서지능이 자기결정성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이숙정, 김혜영(2019)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인 자율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지능 구성요인인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 모두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인 자율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인 자기정서 이해, 정서활용은 자율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헌철(2018)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모두, 자기결정성 동기(내적조절, 확인 · 통합된조절)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talova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 중 정서명확화 및 정서조절이 내적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인된 조절 동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6)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효과

진로 이론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et al., 2018)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적응준비가 진로행동을 의미하는 적응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개인 특성으로서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정서를 포함한 개인 특성 변인이 진로탐색행동을 포함한 개인의 진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Reardon et al.(2017)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이상과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문제를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인식이 자신과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짐을 주장한다. 문제를 인식할 때, 정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Reardon et al.(2017)의 주장 또한,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 연구 결과 또한,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직접 관계를 지지한다. 김연숙(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인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의 활용 및 정서의 조절 모두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탐색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 정서의 활용, 정서의 조절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순덕(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유인나(202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지지, 통제성의 다른 독립변인에 비해 정서지능의 표준화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애용(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조절, 정서활용이 진로탐색활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탐색행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 결과는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직접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허강석(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론(2022)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인 자기정서 인식, 타인정서 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및 정서활용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조절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근(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Lee(2021)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 양은영, 이계희(202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인 자기정서 이해, 타인 정서 이해, 정서 활용, 정서 조절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정서조절을 제외한 정서지능의 다른 구성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회귀분석 결과,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양은영, 이계희(2021)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객실승무원이 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을 함양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 또는 그릿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전현정(201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구성요인인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정서표현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유의한 상관을 보인 정서표현의 경우에도 상관계수가 .12로 나타나 상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간 직접효과

진로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은 내재 동기와 자율성에 기반한 외재적 동기로 인해 몰입이 발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Deci & Ryan, 2000). 즉,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모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강혜정(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적응준비가 적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로적응모형의 관점 하에서도 자율적 진로 동기가 적응결과로서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 연구 결과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와와 진로선택몰입의 정적인 직접 관계를 지지한다. 진로결정자율성은 자율적 진로 동기 개념을 진로결정 맥락에 적용하여 개발한 측정도구(Guay, 2003)라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 결과를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는 두 변인 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강현이(2013)의 연구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가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현(201

7)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박소영, 정영숙(201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결정 확신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정아(2014)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구성요인인 내재 동기는 진로결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적 진로 동기는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 중 자율성은 자율적 진로 동기와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 결과는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가 졸업 후 취업 또는 일을 하려는 동기라는 점에서 일에 대한 동기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유사한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험 연구는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인 자율성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 일 동기와 진로몰입 간 관계가 정적인 관계임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류진숙(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수경, 김연성(2019)의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지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구성요인인 자율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혜승, 이형룡(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인 자율성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emola & Amina(2020)의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 대학생이 인식한 일에 대한 동기가 진로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Igere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일에 대한 동기가 진로몰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효과

진로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

2),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 근거한다.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에 따르면, 개인 특성으로서 적응준비가 행동을 의미하는 적응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 따르면, 진로 목표가 진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 결과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정적인 직접 관계를 지지한다. 진로결정자율성은 자율적 진로 동기 개념을 진로결정 맥락에 적용하여 개발한 측정도구(Guay, 2003)라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를 구명한 연구 결과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수 경험연구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임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조규판, 장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아 외(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윤정(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수영(202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은영(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의 경우, Paixao & Gamboa(2021)의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가 자신에 대한 탐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에 관한 국외 연구를 종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Jiang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의 경우, 내재 동기가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zarides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내재 동기가 환경 및 직업탐색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Hirschi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자율적 진로 목표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 주도적 진로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유사 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자율적 진로 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적인 정적 관계를 지지한다.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가 자기결정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자기결정성 또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구명한 연구 결과도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간 직접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수 경험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한 정적 관계임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조선영, 이효정(2021)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가 직업훈련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영숙, 김장회(202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한슬, 최윤정(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강석(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스란, 조한익(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수경(2015)의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인인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연, 이숙정(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선정(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직접효과

진로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은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 이후, 진로몰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다양한 진로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몰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한 Harren(1979)에 따르면, 진로 몰입 단계는 계획 단계 이후에 이루어진다. 계획단계는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몰입 단계는 진로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주관적 확신과 타인의 의견까지 통합하여 개인의 결정에 확신을 더하게 되는 단계이다.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은 적응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이 적응결과인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진로행동으로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성과로서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경험 연구 결과 또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정적인 직접 관계를 지지한다. 경험 연구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정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였고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다른 계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홍은선(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표준화 계수와 비교할 때,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표준화 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아, 김진현(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김지근, 이기학(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환경에 대한 탐색이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임정아, 조아미(2021)에 따르면,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은 진로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로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의 경우, Chen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이 진로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Zhu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진로 몰입의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Nevill & Super(1988)의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몰입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유사 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선택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직접적인 정적 관계를 지지한다. 하정, 홍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범, 한태용(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윤경, 김진강(2018)의 연구에서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은 진로준비행동 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나.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1)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

진로 이론 및 경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17)은 내재 동기와 자율성에 기반한 외재적 동기로 인해 몰입이 발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내재 동기와 자율성은 긍정적인 외적 사건으로 촉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통해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선택몰입의 경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서지능이 외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선택몰입의 경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정서지능 또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개인의 특성이 진로 의도를 매개로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맥락 요인이 진로 의도를 매개로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개인 특성으로서 정서지능을 상정하고 맥락 영향으로서 교수 진로지지를 상정할 때, 정서지능과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 의도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로 진로 행동으로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 또한, 진로 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 첫째, 경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신상훈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지원이 자기결정성 동기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지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기결정성동기는 학교지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으로서 해당 개념 내에 교수 진로지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자기결정성동기는 확인된 조절동기와 내적 조절동기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유사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진로선택몰입 개념 내에 진로선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선택몰입의 유사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강명희 외(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동기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진로 동기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샘, 조화진(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동기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명희 외(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진로동기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교수 지지를 포함한 개념이고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두 변인은 이 연구에서의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

탐색행동과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진로 동기는 진로행동을 예측하는 동기 변인이라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관련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자율적 진로 동기는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수행한 임정아, 조아미(2021)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인 대학생은 대학 입학 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인식하나 점차 자신의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관련 분야를 탐색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몰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동기를 형성하고 나아가 진로에 몰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자율적 진로 동기가 매개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윤선영(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변인으로서 진로불안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유능감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표로서(김정근, 2012)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에 참여하려는 동기라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구성요인인 내재 동기와 동일시 조절 동기의 개념과 유사하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동기가 개인의 정서와 진로결정을 매개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자율적 진로 동기는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허강석(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결정자율성이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강석(2017)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은 자율적 동기 개념에 기반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고 진로준비행동 개념 내 진로탐색행동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의 유사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허강석(2017)의 연구 결과는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부분매개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김정근(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정서지능이 진로성취목표의 구성요인인 수행접근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접근이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접근은 유능하다는 평가를 얻고자 하는 동기(김정근, 2012)로서 회피동기와 달리, 외적인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구성요인 중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동일시 조절동기와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수행접근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정근(2012)의 연구 결과는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부분매개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2)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진로 이론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은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을 제안하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문제인식으로 인해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의 진로탐색이 수행되며, 이후에 진로대안을 좁혀나가고 선택한 진로에 가치를 인식하면서 진로몰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은 다양한 맥락 요인이 진로구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정서지능을 포함한 적응준비가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적응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고 적응반응이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적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다양한 맥락 요인과 정서를 포함한 개인의 성격 요인이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진로행동이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진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진로정보

처리이론,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 모두, 다양한 맥락 요인과 개인의 정서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경험 연구 또한, 진로 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 첫째, 경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진로탐색행동은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진로탐색과 관련한 국외 연구를 종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Jiang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과 같은 초기 성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적 선행 요인이 진로탐색을 매개로 진로 결정 관련 결과(career decision related outcomes)로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현민(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탐색행동은 두 변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관계성이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된 정도(이현민, 2020)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교수의 진로지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현민(2020)은 관련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보 부족을 낮추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 관련 동기를 부여하여 진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및 확신을 심어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승희(2013)의 연구에서는 체육계열학과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이 변인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인은 교수 진로지지와 유사 변인이고 진로준비행동 내 진로탐색행동이 포함되며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이 관련 변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연구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박명신, 한상훈(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이 두 변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표준화 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정서지능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기복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이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iang et al.(2019)은 진로탐색행동이 개인의 정서를 포함한 개인적 선행변인과 진로선택몰입을 포함한 결과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는 정서 변인으로서 취업불안이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태환(2019)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취업불안의 부적 영향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았고 취업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불안이 대학생에 따라 진로탐색행동 참여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3)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이중매개효과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이중매개효과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개인이 진로문제를 인식하면서 시작이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기대와 현재 상태가 불일치할 때, 개인은 진로문제에 대한 정서를 인식하고 진로문제 해결이라는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한다. 진로탐색행동 이후, 개인은 다양한 진로대안을 좁혀가며 일부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가치를 두는 진로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이 제안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다양한 맥락 요인과 진로 문제에 대한 개인의 정서가 진로 문제 해결이라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진로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며 진로탐색행동을 함으로서 점차 진로에 몰입하는

과정이다.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ak & Porfeli, 2012)은 개인 특성으로서 적응준비가 진로행동인 적응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응반응이 적응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 또한, 그 과정에 다양한 맥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진로구성이론 관점에 의하면 교수 진로지지의 맥락 요인이 적응준비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율적 진로 동기는 적응반응으로서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탐색행동은 적응결과로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 또한, 진로적응모형과 맥을 같이한다.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에 따르면, 교수 진로지지와 같은 맥락 요인 및 정서를 포함한 개인의 성격 요인이 진로 의도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 의도는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진로탐색행동은 궁극적으로 진로성과로서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 또한, 진로 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 경험 연구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지지한다. 이승희(2013)의 연구에서는 체육계열학과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식은 진로에 대한 가치관, 직업관,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이승희, 2013)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에서 진로결정으로의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교수 진로지지 관련 변인이라는 점, 진로준비행동 내에 진로탐색행동이 포함된다는 점, 진로의식이 자율적 동기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과 진로결정이 진로선택몰입이 유사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경험 연구는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지지한다. 김은애, 진성미(2015)의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과 혼란의 정서를 경험하며 성찰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후, 자신과 직무에 대한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진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등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이 자율적 진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율적 진로 동기가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이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을 매개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을 연구한 임정아, 조아미(2021)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인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의 정서를 인식하였으나 점차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였고 복수전공 또는 전과, 타인으로부터의 진로정보 수집 등의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점차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몰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 이론과 관련 경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동기,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은 개인의 성격이 진로 행동과 진로 성과의 직접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Lent et al.(2016)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 진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에 따르면, 성격 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 행동 변인으로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 성과 변인으로서 진로결정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경험 연구 결과 중, Xu & Tracey(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환경에 대한 탐색 간 상호작용항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Xu & Tracey(2014)는 진로미결정 상태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수집함으

로써 해결되기 보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진로탐색과 관련한 국외 연구를 종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Jiang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포함한 초기 성인의 경우, 진로탐색과 진로 결정 관련 결과(career decision related outcomes) 간의 관계를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아라(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집단은 긍정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집단은 부정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해 회피하도록 처치한 집단과 비교할 때,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처치를 제공한 집단의 진로결정 시간이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또는 회피 정도에 따라 진로탐색의 양상이 달라지고 이러한 진로탐색이 진로결정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확실성 관련 선행연구 결과 또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효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 따르면, 불확실성을 회피·억합하는 전략은 행동을 지연시키고(Lipshitz & Strauss, 1997)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Trevor-Roberts, 2006). 또한, Curley et al.(1986)은 개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고 이슬(2016)은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수용하지 못하여 불확실함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고 이에 불확실함을 인지적 활동 차원에서 회피한다고 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이 인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인지적 활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라. 변인 간 관계 종합

이 연구는 진로정보처리이론, 진로구성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결정이론, 진로발달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변인 간 관계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내·외 경험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9>와 같다.

이론과 경험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상정하였고 각 변인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교수 진로지지 및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가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였다.

<표 Ⅱ-9>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별 변인 간 관계 종합

구분	변인 간 관계	경험 연구	이론
직접 효과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 강민정(2015), 김미정(2019), 김민선, 최보금(2016), 이성희(2020) • Chemers et al.(2011), Kautish et al.(2021)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곽현신(2018), 김미정(2019), 김랑, 문혁준(2019), 신상훈 외(2020), 최보금, 조성희(2013) • Mustapa et al.(2019), Sarwar & Khalid(2015), Tezci et al.(2015)	• 자기결정이론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 김지흔, 정민주(2020), 유안나(2021), 이성희, 문경숙(2021), 정영미(2018) • Chan(2018), Cheung & Arnold(2010), Yusran et al.(2021), Jiang et al.(2019), Kleine et al.(2021)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 강혜정(2021), 김종운, 박성실(2012), 송현영, 신소흥(2016), 이진희, 이영미(2017) • Brown et al.(2013), Fabio & Palazzeschi(2009), Jiang et al.(2016)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성현승, 김현숙(2021), 이숙정, 김혜영(2019), 허강석(2017), 최헌철(2018) • Latalova et al.(2015)	• 사회인지진로이론 • 진로발달행동이론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 김연숙(2012), 김정근(2012), 박아론(2022), 유순덕(2019), 유인나(2021), 이애용(2020), 허강석(2017) • Lee & Lee(2021)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표 계속>

〈표 Ⅱ-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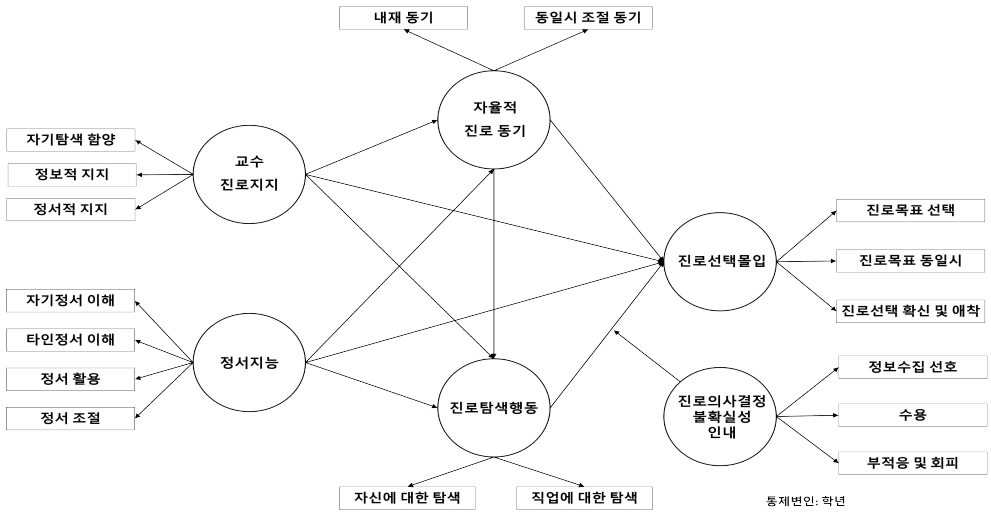
구분	변인 간 관계	경험 연구	이론
직접 효과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 강현이(2013), 곽현(2017), 김태환(2013, 2019). 류진숙(2012), 박소영, 정영숙(2011), 이수경, 김연성(2019), 이지혜 외(2011), 이정아(2014), 이혜승, 이형룡(2020) • Ademola & Amina(2020), Iglere et al.(2020)	• 자기결정이론 • 진로구성이론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박수영(2021), 송한슬, 최윤정(2022), 송현아 외(2010), 신영숙, 김장회(2021), 신윤정(2013), 조규판, 장은영(2012), 조선영, 이효정(2021), 허강석(2017) • Paixao & Gamboa(2021), Jiang et al.(2019), Lazardies et al.(2016), Hirschi et al.(2013)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김지근, 이기학(2011), 김태환(2019), 윤경, 김진강(2018), 이경아, 김진현(2015), 임정아, 조아미(2021), 최성범, 한태용(2020), 허정, 홍지영(2013), 홍은선(2020) • Chen et al.(2021), Nevill & Super(1988), Zu et al.(2020)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매개 효과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 김미정(2019), 신상훈 외(2020)	• 자기결정이론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강명희 외(2016), 박한샘, 조화진(2018)	•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 임정아, 조아미(2021), 윤선영(2015)	• 자기결정이론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김정근(2012), 허강석(2017)	• 사회인지진로이론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박명신, 한상훈(2017), 이승희(2013), 이현민(2020) • Jiang et al.(2019),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박기복 외(2015), 김태환(2019) • Jiang et al.(2019)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이승희(2013)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김은애, 진성미(2015), 임정아, 조아미(2021)	• 진로정보처리이론 • 진로구성이론 • 사회인지진로이론
조절된 매개 효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	• 이아라(2013) • Xu & Tracey(2014), Jiang et al.(2019)	• 사회인지진로이론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배경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Ⅲ-1]과 같이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모형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경로를 제안한 진로구성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정보처리이론 및 자기결정이론에 근거를 둔다.

맥락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이 진로와 관련한 동기, 행동 및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진로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 상기 이론을 바탕으로 맥락 변인으로서 교수 진로지지와 개인 특성 변인으로서 정서지능을 외생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진로와 관련한 동기가 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행동이 진로 성과로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 진로구성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정보처리이론을 바탕으로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격 요인이 진로 행동과 진로 성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주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를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수는 총 190개교이며 재학생 수는 1,415,162명이다(<표 Ⅲ-1> 참조). 이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 수는 71개교이고 비수도권 소재 학교 수는 119개교로 1:1.6의 비율이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는 575,960명이고 비수도권 재학생 수는 839,202명이다.

<표 Ⅲ-1> 지역별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생 수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교, 명, %)

지역		대학교 수	대학생 수		
			재적학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수도권	서울	38(20.0)	495,941(37.3)	375,237(26.5)	120,704(23.9)
	인천	3(1.6)	42,639(3.2)	30,055(2.1)	12,584(2.5)
	경기	30(15.8)	231,405(17.4)	170,668(12.1)	60,737(12.0)
	소계	71(37.4)	769,985(58.0)	575,960(40.7)	194,025(38.5)
비수도권	부산	12(6.3)	178,976(13.5)	131,887(9.3)	47,089(9.3)
	대구	3(1.6)	60,013(4.5)	43,558(3.1)	16,455(3.3)
	광주	10(5.3)	79,541(6.0)	60,299(4.3)	19,242(3.8)
	대전	11(5.8)	104,950(7.9)	78,798(5.6)	26,152(5.2)
	울산	2(1.1)	19,738(1.5)	13,821(1.0)	5,917(1.2)
	세종	2(1.1)	17,233(1.3)	12,294(0.9)	4,939(1.0)
	강원	8(4.2)	92,505(7.0)	63,975(4.5)	28,530(5.7)
	충북	11(5.8)	92,672(7.0)	66,280(4.7)	26,392(5.2)
	충남	13(6.8)	148,032(11.1)	109,696(7.8)	38,336(7.6
	전북	8(4.2)	82,650(6.2)	61,123(4.3)	21,527(4.3)
	전남	10(5.3)	43,587(3.3)	32,434(2.3)	11,153(2.2)
	경북	18(9.5)	140,843(10.6)	101,545(7.2)	39,298(7.8)
	경남	9(4.7)	73,723(5.6)	53,051(3.7)	20,672(4.1)
	제주	2(1.1)	14,879(1.1)	10,441(0/7)	4,438(0.9)
	소계	119(62.6)	1,149,342(86.5)	839,202(59.3)	310,140(61.5)
합계		190(100.0)	1,919,327(100.0)	1,415,162(100.0)	504,165(100.0)

주) 이 연구에서는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전공 및 성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는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인문·사회계열 전공 재학생 수는 534,208명이고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수는 544,366명으로 1:1.0의 비율이다. 인문·사회계열의 남학생 수는 224,191명이고 여학생 수는 310,016명으로 1:1.4의 비율이다. 자연·공학계열의 남학생 수는 360,580명이고 여학생 수는 183,786명으로 1:0.5의 비율이다.

<표 Ⅲ-2> 전공 및 성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2021년 기준) (단위: 개교, 명, %)

전공		재학생 수		
		남학생	여학생	합계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	57,666(8.2)	106,678(15.0)	164,344(11.6)
	사회계열	166,526(23.6)	203,338(27.7)	369,864(26.1)
	소계	224,192(31.8)	310,016(43.7)	534,208(37.7)
자연·공학계열	자연계열	75,187(10.6)	84,824(12.0)	160,011(11.3)
	공학계열	285,393(40.4)	98,962(14.0)	384,355(27.2)
	소계	360,580(51.1)	183,786(25.9)	544,366(38.5)
기타계열	교육계열	21,915(3.1)	40,662(5.7)	62,577(4.4)
	의약계열	41,994(5.9)	77,368(10.9)	119,362(8.40
	예체능계열	57,382(8.1)	97,267(13.7)	154,649(10.9)
	소계	121,291(17.2)	215,297(30.4)	336,588(23.8)
합계		706,063(100.0)	709,099(100.0)	1,415,162(100.0)

주) 이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공학계열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나. 표집

1) 표집 크기

이 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크기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표집 크기를 고려하여 표집 크기를 설정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크기와 관련하여 류근관(2005)은 사회과학연구에서 표집 크기가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하였고 Krejcie & Morgan(1970)은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0명일 때 적정 표집 크기가 384명이라고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표집 크기와 관련하여, Chou & Be

ntler(1995)는 200명을 합리적인 표집 크기로 제안하였고 Hoyle & Kenny(1999)는 잠재변인을 활용한 매개모형 분석 시, 100~200명의 표집 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최대우도법에 권장되는 최소한의 표집크기로 이해되며(김태환, 2019) 김대업(2008)은 최대우도법에 권장되는 최소한의 표집 크기가 100~150명 이상이고 200명 이상이 되어야 결과의 오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편, 김대업(2008)은 x^2 분석 시, 표본 수가 500개 이상일 경우, 모형설정과 관계없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 크기(1,415,162명)와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표집 크기는 2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등을 고려하여 표집크기를 490명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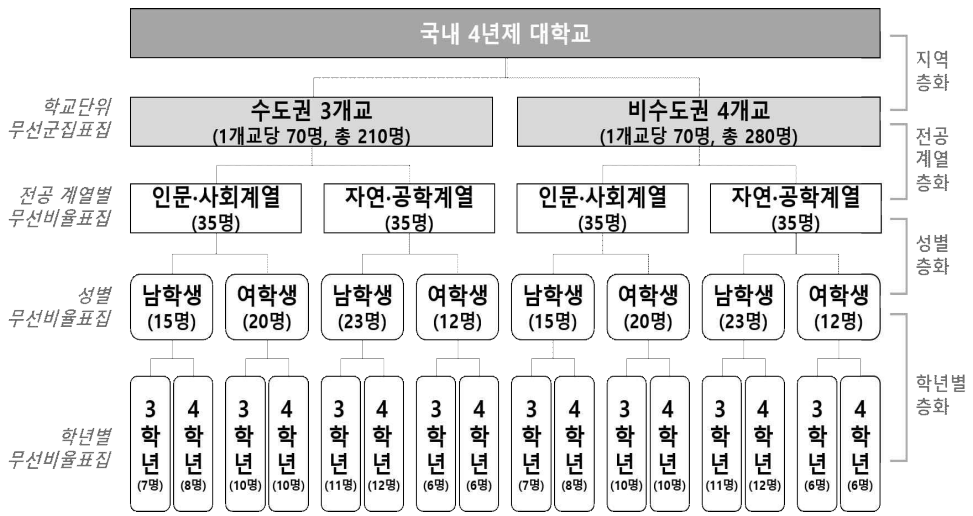
2) 표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활용하였다. 층화표집이란 모집단 안에 이질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다고 연구자가 가정할 때 모집단을 속상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무선표집을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성태제, 시기자, 2015). 층화표집에서 핵심은 '집단 간 이질성' 이며 예컨대, 성별에 따른 차이, 지역에 따른 차이 등 집단 간 이질성에 따라 하부집단을 구분하여 표집할 경우 층화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층화는 하나의 변인(예: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변인들을 사용하여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로 나이, 성별,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 등의 변인이 활용된다(백순근, 2012). 층화표집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효율적인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성태제, 시기자, 2015) 무선표집과 비교할 때 표집 오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비율 표집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계열-자연·공학계열 전공 재학생 수 비율(1:1.0), 인문·사회계열의 남학생-여학생 수 비율(1:1.4), 자연·공학계열의 남학생-여학생 수 비율(1:0.5)을 고려하였다. 비율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35명, 자연·공학계열 35명을 표집 크기로 설정하였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남

학생 15명, 여학생 20명, 자연 · 공학계열의 경우, 남학생 23명, 여학생 12명을 선정하였다. 학년별 비율에 관한 정보가 제한됨에 따라, 선행연구(김태환, 2019; 홍은선, 2020)를 바탕으로 학년별 표집 크기는 동수로 설정하였다.

군집표집은 하위집단 간에 동질성이 높고 하위집단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질성이 높은 경우, 개별 표집단위를 하나씩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집단들 중 몇 개의 집단을 선택한 후, 선택한 하위집단에 속한 모든 표집단위를 한꺼번에 표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순근, 2012). 군집표집은 표집이 효율적이며 개별 표집 목록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표집이 용이하다는데 장점이 있다(성태제, 시기자, 2015). 이 연구는 학교를 군집표집 단위로 정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비율(1:1.6)에 따라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4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림 Ⅲ-2〕 표집 방법

주) 인문 · 사회계열:자연 · 공학계열=1:1
인문 · 사회계열 남학생:여학생=1:1.4
자연 · 공학계열 남학생:여학생=1:0.5
학년별 비율 정보가 제한됨에 따라 동수 표집(김태환, 2019; 홍은선, 2020)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자 특성의 정도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백순근, 2012). 연구 수행을 위해 활용된 조사 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3> 조사 도구의 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진로선택몰입		**1-21**	**21**
	진로목표 선택	1-7	7
	진로목표 동일시	8-14	7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5-21	7
교수 진로지지		**1-16**	**16**
	자기탐색 함양	1-6	6
	정보적 지지	7-11	5
	정서적 지지	12-16	5
정서지능		**1-16**	**16**
	자기정서 이해	1-4	4
	타인정서 이해	5-8	4
	정서 활용	9-12	4
	정서 조절	13-16	4
자율적 진로 동기		**1-9**	**9**
	내재 동기	1-5	5
	동일시 조절 동기	6-9	4
진로탐색행동		**1-28**	**28**
	자신에 대한 탐색	1-12	12
	직업에 대한 탐색	13-28	16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1-18**	**18**
	정보수집 선호	1-6	6
	수용	7-12	6
	부적응 및 회피	13-18	6
일반적 사항		**1-7**	**7**
불성실 응답 탐지 문항		**1**	**1**
합계			116

조사 도구의 타당성은 모형 적합도 지수와 수렴타당도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표 Ⅲ-4> 참조). 모형 적합도 지수로서 CFI, TLI, RMSEA,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한 Hu & Bentler(1998)의 주장과 문수백(2009)이 제안한 모형 적합도 지수 기준을 바탕으로 CFI, TLI, RMSEA 및 SRMR 지수를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수렴타당도는 특정 요인의 문항들이 높은 비율의 공통분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요인에 적재되어 있는 문항들이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함을 의미한다(이형권, 2018). 선행연구(이형권, 2018; Hair et al., 2010)에 따르면, (1) 표준화 요인부하량 추청지가 0.5 이상인 경우, (2)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을 문항의 개수로 나눈 값인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 값이 0.5 이상인 경우, (3) 표준화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문항의 오차분산의 합에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합의 제곱의 비를 의미하는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이하 CR) 값이 0.7 이상인 경우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표 Ⅲ-4> 조사 도구 타당도 판단 근거

구분		기준
모형 적합도	χ^2	• p > .05
	CFI / TLI	• ≥ .90
	RMSEA	• ≤ .05: 매우 좋음 • ≤ .08: 좋은 편임 • ≤ .10: 적합
	SRMR	• ≤ .05: 양호 • ≤ .10: 대체로 양호
개념 타당도	수렴타당도	• 표준화 요인부하량 추청지 ≥ 0.5 • 평균분산추출(AVE) ≥ 0.5 • 합성신뢰도(CR) 값이 ≥ 0.7

자료: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이형권. (2018). Mplus 를 이용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신영사.

국내에서 타당화된 조사 도구의 모형 적합도가 기준치를 확보되지 못할 경우, (1) 모형 적합도 지수, (2) 표준화 요인부하량, (3) 모형수정 지수, (4) 문항-잠재변인 상관계수와 문항-관찰변인 상관계수 및 (5) 문항 특징의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문항을 삭제하여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모형수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문항묶음을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 경로계수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김수영, 2019)와 추정편향(estima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고 잠재변인의 개념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우종필, 2015) 있어, 이 연구는 모형수정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모형수정 지수는 통계적 수치 중 한 가지 수치일뿐 지수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모형수정 지수를 확인하여 삭제가 필요한 문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문항-잠재변인 상관계수와 문항-관찰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함으로써 통계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논의와 문항의 특성을 바탕으로 삭제할 문항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문항을 삭제함에 있어 문항의 특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고 통계적인 수치는 문항 삭제를 위한 참고 정보로 활용하였다.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게 도출되었을지라도 개념타당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우종필(2015)은 개념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하라도 그 값이 너무 낮지 않다면 해당 변인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 문항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문항 특성, 선행연구 및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삭제 여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김태환, 2019; 양인준, 2022; 최고은, 2022)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 도구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보고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인 경우, 문항 삭제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Crocker & Algina(1986)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이면 좋은 문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이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을 삭제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기준으로만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1) 모형 적합도, (2)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3) 모형수정 지수, (4) 문항-전체 상관계수와 문항-구성요인 상관계수 및 (5) 문항 특성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문항 삭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내적 일치도 계수 기준으로서 탁진국(2018)은 신뢰도 크기가 .90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보았고 .80 이상일 때,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보았다. 또한, Nunnally(1978)는 .7이상 이면 '좋은(good) 신뢰도', .6이상은 '그런대로 괜찮은(fair) 신뢰도', .5 이상은 '최소한(minimum)의 신뢰도'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내적 일치도 계수 기준을 .6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가.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진로선택몰입 측정을 위해 김태환(2019)이 개발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김태환(2019)의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는 진로목표 선택, 진로목표 동일시,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의 3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관찰변인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선택 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값(875.130,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CFI(.855), TLI(.837)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반면, RMSEA(.095) 및 SRMR(.079) 값은 기준치를 충족하

였다. 진로선택몰입의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진로목표 선택 7번(.445)과 진로목표 동일시 1번(.288)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모형수정 지수를 확인하였고 진로목표 선택 6번과 7번, 진로목표 선택 6번과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가장 많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잠재변인 간 상관과 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목표 선택 관찰변인과 관련 문항 중 7번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고(r=.510, p<.05) 진로목표 동일시 관찰변인과 관련 문항 중 1번 문항과의 상관계수(r=.238, p<.05)가 가장 낮았다. 또한, 진로선택몰입 잠재변인과 진로목표 동일시 1번(r=.509, p<.05), 진로목표 선택 7번(r=.502, p<.05)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도출된 결과는 문항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목표 선택 7번 문항은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로서 자신의 특성과 관련한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과 달리, 직업분야 선택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항이다.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해당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문항은 역코딩 문항으로서 구성요인 내 다른 문항에 비해 관련성이 낮게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은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로서 추구해야 할 목적의 부재를 수준을 의미한다. 진로목표 동일시는 직업역할을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김태환, 2019)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삶의 목적의 부재가 아닌, 직업 역할과 삶의 목적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해당 문항이 진로목표 동일시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측정도구를 개발한 김태환(2019)의 연구에서도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이 삭제된 바 있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진로목표 선택 7번,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을 삭제하였다(<표 Ⅲ-5> 참조).

<표 Ⅲ-5>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연번	구분	결과
1	모형 적합도 확인	• χ^2 값(875.130, p<.05), CFI(.855), TLI(.837)는 기준치 미충족 • RMSEA(.095) 및 SRMR(.079) 값은 기준치 충족
2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진로목표 선택 7번(.445), 진로목표 동일시 1번(.288)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됨,
3	모형수정 지수 확인	• 진로목표 선택 6번과 7번, 진로목표 선택 6번과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가장 많이 향상됨을 확인
4	문항-잠재변인 간 상관 및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	• 진로목표 선택 관찰변인과 해당 관찰변인의 7번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음(r=.510, p<.05) • 진로목표 동일시 관찰변인과 해당 관찰변인의 1번 문항과의 상관계수(r=.238, p<.05)가 가장 낮았음. • 진로선택몰입 잠재변인과 진로목표 동일시 1번(r=.509, p<.05), 진로목표 선택 7번(r=.502,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음.
5	문항 특성 분석	• 진로목표 선택 7번의 경우, '올바른 진로선택' 이라는 가치 판단이 응답자별로 상이하여, 관찰변인과 관련성이 낮게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과 관찰 변인의 개념이 차이가 있음.

진로목표 선택 7번, 진로목표 동일시 1번 문항 삭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적합도와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모형 적합도 확인 결과, χ^2 값(454.459,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CFI(.928), TLI(.918)는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RMSEA(.070) 및 SRMR(.053)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수렴타당도 확인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고 관찰변인 별 AVE 값은 진로목표 선택 .585, 진로목표 동일시 .520,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500으로 나타나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다. CR 값은 진로목표 선택 .893, 진로목표 동일시 .866,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874로 나타나 기준치 0.7 이상을 충족하여 진로선택몰입의 조사 도구가 수렴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표 Ⅲ-6〉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오차	Z	AVE	CR
진로 목표 선택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1.000	.746	-	-	.585	.893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046	.825	.059	17.013*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1.049	.861	.059	17.820*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966	.795	.059	16.342*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961	.783	.060	16.070*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877	.537	.082	10.707*		
진로 목표 동일시	2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1.000	.730	-	-	.520	.866
	3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945	.775	.063	15.003*		
	4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862	.734	.061	14.213*		
	5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712	.620	.059	11.980*		
	6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903	.761	.061	14.737*		
	7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886	.695	.066	13.422*		
진로 선택 확신 및 애착	1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1.000	.741	-	-	.500	.874
	2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847	.732	.058	14.606*		
	3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862	.681	.064	13.537*		
	4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1.012	.650	.079	12.890*		
	5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857	.718	.060	14.302*		
	6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965	.748	.065	14.928*		
	7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789	.670	.059	13.307*		

주1) 모형 적합도 지수: χ^2=454.459(p<.05), CFI=.928, TLI=.918, RMSEA=.070, SRMR=.053

2) *p<.05

본조사 결과,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관찰변인인 진로목표 선택은 .882, 진로목표 동일시는 .863,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872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0으로 나타났다. 탁진국(2018)이 제안한 신뢰도 크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 도구로 볼 수 있다(<표 Ⅲ-7> 참조).

<표 Ⅲ-7> 진로선택몰입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김태환(2019)	1차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선택몰입	.925	.711	.930
진로목표 선택	.916	.720	.882
진로목표 동일시	.862	.688	.863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851	.838	.872

주)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진로목표 동일시 1번,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1번을 제외한 내적 일치도 계수임.

나. 교수 진로지지

교수 진로지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교수 진로지지 측정을 위해 Zhang et al.(2021)이 개발한 조사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Zhang et al.(2021)의 조사 도구는 자기탐색 함양,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3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탐색 함양은 6개 문항, 정보적 지지는 5개 문항, 정서적 지지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 진로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Zhang et al.(2021)의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번안은 진로 관련 연구 분야의 선행연구(김태환, 2019; 홍은선, 2020)의 번안 과정을 바탕으로 (1) 1·2차 역번안, (2)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3) 대학생 안면타당도 검토, (4)1·

2차 예비조사 및 (5) 본조사의 단계를 거쳤다(【부록 1】 참조). 1 · 2차 역번안은 대학생 진로 관련 연구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이자 인력개발 관련 연구 분야 국외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미국 국적의 이중 언어자 1인과 함께 수행되었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는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안면 타당도는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 이후, 교수 진로지지의 신뢰도는 탁진국(2018)이 제안한 기준치 .8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탐색 함양 4번, 정보적 지지 2번 문항이 다른 요인에 더 크게 부하되어 전문가 내용타당도 추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정보적 지지 1번, 2번, 3번 문항이 다른 요인에 더 크게 부하되어 전문가 내용타당도 추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이하 ML)과 사교회전 방식 중 Oblimin 방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관련 관찰변인에 .3 이상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 참조).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의 경우, 모든 요인에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3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은 2차 예비조사에서도 정보적 지지 요인에 부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문항이 자기탐색 함양,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요인과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표 Ⅲ-8>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자기 탐색 함양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2	-.03	.11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88	.01	-.07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9	.08	-.02
	4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51	.08	.06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48	.02	.29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51	-.01	.29

<표 계속>

<표 Ⅲ-8> 계속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정보적 지지	1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27	.15	.23
	2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10	.10	.61
	3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06	-.04	.73
	4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05	.05	.71
	5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03	.09	.63
정서적 지지	1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05	.56	.19
	2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2	.74	.08
	3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2	.88	-.06
	4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24	.63	-.01
	5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3	.83	.02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310.617,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CFI(.944), TLI(.934) 값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RMSEA(.071)와 SRMR(.044) 값도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588)은 가장 낮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수정지수를 확인한 결과, 정보적 지지 1번과 5번의 수정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문항-잠재변인 간 상관분석과 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적 지지 관찰변인과 관련 문항 중 1번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고(r=.634, p<.05) 교수 진로지지 잠재변인과 정보적 지지 1번 문항과의 상관계수(r=.610, p<.05)가 가장 낮았다(<표 Ⅲ-9> 참조).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은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로서 전공 분야라는 단어에 초점을 둘 때, 자신이 소속된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강

화하는 자기탐색 함양 요인으로 부하될 수 있다. 반면, 미래 전망을 설명하는 표현에 초점을 둘 때, 전망이라는 정보를 설명하는 정보적 지지 요인으로도 부하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이 자기탐색 함양에 .27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정보적 지지에 .23에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즉,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이 자기탐색 함양과 정보적 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수정 지수, 교수 진로지지 전체와 문항 간 상관계수, 정보적 지지와 문항 간 상관계수, 그리고 해당 문항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Ⅲ-9>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연번	구분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의 경우, 모든 요인에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3 미만으로 나타남.
2	모형 적합도 확인	• χ^2 값(310.617, p<.05)은 기준치 미충족 • CFI(.944), TLI(.934), RMSEA(.071) 및 SRMR(.044) 값은 기준치 충족
3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남. • 정보적지지 1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588)이 가장 낮음.
4	모형수정 지수 확인	• 정보적지지 1번과 5번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향상됨을 확인
5	문항-잠재변인 간 상관 및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	• 정보적 지지 관찰변인과 관련 문항 중 1번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음(r=.634, p<.05). • 교수 진로지지 잠재변인과 정보적 지지 1번 문항과의 상관계수(r=.610, p<.05)가 가장 낮았음.
6	문항 특성 분석	• 정보적 지지 1번 문항 중 초점을 두는 표현에 따라 해당 문항이 자기탐색 강화와 정보적 지지 모두에 부하될 가능성이 있음.

정보적 지지 1번 문항을 삭제한 후의 모형적합 지수, 수렴타당도 결과는 다음의 <표 Ⅲ-10>과 같다.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이상으로 나타났고 AVE 값은 기준치 .5 이상, CR 값은 기준치 .7 이상을 충족하였다.

<표 Ⅲ-10>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 오차	Z	AVE	CR
자기 탐색 함양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00	.779	-	-	.569	.887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4.	.806	.060	17.483*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114	.819	.062	17.828*		
	4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50	.617	.059	2.771*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1.012	.741	.064	15.814*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95	.748	.069	15.968*		
정보적 지지	2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1.000	.749	-	-	.526	.816
	3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1.021	.737	.072	14.232*		
	4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1.109	.694	.083	13.398*		
	5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1.180	.720	.085	13.901*		
정서적 지지	1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1.000	.726	-	-	.621	.891
	2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 (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045	.768	.069	15.085*		
	3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081	.800	.069	15.709*		
	4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1.186	.818	.074	16.063*		
	5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067	.823	.066	16.169*		

주1) 모형 적합도 지수: χ^2=256.739(p<.05), CFI=.952, TLI=.943, RMSEA=.069, SRMR=.040

2) *p<.05

본조사 결과,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관찰변인인 자기탐색 함양 .885, 정보적 지지 .813, 정서적 지지 .889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1로 나타났다(<표 Ⅲ-11> 참조). 탁진국(2018)이 제안한 신뢰도 크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 도구로 볼 수 있다.

<표 Ⅲ-11>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Zhang et al.(2021)	1차 예비조사	2차 예비조사	본조사
교수 진로지지		.92	.933	.904	.931
	자기탐색 함양	-	.882	.919	.885
	정보적 지지	-	.824	.810	.813
	정서적 지지	-	.886	.902	.889

주)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보적 지지 1번을 제외한 내적 일치도 계수임.

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정서지능 측정을 위해 Wong & Law (2002)가 개발하고 탁진국(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탁진국(2007)이 타당화한 정서지능 조사 도구는 자기정서 이해, 타인정서 이해, 정서 활용, 정서 조절의 네 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된다.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288.931,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CFI(.946)와 TLI(.934) 값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RMSEA(.069)와 SRMR(.060) 값 또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수렴타당도 확인 결과, 각 문항별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 .5 이상을 충족하였고 관찰변인별 AVE 값은 자기정서 이해 .604, 타인정서 이해 .534, 정서 활용 .571, 정서 조절 .708로 나타나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다. CR 값의 경우에도 자기정서 이해 .856, 타인정서 이해 .818, 정서 활용 .839, 정서 조절 .906으로 나타나 기준치 0.7 이상을 충족하여 정서지능 조사 도구가 수렴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표 Ⅲ-12> 참조).

<표 Ⅲ-12> 정서지능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오차	Z	AVE	CR
자기정서이해	1	내가 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잘 안다.	1.000	.804	-	-	.604	.856
	2	내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1.094	.865	.057	19.162*		
	3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996	.848	.053	18.783*		
	4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잘 안다.	.638	.550	.057	11.236*		
타인정서이해	1	내 친구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다.	1.000	.793	-	-	.534	.818
	2	타인의 정서를 잘 관찰한다.	1.120	.813	.072	15.478*		
	3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하다.	.878	.567	.080	10.954*		
	4	내 주변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931	.725	.066	14.167*		
정서활용	1	언제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00	.571	-	-	.571	.839
	2	항상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1.599	.744	.145	11.037*		
	3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다.	1.746	.859	.147	11.838*		
	4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격려한다.	1.416	.816	.122	11.597*		
정서조절	1	내 기분을 통제하고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000	.817	-	-	.708	.906
	2	내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할 수 있다.	1.123	.876	.054	20.949*		
	3	화가 날 때 흥분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1.086	.788	.060	18.113*		
	4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한다.	1.145	.880	.054	21.098*		

주1) 적합도 지수: χ^2=288.931(p<.05), CFI=.946, TLI=.934, RMSEA=.069, SRMR=.060

2) *p<.05

본조사 결과, 정서지능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관찰변인인 자기정서 이해 .846, 타인정서 이해 .809, 정서 활용 .833, 정서 조절 .904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 조사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4로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탁진국(2018)이 제안한 신뢰도 크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정서지능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 도구로 볼 수 있다.

<표 Ⅲ-13> 정서지능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허강석(2017)	1차 예비조사	본조사
정서지능		.922	.798	.874
	자기정서 이해	.788	.881	.846
	타인정서 이해	.804	.885	.809
	정서 활용	.806	.807	.833
	정서 조절	.867	.834	.904

주) 탁진국(2007)은 정서지능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만을 제시하여, 대학생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측정한 허강석(2017)의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보고하였음.

라. 자율적 진로 동기

자율적 진로 동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자율적 진로 동기 측정을 위해 정은교(2021)가 개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기결정성 진로 동기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정은교(2021)가 개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조사 도구는 내재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 부과된 조절 동기, 무동기, 외적 조절 동기의 다섯 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는 자율적 동기의 개념(Ryan & Deci, 2017)을 바탕으로 내재 동기와 동일시 조절 동기의 두 개 관찰변인을 선정하여 자율적 진로 동기를 측정하였다. 반응 양식은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진로 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103.793)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CFI(.967)과 TLI(.954) 값

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RMSEA(.085)와 SRMR(.041) 값 또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수렴타당도 확인 결과, 각 문항별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5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고 관찰변인별 AVE 값은 내재 동기 .667, 동일시 조절 동기 .626로 나타나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다. CR 값의 경우에도 내재 동기 .909, 동일시 조절 동기 .870으로 나타나 기준치 0.7 이상을 충족하여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가 수렴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 개념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오차	Z	AVE	CR
내재 동기	1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1.000	.814	-	-	.667	.909
	2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기 때문이다.	1.146	.864	.056	20.591*		
	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직업)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1.140	.878	.054	21.038*		
	4	일하면서 겪는 도전들이 흥미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983	.765	.057	17.390*		
	5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기 때문이다.	.948	.754	.056	17.046*		
동일시 조절 동기	1	일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0	.787	-	-	.626	.870
	2	일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1.179	.791	.071	16.505*		
	3	일하는 것이 삶의 일부로서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16	.784	.062	16.357*		
	4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989	.803	.059	16.786*		

주1) 적합도 지수: χ^2=103.793(p<.05), CFI=.967, TLI=.954, RMSEA=.085, SRMR=.041

2) *p<.05

본조사 결과,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관찰변인인 내재 동기는 .907, 동일시 조절 동기는 .867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9로 나타났다(<표 Ⅲ-15> 참조). 탁진국(2018)이 제안한 신뢰도 크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 도구로 볼 수 있다.

<표 Ⅲ-15> 자율적 진로 동기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정은교(2021)	1차 예비조사	본조사
자율적 진로 동기		-	.916	.909
	내재 동기	.89	.902	.907
	동일시 조절 동기	.82	.764	.867

마.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진로탐색행동 측정을 위해 최동선(2003)이 개발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의 두 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에 대한 탐색은 12개 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을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는 약 20년 전 개발된 측정도구로서 오늘날 사회현상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COVID-19 감염증으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고 타인과의 대면 상호작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2) 안면타당도 검토의 과정을 거쳐 최동선(2003)의 조사 도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이하 ML)과 사교회전 방식 중 Oblimin 방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문항을 수정한 직업에 대한 탐색 관련 문항은 해당 요인에 .4 이상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보인 반면, 지인을 통한 자신에 대한 탐색 관련 문항(1번, 2번, 8번), 성찰을 통한 자신에 대한 탐색 관련 문항(6번, 7번, 11번, 12번)은 자신에 대한 탐색 요인에 부하되지 않았다(<표 Ⅲ-16> 참조).

<표 Ⅲ-16>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자신에 대한 탐색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30	.24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21	.19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35	.37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15	.49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아보았다.	.29	.35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44	.14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38	.21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30	.27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02	.84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06	.85
	11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33	.20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31	.11

<표 계속>

<표 Ⅲ-16> 계속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직업에 대한 탐색	1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66	-.04
	2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68	.00
	3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의 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다.	.68	.01
	4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로부터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다.	.62	.05
	5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에 참여하였다.	.70	-.08
	6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72	-.17
	7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69	.03
	8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57	.08
	9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64	.05
	10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56	.13
	11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68	-.03
	12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예: 전화, E-mail 등)하였다.	.70	-.07
	13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48	.07
	14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52	.01
	15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55	.11
	16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53	.01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이후, 조사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1809.119,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CFI(.714), TLI(.690) 또한, 기준치 .9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RMSEA(.101) 값은 기준치 .1을 충족하지 못한 반면, SRMR(.080) 값은 기준치 1.0 이하를 충족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의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탐색 2번(.412), 12번(.424)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후, 모형수정 지수를 확인하였고 자신에 대한 탐색 11번과 12번, 자신에 대한 탐색 1번과 2번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했을 때, 모형 적합도 상승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전체 상관과 문항-구성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에 대한 탐색 관찰변인과 관련 문항 중 12번 문항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고(r=.481, p<.05), 다음으로 2번 문항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다(r=.527, p<.05). 또한, 진로탐색행동 잠재변인과 자신에 대한 탐색 2번 문항(r=.405, p<.05), 12번 문항(r=.411,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도출된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가족, 학교 선배 및 친구로부터 자신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문항(자신에 대한 탐색 1, 2, 8번), (2)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문항(자신에 대한 탐색 6, 7, 11, 12)이 자신에 대한 탐색 구성요인에 부하되지 않았다. 반면, (1) 전문가 및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에 대한 탐색(자신에 대한 탐색 3, 4, 5 번 문항), (2)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탐색(자신에 대한 탐색 9, 10번 문항)은 자신에 대한 탐색 요인에 부하되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대학생들은 전문가 및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이 대학교 3, 4학년임을 감안할 때, 가까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행동은 3, 4학년 이전에 수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탐색 12번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로서 '반성'의 단어로 인해, 해당 문항이 자신에 대한 탐색에 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반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표준국어대사전, n. d.)'으로서 그 초점이 잘못, 부족함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 2번과 12번 문항을 삭제하였다(<표 Ⅲ-17> 참조).

<표 Ⅲ-17>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연번	구분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지인을 통한 자신에 대한 탐색 관련 문항(1번, 2번, 8번)이 자신에 대한 탐색 요인에 부하되지 않음. • 성찰을 통한 자신에 대한 탐색 관련 문항(6번, 7번, 11번, 12번)이 자신에 대한 탐색 요인에 부하되지 않음.
2	모형 적합도 확인	• χ^2 값(1809.119, p<.05), CFI(.714), TLI(.690), RMSEA(.101)은 기준치 미충족 • SRMR(.080) 값은 기준치 충족
3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자신에 대한 탐색 2번(.412), 12번(.424)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남.
4	모형수정 지수 확인	• 자신에 대한 탐색 11번과 12번, 자신에 대한 탐색 1번과 2번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했을 때, 모형 적합도 상승 정도가 높음을 확인
5	문항-잠재변인 간 상관 및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	• 자신에 대한 탐색 관찰변인과 관련 문항 중 12번 문항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고(r=.481, p<.05), 다음으로 2번 문항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음(r=.527, p<.05). • 진로탐색행동 잠재변인과 자신에 대한 탐색 2번 문항(r=.405, p<.05), 12번 문항(r=.411,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음.
6	문항 특성 분석	• 오늘날 대학생들은 전문가 및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까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행동은 3, 4학년 이전에 수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잘못함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는 '반성'의 의미로 인해, 12번 문항이 자신에 대한 탐색에 부하되지 않을 수 있음.

문항 삭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값(1531.425,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CFI(.740), TLI(.716) 또한, 기준치 .9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반면, RMSEA(.100)와 SRMR(.080)은 기준치 1.0 이하를 충족하였다(<표 Ⅲ-18> 참조).

수렴타당도 확인 결과, 자신에 대한 탐색 1, 11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하라도 그 값이 너무 낮지 않다면 해당 변인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우종필(2012)의 주장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난 자신에 대한 탐색 1번, 11번 문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다른 수렴타당도 평가 기준으로서, 자신에 대한 탐색의 AVE 값은 .327, 직업에 대한 탐색은 .461로 나타나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AVE 값 산출식[3]을 고려할 때, 관찰변인의 AVE 값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일부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 1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직업에 대한 탐색 13, 14, 16번 문항은 기준치 .5에 근접하여 AVE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반면, CR 값의 경우, 자신에 대한 탐색은 .827, 직업에 대한 탐색은 .914로 나타나 기준치 0.7 이상을 충족하였다(<표 Ⅲ-18> 참조).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2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기준치에 근접하였고 CR 값이 기준치를 충족한 반면, AVE값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측정도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

3) $AVE = \dfrac{\sum_i^p \lambda_i^2}{\sum_i^p \lambda_i^2 + \sum_i^p Var(\epsilon_i)}$

<표 Ⅲ-18>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오차	Z	AVE	CR
자신에 대한 탐색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000	.495	-	-	.327	.827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492	.646	.170	8.784*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1.388	.593	.165	8.389*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아보았다.	1.457	.582	.175	8.304*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986	.513	.128	7.697*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763	.519	.099	7.746*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071	.522	.138	7.781*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1.509	.705	.165	9.172*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1.254	.648	.142	8.802*		
	11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782	.447	.111	7.017*		
직업에 대한 탐색	1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1.000	.631	-	-	.461	.914
	2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036	.688	.086	11.987*		
	3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의 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다.	.920	.692	.076	12.040*		
	4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로부터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다.	1.068	.645	.094	11.369*		
	5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에 참여하였다.	1.115	.676	.094	11.810*		
	6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1.112	.631	.099	11.180*		

<표 계속>

<표 Ⅲ-18> 계속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오차	Z	AVE	CR
직업에 대한 탐색	7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1.159	.715	.094	12.352*	.461	.914
	8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1.000	.618	.091	10.985*		
	9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937	.658	.081	11.565*		
	10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1.066	.630	.095	11.165*		
	11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1.091	.668	.093	11.698*		
	12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예: 전화, E-mail 등)하였다.	1.157	.675	.098	11.799*		
	13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927	.517	.098	9.432*		
	14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761	.524	.080	9.544*		
	15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978	.606	.091	10.803*		
	16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901	.517	.096	9.439*		

주1) 모형 적합도 지수: χ^2=1531.425(p<.05), CFI=.740, TLI=.716, RMSEA=.100, SRMR=.080

2) *p<.05

본조사 결과,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관찰변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 .823, 직업에 대한 탐색은 .912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5로 나타났다. 탁진국(2018)과 Nunnally(1978)이 제안한 신뢰도 크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 도구로 볼 수 있다(<표 Ⅲ-19> 참조).

<표 Ⅲ-19> 진로탐색행동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최동선(2003)	1차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탐색행동		-	.909	.925
	자신에 대한 탐색	.89	.779	.823
	직업에 대한 탐색	.82	.908	.912

주) 본조사 내적 일치도 계수는 자신에 대한 탐색 2번, 12번 문항을 제외한 내적 일치도 계수임.

바.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개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을 위해 Xu & Tracey(2015)가 개발한 조사 도구를 번안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Xu & Tracey(2015)의 측정 도구는 선호, 인내, 회피의 세 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4] 각 관찰변인별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Xu & Tracey(2015)의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번안은 대학생 진로 관련 선행연구(김태환, 2019; 홍은선, 2020)의 번안 과정을 바탕으로 (1) 1·2차 역번안, (2)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3) 대학생 안면타당도 검토, (4)1·2차 예비조사 및 (5) 본조사의 단계를 거쳤다(【부록 2】 참조). 1·2차 역번안은 대학생 진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자 인력개발 관련 분야 외국 대학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재학 중인 미국 국적의 이중 언어자 1인과 함께 수행되었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는 진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4명으로부터 수행되었고 안면 타당도는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 이후,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전체 신뢰도는 .646, 정보수집 선호는 .826, 부적응 및

4) Xu & Tracey(2015)의 측정도구명은 진로결정 모호함(career decision ambiguity)이며 선호(preference, tolerance, aversion)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는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개념을 바탕으로 Xu & Tracey(2015)의 측정도구명과 구성요인명을 재해석하였음.

회피는 .798로 나타나 기준치 .6을 충족하였으나 수용의 신뢰도는 .513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용 2, 4번 문항, 부적응 및 회피 5번 문항이 관련 요인에 부하되지 않아 전문가 내용타당도 추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도 수용의 신뢰도는 .502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수집 선호 6번, 수용 2, 3번 문항이 관련 요인에 부하되지 못하였다. 이후, 전문가 내용타당도 추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L 방법과 사교회전 방식 중 Oblimin 방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용 1, 2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0> 참조). 특히, 수용 2번 문항은 1, 2차 예비조사에서도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정보수집 선호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73	.01	-.04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64	-.08	.11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66	-.09	.07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74	.06	-.07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75	.03	.00
	6	새로 알게된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거리낌없다.	.34	.03	.26
수용	1	관심이 있는 진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15	.25
	2	여러 진로가 고민이 될 때,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18	-.10	-.01
	3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11	.37
	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 (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18	-.19	.36
	5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5	.00	.61
	6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00	.03	.62

<표 계속>

<표 Ⅲ-20> 계속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부적응 및 회피	1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업(예: 진로 선택,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회피하려고 한다.	-.12	.51	.04
	2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00	.79	.04
	3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08	.69	.01
	4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07	.84	-.01
	5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03	.47	-.11
	6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01	.69	-.01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339.113, p <.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CFI(.904) 값은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TLI(.889) 값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반면, RMSEA(.062)와 SRMR(.062) 값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정보수집 선호 6번, 수용 1, 2, 4, 5번, 부적응 및 회피 5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미만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수정 지수를 확인한 결과, 수용 1번과 수용 2번을 삭제할 때, 모형 적합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문항-잠재변인 상관과 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찰변인인 수용과 관련 문항 중 1번(r=.544, p<.05), 2번 문항(r=.476,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고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잠재변인과 수용 1번(r=.282, p<.05), 2번 문항(r=.304,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다(<표 Ⅲ-21> 참조).

수용 2번의 경우, 원 문항인 'I enjoy dealing with complex career decision-making tasks.'는 '즐긴다.'에 초점이 있어,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의미하

는 수용의 개념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용 1번 문항은 'I am to lerant of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my perception and the reality of a career.' 로서 관심이 있는 진로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의 개념으로서 미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연성, 정보가 부족한 모호성, 정보가 많은 복잡성의 개념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구성요인 수용의 1, 2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Ⅲ-21>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문항 삭제 근거

연번	구분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수용 1, 2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으로 나타남.
2	모형 적합도 확인	• χ^2 (339.113, p<.05), TLI(.889) 값 기준치 미충족 • CFI(.904), RMSEA(.062), SRMR(.062) 값 기준치 충족
3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요인부하량 확인	• 정보수집 선호 6번, 수용 1, 2, 4, 5번, 부적응 및 회피 5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미만
4	모형수정 지수 확인	• 수용 1번과 수용 2번을 삭제할 때, 모형 적합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5	문항-잠재변인 간 상관 및문항-관찰변인 간 상관분석	• 수용과 관련 문항 중 1번(r=.544, p<.05), 2번 문항(r=.476,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음. •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잠재변인과 수용 1번(r=.282, p<.05), 2번 문항(r=.304, p<.05) 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았음.
6	문항 특성 분석	• 수용 1번 문항은 불확실성 개념(개연성, 모호성, 복잡성)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수용 2번 문항의 초점은 '즐긴다.' 에 있어, 수용의 개념과 관련성이 낮음.

수용 1, 2번 문항을 삭제한 후의 수렴타당도 결과는 다음의 <표 Ⅲ-22>와 같다. 정보수집 선호 6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이상으로 나타났고 수용의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또한, 기준치 .5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및 회피 구성요인의 경우, 5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이상으로 나타났다. AVE 값의 경우,

정보수집 선호는 .461, 수용은 .284, 부적응 및 회피 .464로 기준치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R 값은 수용(.613)을 제외한 정보수집 선호(.834), 부적응 및 회피(.834)는 기준치 .7 이상으로 나타났다.

AVE 값 산출식을 고려할 때, 관찰변인의 AVE 값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일부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정보수집 선호 6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478이었고 수용의 모든 문항은 .5 수준이었으며 부적응 및 회피 5번 문항은 .475였다. 이 연구는 문항 삭제를 지양하는 것을 제안한 우종필(2012)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용 1, 2번 문항만을 삭제했기 때문에 AVE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모형 적합도는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기준치에 근접하였으며 AVE값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CR 값은 기준치를 일부 충족하였다. 따라서, 해당 측정도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22>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오차	Z	AVE	CR
정보수집 선호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00	.693	-	-	.461	.834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069	.723	.083	12.829*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1.097	.724	.086	12.834*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38	.687	.085	12.266*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40	.732	.080	12.962*		
	6	새로 알게된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거리낌없다.	.903	.478	.103	8.781*		

<표 계속>

<표 Ⅲ-22> 계속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 오차	Z	AVE	CR
수용	3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0	.511	-	-	.284	.613
	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1.054	.516	.160	6.607*		
	5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15	.531	.136	6.711*		
	6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143	.571	.165	6.940*		
부적응 및 회피	1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업(예: 진로 선택,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회피하려고 한다.	1.000	.540	-	-	.464	.834
	2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1.573	.784	.149	10.565*		
	3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1.283	.705	.128	10.004*		
	4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1.602	.819	.149	10.760*		
	5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972	.475	.126	7.733*		
	6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1.319	.695	.133	9.932*		

주1) 모형 적합도 지수: χ^2=244.446(p<.05), CFI=.929, TLI=.916, RMSEA=.059, SRMR=.059

2) *p<.05

본조사 결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관찰변인인 정보수집 선호 .821, 수용 .606, 부적응 및 회피 .830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볼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의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8으로 나타났다. 탁진국(2018)과 Nunnally(1978)가 제안한 신뢰도 크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의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 도구로 볼 수 있다(<표 Ⅲ-23> 참조).

<표 Ⅲ-23>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Zhang et al.(2021)	1차 예비조사	2차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92	.656	.732	.798
	정보수집 선호	-	.826	.840	.821
	수용	-	.513	.502	.606
	부적응 및 회피	-	.798	.818	.830

주) 본조사 내적 일치도 계수는 수용 2번 문항을 제외한 내적 일치도 계수임.

4. 자료 수집

학교별 조사 협력자 1인을 확보 후 온라인 ·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 오프라인 조사 전, 조사 협력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 교육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였고 사전 교육 시, (1) 연구 개요, (2) 설문 대상, (3) 설문 내용 및 방법, (4) 설문 기한, (5) 사례 등 기타 사항을 안내하였다.

예비조사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총 2회 실시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1개 학교 총 125명을 대상으로 3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총 8일간 수행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 참여자 중 2차 예비조사 참여 희망자 108명을 대상으로 4월 1일(금)부터 4월 4일(월)까지 총 4일간 수행되었다.

1, 2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4월 5일(화)부터 4월 29일(금)까지 25일 간 수행되었다. 목표 학교 7개교 중, 1개교는 오프라인 설문지, 6개교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 계획에 따라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4개교로부터 학교당 70명씩 전공 계열, 성별, 학년 층화 비율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 총 490부를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Ⅲ-24>와 같다. 성별 현황으로서 남학생은 54.3%(266명), 여학생은 45.7%(224명)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소 많았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성비가 1:1.4, 자연·공학계열 성비가 1:0.5인 표집 계획에 기반을 둔다. 학년은 3학년 48.6%(238명), 4학년 이상 51.4%(252명)으로 4학년 이상의 학생 비율이 다소 많았다. 학년별 비율 정보가 제한됨에 따라 학년은 동수표집을 수행하였지만 3, 4학년 표집 크기가 홀수인 경우, 4학년 이상의 학생 수를 1명 더 표집하여 4학년 이상의 학생 수가 다소 많았다. 전공 계열 현황은 인문·사회계열 50.0%(245명), 자연·공학계열 50.0%(245명)으로 나타나 자연·공학계열 학생 수와 인문·사회계열 학생 수와 같았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학생 수 비율이 1:1인 점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소재지 현황으로서 수도권은 42.9%(210명), 비수도권은 57.1%(2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에 따라 비수도권 학교를 1개교 더 표집한 것에 기인한다.

<표 Ⅲ-2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66	54.3
	여학생	224	45.7
학년	3학년	238	48.6
	4학년 이상	252	51.4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245	50.0
	자연·공학계열	245	50.0
학교 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10	42.9
	비수도권	280	57.1
합계		490	100.0

주) 목표 표집 수 490부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제거를 통해 총 413부를 분석에 활용

5. 자료 분석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6.0 패키지(이하 SPSS)와 R 4.1.1 패키지(이하 R)을 활용하였다. SPSS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R을 통해 표준화 잔차 탐색,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 탐색적 · 확인적 요인분석, 매개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매개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시 R 4.1.1.의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단계 접근법에 따라 1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2단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이전, 분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1)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제거', '2) 정규성 확인', '3) 동일방법 편의 확인', '4) 다중공선성 확인'의 네 가지 과업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단계별 세부 과업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분석을 위한 자료 준비

1)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 제거

불성실 응답은 응답자가 '부주의하게 설문에 응답(careless responding)하는 것, 의도적으로 무작위하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원우 외, 2020). 불성식 응답은 상관관계(Crede, 2010), 모형적합성(Woods, 2006)을 왜곡하여 2종 오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박원우 외, 2020) 이를 탐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상치는 반응의 극단값(extreme value)을 의미하며 이상치를 제거할 때, 결과를 신뢰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양병화, 2006).

이 연구는 불성실 응답을 탐지하기 위해 불성실 응답을 탐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박원우 외, 2020)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 기법(instructional manipulation)’과 ‘비무작위 응답(nonrandom responding) 탐지 방법’ 중 하나로 ‘한 줄 응답 확인 기법’을 활용하였다. 불성실 응답 탐지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응답시간 확인 기법은 모든 응답자의 응답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개인 응답 분산도 확인 기법은 분산도의 명확한 기준치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박원우, 2020). 또한, 통계적 방법으로서 마할라노비스 거리 기법은 명확한 기준치가 부재하고(박원우, 2020) 일관 및 동의/반의 일관성 방법은 설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박원우 외(202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개요에 불성실 응답 탐지를 위해 ‘나는 이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는 질문에 ‘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줄 것을 안내하였고 다른 선택지를 응답할 경우 사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경고형 지시문을 명시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 중간에 ‘나는 이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문항을 삽입하였다. 이 연구는 불성식 응답 탐지를 위해, ‘한 줄 응답 확인 기법’을 사용하였고 연속된 문항의 최대 횟수가 14개 문항일 경우(이유우, 2020),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에 ‘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지 않은 34개 응답을 삭제하였고 14개 이상의 한 줄 응답을 한 3개 응답을 삭제하여 총 37개의 응답을 삭제하였다.

이상치를 탐지 및 제거하기 위해 평균에서의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s)를 도출하여 |3| 이상일 경우 이상치로 판단(우종필, 2012)하였고 해당 응답을 제거하였다. 또한, 그래픽적 방법으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산포도(scatter plot)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탐지 및 제거하였다. 표준화 잔차를 확인하기 위해 R 4.1.1.의 stdres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 |3| 이상인 2개 응답을 확인하여 해당 응답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산포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0개 이상치 응답을 삭제하여 총 413개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정규성 확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정규성을 가정하며,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통해 모수를 추리한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다변량 분석이기 때문에 정규성 확인을 위해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해야 하나,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례 수가 충분하다면 단변량 정규성을 기준으로 정규성 판단을 할 수 있다(배병렬, 2009).

단변량 정규성 확인은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함으로써 수행된다. 왜도는 자료의 분포 기울어진 정도로서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의미한다. 첨도는 자료가 중심에 집중된 정도를 의미한다. Curran et al.(1996)은 왜도 |3| 이내, 첨도 |8 ~ 2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또한, Curran et al.(1996)의 기준에 따라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3) 동일방법 편의 확인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박원우 외, 2007). 동일방법 편의는 응답자 특성(사회적 바람직성, 일관성 유지 동기, 개인적 기질 등), 조사 도구의 특성(항목 간 맥락 효과, 항목 수, 측정 항목 유사한 척도 형식 등), 측정 상황(시간적, 공간적 상황 및 측정 도구의 매체 특성 등) 등으로 인해 야기된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 자기보고식(self-reported data) 자료를 획득하기 때문에,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동일방법 편의 분석을 위해 단일 방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가지 단계에 걸쳐 동일방법 편의를 확인하였다(이유우, 2020). 첫째, 모든 변수들의 결측치를 확인하고 설문문항의 간결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한 측정도구를 설문에 활용(박원우 외, 2007)하였다. 둘째, 단일 요인 분석 방법(single factor test)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단일 요인이 전체 모형의 분산을 대표하는지 확인하였다. 단일 요인 분석 방법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

법으로서(Podsakoff et al. 2003) 선행연구는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분산의 18 이상 32% 미만(이유우, 2020), 50% 미만의 기준(이승엽, 2022)을 바탕으로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이 연구는 50% 미만을 단일 요인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4) 다중공선성 확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설명변수 간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변수 간 높은 상호연관성으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최태순 외, 1994). 다중공선성이 높은 경우, 표본 사례 수 변화와 같은 미세한 자료 변화에도 높은 표준오차를 야기하고 변인 투입 순서에 따라 독립변수 분산의 편차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최동선, 2003). 이는 중다회귀분석의 기울기를 산정하는 공식[5]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공식을 고려할 때, 두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1이면 분모가 0이되어 기울기가 구해지지 않고 상관이 1에 가까우면 분모가 아주 작아져 분자의 값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기울기는 큰 폭으로 변한다(김청택, 2020). 따라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권순동(2015)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또한,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주로 활용한다. 공차한계는 0에 가까울수록, 분산팽창지수는 값이 클 수록,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차한계는 0.1 이하(장현진, 2018), VIF값은 5이상일 경우(Akinwande et al., 2015)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5) $b_1^2 = \dfrac{r_{YX_1} - r_{X_1X_2} r_{YX_1}}{1 - r_{X_1X_2}^2}$

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 적절성 평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nderson & Gerbing(1988)가 제안한 2단계 접근법(1단계: 측정모형 적절성 평가, 2단계: 구조모형 적절성 평가)에 따라 수행하였다. 측정모형 적절성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또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판단을 위해 χ^2 값, CFI, TLI, RMSEA 및 SRMR을 활용하였다. 홍세희(2000)는 구조 방정식 모형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을 제시하면서 RMSEA. CFI가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Hu & Bentler(1998)은 CFI, TLI, RMSEA,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김태환, 2019; 이유우, 2020; 임정훈, 2019)에서 TLI 및 SRMR을 확인한 바 있다. 모형 적합도 평가 시, 문수백(2009)이 제안한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R 4.1.1.의 lavvan 패키지의 cfa()함수를 활용하였다.

2) 구조모형 적절성 평가 및 직 · 간접효과 분석

측정모형 적절성 평가 이후에, 이 연구는 구조모형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구조모형 적절성 판단 또한, CFI, TLI, RMSEA, SRMR 값을 확인하였고 구조모형 적절성을 확인한 후에, 최대우도법을 통해,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R 4.1.1.의 lavvan 패키지의 sem()함수를 활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선행연구(이형권, 2018; Cheung & Lau, 2015)가 제안한 잠재변수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분석 3단계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잠재상호작용항이 도입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고 요인부하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두 번째 단계는 잠재상호작용항이 도입된 조절

된 매개모형을 분석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해도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도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Hayes, 2015).

세 번째 단계는 특정한 수준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특정한 조절변수 값에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다(이형권, 2018). 주로 평균값과 ±1표준편차의 평균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나 존슨-네이만(Johnson-Neyman)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변수의 전체 구간에서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확인하기도 한다(이형권, 2018). 상기 자료 분석 방법을 연구 가설에 따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연구 가설별 자료 분석 방법

구분	연구 가설	자료 분석 방법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모형은 변인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연구가설 2	대학생의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생의 교수 진로지지 및 정서지능이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가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정규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으로서 진로목표 선택의 평균은 3.69점, 진로목표 동일시 3.99점,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3.87점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인으로서 교수 진로지지의 관찰변인 중 자기탐색 함양의 평균은 3.49점, 정보적 지지 3.37점, 정서적 지지 3.76점이었고 정서지능의 관찰변인 중 자기정서 이해의 평균은 4.02점, 타인정서 이해 4.01점, 정서 활용 3.76점, 정서 조절 3.70점이었다. 매개변인으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관찰변인인 내재 동기의 평균은 4.56점, 동일시 조절 동기 4.90점이었고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의 평균은 3.45점, 직업에 대한 탐색 3.05점이었다. 조절변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관찰변인인 정보수집 선호의 평균은 4.14점, 수용 4.02점, 부적응 및 회피 2.98점이었다(<표 Ⅳ-1> 참조).

Kline(2011)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 적용 시 필요한 정규성 조건을 확인한 결과, 모든 관찰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3을 넘지 않았고 첨도는 절대값 10을 넘지 않았다. 왜도의 경우, 절대값 .03에서 .87 사이로 나타났고 첨도는 .05에서 1.3 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Kline(2011)의 기준을 근거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Ⅳ-1> 관찰변인 기술통계량

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선택 몰입	진로목표 선택	1.17	5.00	3.69	0.80	-0.54	-0.13
	진로목표 동일시	1.67	5.00	3.99	0.64	-0.30	-0.07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2.14	5.00	3.87	0.63	-0.03	-0.63
교수 진로지지	자기탐색 함양	1.17	5.00	3.49	0.76	-0.37	0.19
	정보적 지지	1.00	5.00	3.37	0.85	-0.19	-0.22
	정서적 지지	1.00	5.00	3.76	0.73	-0.34	0.32
정서지능	자기정서 이해	1.75	5.00	4.02	0.69	-0.58	0.18
	타인정서 이해	1.00	5.00	4.01	0.69	-0.79	1.02
	정서 활용	1.25	5.00	3.76	0.80	-0.30	-0.44
	정서 조절	1.00	5.00	3.70	0.88	-0.49	-0.31
자율적 진로동기	내재 동기	1.00	6.00	4.56	1.03	-0.57	0.05
	동일시 조절 동기	1.00	6.00	4.90	0.88	-0.87	1.34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1.40	5.00	3.45	0.68	-0.12	-0.30
	직업에 대한 탐색	1.00	5.00	3.05	0.77	0.19	-0.28
진로 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정보수집 선호	2.33	5.00	4.14	0.59	-0.35	-0.49
	수용	2.50	5.00	4.02	0.59	-0.19	-0.54
	부적응 및 회피	1.00	5.00	2.98	0.86	0.27	-0.39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관찰변인인 부적응 및 회피와 교수 진로지지의 관찰변인인 정서적 지지(r=.091, p>.05), 정서지능의 관찰변인인 타인정서 이해(r=.037, p>.05), 진로탐색행동의 관찰변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r=.055, p>.05),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수용(r=.066,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모든 관찰변인 간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 진로선택 몰입, 교수 진로지지,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은 잠재변인 내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가 다른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에 비해 컸으나 정서지능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잠재변인 내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에 비해 다른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도 있었다.

<표 Ⅳ-2>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잠재변인	관찰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진로선택 몰입	① 진로목표 선택	1																
	② 진로목표 동일시	.528*	1															
	③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662*	.666*	1														
교수 진로지지	④ 자기탐색 함양	.255*	.295*	.398*	1													
	⑤ 정보적 지지	.266*	.257*	.305*	.716*	1												
	⑥ 정서적 지지	.365*	.350*	.456*	.687*	.602*	1											
정서지능	⑦ 자기정서 이해	.246*	.306*	.295*	.216*	.169*	.189*	1										
	⑧ 타인정서 이해	.150*	.190*	.201*	.248*	.274*	.277*	.326*	1									
	⑨ 정서 활용	.458*	.464*	.606*	.272*	.173*	.309*	.373*	.112*	1								
	⑩ 정서 조절	.299*	.270*	.338*	.286*	.255*	.239*	.510*	.202*	.457*	1							
자율적 진로 동기	⑪ 내재 동기	.436*	.539*	.602*	.384*	.354*	.324*	.239*	.174*	.526*	.339*	1						
	⑫ 동일시 조절 동기	.398*	.590*	.558*	.300*	.277*	.294*	.305*	.187*	.447*	.351*	.598*	1					
진로탐색 행동	⑬ 자신에 대한 탐색	.359*	.403*	.472*	.310*	.303*	.349*	.191*	.237*	.356*	.221*	.349*	.337*	1				
	⑭ 직업에 대한 탐색	.459*	.430*	.532*	.377*	.348*	.374*	.186*	.219*	.421*	.309*	.462*	.411*	.646*	1			
진로 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⑮ 정보수집 선호	.430*	.521*	.579*	.327*	.293*	.398*	.291*	.217*	.430*	.280*	.443*	.458*	.366*	.321*	1		
	⑯ 수용	.240*	.338*	.328*	.222*	.214*	.298*	.210*	.138*	.273*	.209*	.262*	.299*	.198*	.252*	.491*	1	
	⑰ 부적응 및 회피	.352*	.125*	.287*	.115*	.129*	0.091	.187*	0.037	.269*	.272*	.294*	.156*	0.055	.168*	.162*	0.066	1

주1) *p<.05
2) 부적응 및 회피는 역코딩하였음.

나.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이 연구는 동일방법편의 확인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사전 확인 방법으로서 설문문항의 간결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한 측정도구를 설문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된 측정도구를 선정하였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관찰변인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관찰변인 중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의 전체 분산이 38%로, 기준치 50%를 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Ⅳ-3> 참조).

<표 Ⅳ-3> 동일방법편의 분석 결과

잠재변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38.386	34.918	34.918

주1) KMO=.894,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
2) 요인추출방법: 주출요인추출

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Tabachnick & Fidell(198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종속변인인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장현진, 2018; Akinwande et al., 2015)에서 제안한 다중공선성 기준에 따라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관찰변인의 공차한계는 기준치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하였고 분산팽창지수의 경우에도 기준치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하였다(<표 Ⅳ-4> 참조).

<표 Ⅳ-4>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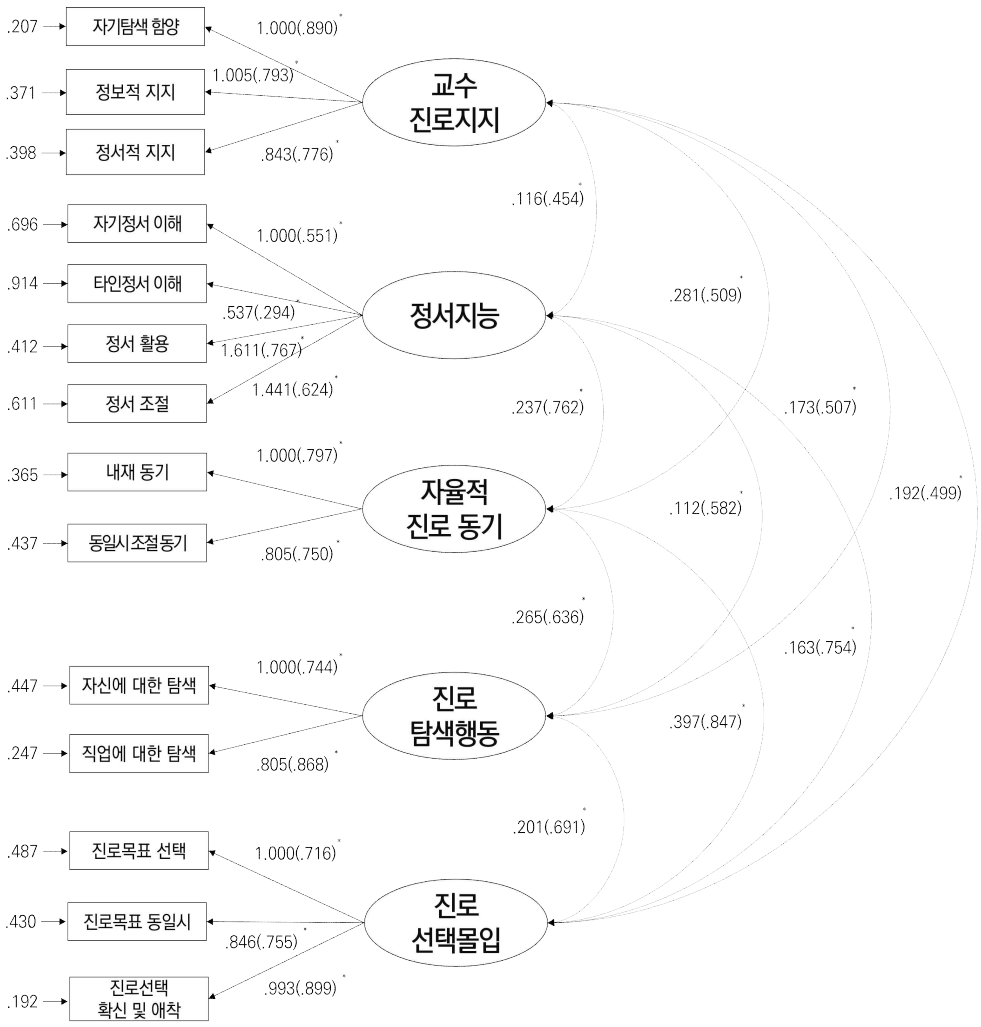
잠재변인	관찰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교수 진로지지	자기탐색 함양	.730	2.703
	정보적 지지	.438	2.283
	정서적 지지	.451	2.218
정서지능	자기정서 이해	.644	1.554
	타인정서 이해	.808	1.238
	정서 활용	.538	1.857
	정서 조절	.613	1.631
자율적 진로 동기	내재 동기	.484	2.068
	동일시 조절 동기	.557	1.795
진로탐색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534	1.874
	직업에 대한 탐색	.477	2.096
진로 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정보수집 선호	.557	1.795
	수용	.729	1.371
	부적응 및 회피	.851	1.175

주) 공차한계는 0.1 이하(장현진, 2018) VIF 값은 5이상일 경우(Akinwande et al., 2015) 다중공선성 존재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단계 접근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242.923,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CFI(.933), TLI(.909)는 기준치 .9 이상, RMSEA(.080), SRMR(.054)은 기준치 .1 이하로 나타나 문수백(2009)이 제안한 모형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였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주1) 적합도 지수: χ^2=242.923(p<.05), CFI=.933, TLI=.909, RMSEA=.080, SRMR=.054

2) *p<.05

나.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수렴타당도 확인 결과, 정서지능의 관찰변인인 타인정서 이해를 제외하고 모든 관찰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나 이형권(2018)이 제안한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다. 한편, 정서지능의 관찰변인인 타인정서 이해

의 경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294로 나타났다. AVE 값을 확인한 결과, 진로 선택몰입, 교수 진로지지,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잠재변인 모두 이형권(2018)이 제안한 기준치 0.5 이상을 충족하였고 CR 값 또한, 기준치 0.7 이상을 충족하였다. 한편, 정서지능의 경우, 타인정서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낮게 도출됨에 따라, AVE 값은 .342으로 나타났고 CR 값은 .655로 나타났다(<표 Ⅳ-5> 참조).

한편,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하라도 그 값이 너무 낮지 않다면 해당 변인을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우종필(2012)의 주장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난 타인정서 이해 관찰변인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정서지능의 개념 고찰을 통해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의 정의를 고려할 때, 타인정서 이해는 정서지능의 개념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특히,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정서지능의 초기 개념(Thorndike, 1920)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인정서 이해는 정서지능의 개념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지능 관련 선행연구는 타인정서 이해의 설명변량 또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낮게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정서 이해를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지능 조사 도구를 번안한 탁진국(2007)의 연구에서도 타인정서 이해의 고유값과 설병변량이 가장 낮았고 김은재, 김장회(2020), 허강석(2017)의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타인정서 이해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관찰변인을 삭제하지 않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Ⅳ-5>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B	β	S.E.	Z	AVE	CR
진로선택 몰입	진로목표 선택	1.000	.716	-	-	.630	.835
	진로목표 동일시	.846	.755	.059	14.456*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993	.899	.060	14.652*		
교수 진로지지	자기탐색 함양	1.000	.890	-	-	.674	.861
	정보적 지지	1.005	.793	.056	17.951*		
	정서적 지지	.843	.776	.048	17.534*		
정서지능	자기정서 이해	1.000	.551	-	-	.342	.655
	타인정서 이해	.537	.294	.107	5.014*		
	정서 활용	1.611	.767	.164	9.802*		
	정서 조절	1.441	.624	.162	8.912*		
자율적 진로 동기	내재 동기	1.000	.797	-	-	.599	.749
	동일시 조절 동기	.805	.750	.055	14.547*		
진로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1.000	.744	-	-	.653	.789
	직업에 대한 탐색	1.315	.868	.099	13.234*		

주) *p<.05

다.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판별타당도 확인 결과, 관찰변인 AVE 값이 문항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이형권(2018)이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판별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표 Ⅳ-6> 참조).

<표 Ⅳ-6>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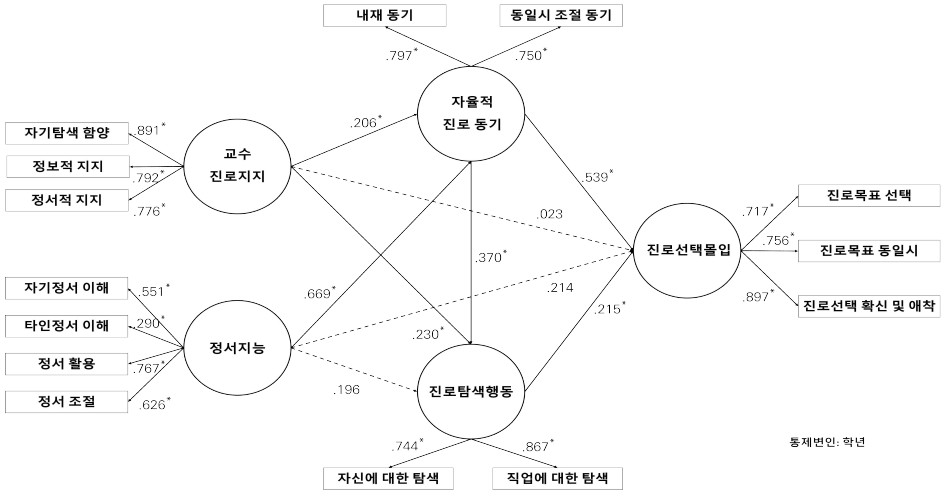
잠재변인	진로 선택몰입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동기	진로 탐색행동
진로선택몰입	.630				
교수 진로지지	.181	.674			
정서지능	.280	.152	.342		
자율적 진로동기	.437	.172	.265	.599	
진로탐색행동	.323	.187	.181	.245	.653

주) 음영표시: AVE 값 / 그 외: 상관계수 제곱값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단계 접근법의 두 번째 단계로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 값(275.599,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RMSEA(.080)와 SRMR(.054) 값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CFI(.925) 값 또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한편, TLI 값은 .896으로 도출되었으나, 기준치 .9 수준에 가까워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구조모형 분석 결과(연구 모형)

주1) 적합도 지수: χ^2=275.599(p<.05), CFI=.925, TLI=.896, RMSEA=.080, SRMR=.054

2)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3) *p<.05

한편, 선행연구는 교수 진로지지 관련 변인이 진로선택몰입 관련 변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구명했을 뿐만 아니라(김미정, 2019; 김민선, 최보금, 2016; Chemers et al., 2011; Kautish et al., 2021) 심리적 변인을 매

개로 할 때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구명(강민정, 2015; 이성희, 2020)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정서지능이 진로선택몰입 관련 변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송현영, 신소흥, 2016; Brown et al., 2003) 반면,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이현영, 2018)하기도 하였으며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 또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김정근, 2012; 유인나, 2021; 허강석, 2017) 반면,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양은영, 이계희, 2021)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모형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Kline(2016)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상기,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상이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네 가지 수정 모형을 상정하였고 수정 모형별 모형 적합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수 진로지지→진로선택몰입, 정서지능→진로선택몰입, 정서지능→진로탐색행동' 의 경로를 삭제한 수정 모형 4의 모형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 4를 비교하였다(<표 Ⅳ-7> 참조).

<표 Ⅳ-7>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 간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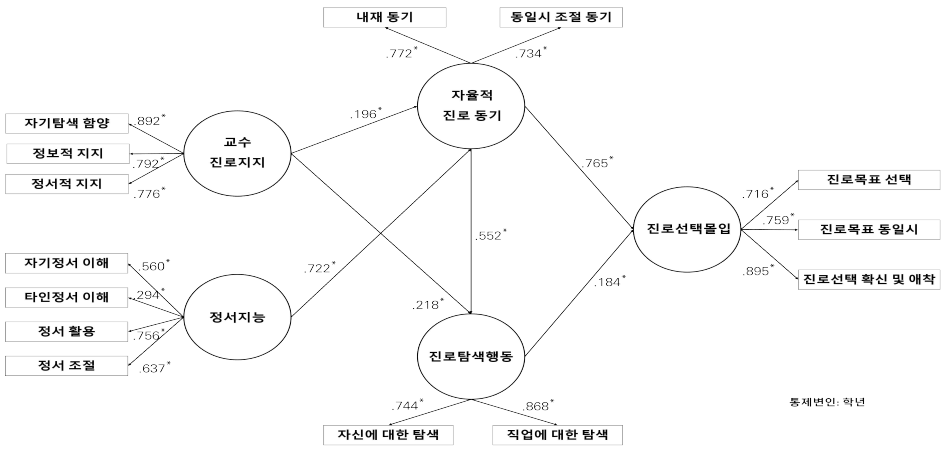
구분	삭제 경로	χ^2	df	CFI	TLI	RMSEA	SRMR
연구 모형	-	275.599*	76	.925	.896	.080	.054
수정 모형 1	•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275.823*	77	.925	.898	.079	.054
수정 모형 2	•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280.228*	77	.924	.896	.080	.054
수정 모형 3	•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280.291*	78	.924	.898	.079	.054
수정 모형 4	•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281.852*	79	.924	.899	.079	.054

주) *p<.05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 간 비교는 자유도와 χ^2값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자유도에 따른 χ^2값을 기준으로 χ^2 값의 증가치가 임계치 미만일 경우, 두 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채택하게 되고 임계치 이상일 경우, 영가설

을 기각하여 두 모형 간 적합도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다. 영가설을 채택하여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간명한 모형 즉, 경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형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고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모형 적합도가 더 좋은 모형을 선택한다(우종필, 2012). 수정 모형 4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수정 모형의 자유도가 연구 모형에 비해 3 증가하였고 χ^2 값은 6.253 증가하였으며 χ^2값의 증가치가 임계치(χ^2=7.815, df=3) 미만이었다. 따라서, 모형 간 적합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 모형을 선택하였다. 특히, 수정 모형 4의 TLI 값과 RMSEA 값이 연구 모형에 비해 양호하였다.

수정된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Ⅳ-3]과 같다.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 몰입,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직접 경로를 제외하였다. 수정 모형 내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간 표준화 경로 계수가 증가하였고 그 외의 표준화 경로 계수는 감소하였다.



〔그림 Ⅳ-3〕 구조모형 분석 결과(수정 모형)

주1) 적합도 지수: χ^2=281.852(p<.05), CFI=.924, TLI=.899, RMSEA=.079, SRMR=.054

2) *p<.05

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가설 2-1부터 2-9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및 Z값을 분석하였다(<표 Ⅳ-8> 참조). 분석 결과,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β=.196, p<.05)와 진로탐색행동(β=.218,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β=.72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선택몰입(β=.765, p<.05)과 진로탐색행동(β=.55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탐색행동 또한, 진로선택몰입(β=.184,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2-1, 가설 2-4, 가설 2-6을 제외한 모든 가설을 채택하였다.

<표 Ⅳ-8> 직접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B	β	표준오차	Z	채택여부
가설 2-1.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	-	-	-	기각
가설 2-2.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231	.196	.072	3.203*	채택
가설 2-3.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164	.218	.052	3.159*	채택
가설 2-4.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	-	-	-	기각
가설 2-5.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1.491	.722	.322	4.629*	채택
가설 2-6.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	-	-	-	기각
가설 2-7.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551	.765	.080	6.921*	채택
가설 2-8.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352	.552	.057	6.192*	채택
가설 2-9.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207	.184	.096	2.168*	채택

주1) *p<.05

2) 통제변인: 학년

다. 간접효과 분석 결과

1) 단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3-1부터 가설 3-6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Z값을 확인하였다(<표 Ⅳ-9> 참조). 분석 결과,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β=.150, p<.05),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β=.552, p<.05)의 관계를 정적으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β=.108, p<.05)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β=.398, p<.05)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은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β=.040, p<.05)의 관계를 정적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효과 Z값의 유의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3-5와 가설 3-6은 기각하였다.

<표 Ⅳ-9> 단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B	β	표준 오차	Z	채택 여부
가설 3-1.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127	.150	.043	2.992*	채택
가설 3-2.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081	.108	.027	2.980*	채택
가설 3-3.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822	.552	.205	4.012*	채택
가설 3-4.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525	.398	.134	3.914*	채택
가설 3-5.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34	.040	.023	1.508	기각
가설 3-6.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	-	-	-	기각

주1) *p<.05

2) 통제변인: 학년

2)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3-7과 3-8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Z값을 확인하였다(<표 Ⅳ-10> 참조). 가설 3-7 검증 결과,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이 정적으로 완전매개(β=.020,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8 검증 결과,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이 정적으로 완전매개(β=.073,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3-7과 3-8을 채택하였다.

<표 Ⅳ-10>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B	β	표준오차	Z	채택여부
가설 3-7.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17	.020	.009	1.982*	채택
가설 3-8.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109	.073	.051	2.147*	채택

주1) *p<.05

2) 통제변인: 학년

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이형권, 2018; Cheung & Lau, 2015)에서 제안한 잠재변인의 조절효과 분석의 3단계 분석 방법을 근거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서 잠재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문수백(2009)과 이형권(2018)이

제안한 기준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χ^2 값(354.643,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RMSEA(.076)와 SRMR(.057), CFI(.918) 값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한편, TLI(.893) 값은 적합도 기준 .9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적합도 기준에 근접하였다. 요인부하량 확인 결과, 잠재변인별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참조). 상기 결과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조절된 매개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1>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1단계: 모형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 분석 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B	β	S.E.	Z
진로선택몰입	진로목표 선택	1.000	.713	-	-
	진로목표 동일시	.857	.761	.059	14.579*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	.993	.895	.059	16.741*
교수 진로지지	자기탐색 함양	1.000	.886	-	-
	정서적 지지	1.011	.794	.056	17.975*
	정보적 지지	.851	.780	.048	17.628*
정서지능	자기정서 이해	1.000	.557	-	-
	타인정서 이해	.542	.300	.106	5.122*
	정서 활용	1.585	.763	.160	9.917*
	정서 조절	1.428	.624	.159	9.006*
자율적 진로 동기	내재 동기	1.000	.793	-	-
	동일시 조절 동기	.813	.754	.055	14.665*
진로탐색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1.000	.741	-	-
	직업에 대한 탐색	1.324	.871	.100	13.206*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정보수집 선호	1.000	.840	-	-
	수용	.662	.553	.069	9.551*
	부적응 및 회피	.448	.257	.096	4.649*

주1) 모형 적합도 지수: χ^2=354.643(p<.05), CFI=.918, TLI=.893, RMSEA=.076, SRMR=.057

2) *p<.05

두 번째 단계로서 교수 진로지지 또는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경로에 대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5 이상이고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2단계: 조절된 매개지수 분석 결과

구분	경로	B	β	표준오차	Z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직접효과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	-	-	-	-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186	.153	.086	2.158*	.018 - .357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174	.232	.053	3.286*	.071 - .285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	-	-	-	-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1.675	.760	.289	5.797*	1.219 - 2.322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	-	-	-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363	.519	.075	4.805*	.207 - .517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336	.542	.055	6.080*	.239 - .456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201	.178	.070	2.870*	.240 - .634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 진로선택몰입	.399	.346	.103	3.855*	.240 - .634
	잠재상호작용항 → 진로선택몰입	.091	.053	.060	1.533	-.026 - .201
간접효과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13	.015	.007	1.739	.001 - .028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113	.073	.046	2.467*	.037 - .215
조절된 매개지수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06	.004	.005	1.120	-.002 - .018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051	.022	.036	1.425	-.018 - .123

주1) 조절변인: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2) 잠재상호작용항: ① 자신에 대한 탐색×정보수집 선호 ② 자신에 대한 탐색×수용
③ 자신에 대한 탐색×부적응 및 회피 ④ 직업에 대한 탐색×정보수집 선호
⑤ 직업에 대한 탐색×수용 ⑥ 직업에 대한 탐색×부적응 및 회피

3) *p<.05

4) 통제변인: 학년

4. 논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가설의 채택 여부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13>과 같다. 구조모형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로서 총 9개 가설 중, 6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단순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로서 6개 가설 중 4개 가설이 채택되었고 이중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편, 조절된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표 Ⅳ-13> 가설별 연구 결과 종합

구분		가설	채택 여부
모형 적합도		가설 1. 구조모형의 적합도	채택
직접효과		가설 2-1. 교수 진로지지 → 진로선택몰입	기각
		가설 2-2.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채택
		가설 2-3.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채택
		가설 2-4. 정서지능 → 진로선택몰입	기각
		가설 2-5.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채택
		가설 2-6.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기각
		가설 2-7.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채택
		가설 2-8.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채택
		가설 2-9.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채택
간접효과	단순 매개 효과	가설 3-1.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채택
		가설 3-2.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채택
		가설 3-3.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선택몰입	채택
		가설 3-4.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채택
		가설 3-5. 교수 진로지지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기각
		가설 3-6. 정서지능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기각
	이중 매개 효과	가설 3-7.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채택
		가설 3-8.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채택
	조절된 매개 효과	가설 4. 교수 진로지지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기각
		가설 4. 정서지능 → 자율적 진로 동기 → 진로탐색행동 → 진로선택몰입	기각

가. 연구 모형에 관한 논의

이 연구의 모형은 교수 진로지지와 같은 맥락 요인 또는 개인 특성으로서 긍정 정서가 개인의 진로 관련 동기를 함양하고 이러한 동기가 진로행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을 함양할 수 있다는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진로구성이론(Savickas & Porfeli, 2012) 및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17)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측정모형 분석 결과, 각 잠재변인은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결과는 다수 진로이론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맥락 요인 및 개인의 정서가 동기를 함양하고 동기가 진로행동을 촉진하며 진로행동이 진로성과를 촉진하는 인과관계는 다수 이론(Lent & Brown, 2013; Reardon et al., 2017; Savickas & Porfeli, 2012)에서 공통되게 제시된 주장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적합도가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다수 진로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이론은 미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제안된 이론이자 COVID-19 펜데믹 이전에 제안된 이론으로서 이론의 주장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적용할 때,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모든 잠재변인 간 직접경로를 설정한 연구 모형이 아닌,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수정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정 모형에 따르면, 교수 진로지지와 정서지능은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COVID-19로 인해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고 대학생이 진로탐색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정 모형을 채택한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 이론에서 제안한 인과적 관계가 특정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교수 진로지지와 정서지능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관련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다.

나. 변인 간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1)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연구 결과,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수정모형 분석 시, 해당 경로를 삭제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교수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치관과 흥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개발함에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대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의사결정 과정(Reardon et al., 2017)과 진로적응 과정(Lent & Brown, 2013; Savickas & Porfel, 2012) 간, 맥락 요인이 진로선택몰입과 같은 진로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 진로 이론의 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교수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구명한 김미정(2019)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오히려, 교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그릿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구명한 이성희(2020), 강민정(2015)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선택몰입은 개인의 주도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성과로서, 교수라는 외부적인 영향보다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진로선택몰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수 진로지지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관점에서 진로선택몰입은 동기를 바탕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진로선택몰입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 대안을 마련한 후, 진로대안을 좁혀가는 과정 간 발생한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동기와 행동이 맥락적 요인인 교수에 비해 더욱 중요하며 교수 진로지지만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험 연구(강민정, 2015; 이성희, 2020) 또한, 교수의 영향이 제3의 변인을 매개하였을 때에만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약 2년 이상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교수 진로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수지지 또는 교수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혹은 진로 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미정, 2019; 김민선, 최보금, 2016; Chemers et al., 2011)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다. 대학 교수자가 경험한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이미영, 서진선(2022)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인 대학의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과제에 피드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낙훈(2021)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인 대학 교수자들이 비대면 수업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고 박진찬, 백민호(2021)의 연구에서도 대학 교수자가 비대면 교육 시, 학생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즉, COVID-19가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교수 진로지지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교수자가 진로 및 취업에 대해 학생과 상호작용한 빈도가 COVID-19 전(2019년)에 비해 COVID-19 이후(2020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황정아, 정소미(2021)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더욱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 간 관계에 관한 논의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치관과 흥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

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인식할 때 그리고 진로를 개발함에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한다고 인식할 때, 대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더욱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외적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한다는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17)의 주장과 맥락 요인이 진로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수지지가 자율적 동기를 포함하는 자기결정성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미정, 2019; 신상훈 외, 2020) 및 교수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자율적 진로 동기의 유사 변인인 진로결정자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랑, 문혁준(2019)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볼 때, 대학생이 교수의 진로 지지를 긍정적인 외적 사건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교수 진로지지가 자율적 진로 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기결정 이론(Ryan & Deci, 2017)에 따르면, 개인의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을 지지하는 외적 사건은 내적 동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적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시킨다. 자신에 대한 탐색을 촉진시키고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에 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교수의 행동은 대학생의 유능성과 관계성 그리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외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적 사건의 긍정적 영향은 다수 경험 연구(김미정, 2019; 김랑, 문혁준, 2019; 최보금, 조성희, 2013; Mustapa et al., 2019; Sarwar & Khalid, 2015; Tezci et al., 2015)에서 일관되게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교수의 진로지지가 개인의 동기, 특히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려는 동기를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교수의 진로지지를 긍정적인 외적 사건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교수 진로지지가 자율적 진로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 관한 논의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탐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치관과 흥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진로를 개발함에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한다고 인식할 때, 대학생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더욱 많이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맥락 요인이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 다수 진로 이론(Lent & Brown, 2013; Reardon et al., 2017; Savickas & Porfeli, 201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수지지와 진로탐색행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고한 경험 연구(김지흔, 정민주, 2020; 유안나, 2021; 정영미, 2018; Cheung & Arnold, 2010; Yusran et al., 2021)의 결과와 일관된다.

교수 진로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진로탐색행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인지적, 행동적 활동이다(최동선, 2003). 교수 진로지지의 구성요인인 자기탐색 함양은 교수가 대학생 개인의 진로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적 지지는 직업세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수가 대학생의 진로를 지지하는 것은 대학생의 개인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이자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대학생 입장에서 교수로부터 진로에 관한 지지를 받는 것은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정서지능은 진로선택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 및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정서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진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진로적응이론(Savickas et al., 2018),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이다.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에 관한 경험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가운데, 이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이현영(201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정보처리이론의 관점으로 볼 때, 정서지능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성과인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관점 하에, 진로선택몰입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로서 진로와 관련한 이상과 현실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동기와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진로탐색행동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진로선택몰입은 다양한 진로 대안을 마련하는 진로탐색행동 이후, 다양한 진로 대안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정서는 주로 행동의 동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진로문제를 인식할 때, 긍정적·부정적 정서가 수반되며 이러한 정서가 이후,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경험 연구 중, 공윤정(2014)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진로대안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기울여, 진로대안에 불만이 커지고 좋은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대안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정보처리이론과 공윤정(2014)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서지능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의 성과로서 진로선택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그 기반이 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 및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가치를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정서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진로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및 정서가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주장한 진로발달의 행동이론(Young et al., 199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관련 변인 간 정적인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성현승, 김현숙, 2021; 이숙정, 김혜영, 2019; 최헌철, 2018; 허강석, 2017; Latalova et al., 201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율적 진로 동기에 대한 정서지능의 정적인 영향은 정서지능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해될 수 있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격려하는 정서활용, 화가 날 때 흥분을 빨리 가라앉히거나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정서조절이 포함된 개념이다. 불안, 후회,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정서가 회피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공윤정, 2014), 정서지능이 높은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할 수 있고 일을 하는 것에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 진로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6)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정서지능은 진로탐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함에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서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과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 간 정적인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김연숙, 2012; 유순덕, 2019; 유인나, 2021; 이애용, 2020)의 결과와 상반되며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구명한 경험 연구(양은영, 이계희, 2021; 전현정, 2011)와 맥을 같이한다.

정서는 행동에 기반이 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해될 수 있다. 진로발달의 행동이론을 주장한 Young et al.(1996)은 정서가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주장하였고 진로정보처리이론 관점에서 정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윤정(2014)에 따르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회피하고 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는 행동을 회피하려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서는 행동을 이끄는 동기에 기반이 된다. 특히, 자율적 진로 동기에 대한 정서지능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된 이 연구의 결과가 상기 논의를 지지한다.

한편,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약 2년간 COVID-19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되었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대학생들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더라도 진로탐색행동을 함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COVID-19가 급증하기 이전의 경

험 연구 결과를 보면,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이 다른 변인 간 상관에 비해 높았고 진로탐색행동 또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정서지능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정원 외, 2018; 허강석, 2019; 변윤화, 2020). 반면, 이 연구에서 연구 모형 결과에 따르면, 자율적 진로 동기, 교수 진로지지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가장 낮았다. 즉, COVID-19로 인해, 진로탐색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더욱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7)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가치를 인식할수록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특성이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과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간 정적인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강현이, 2013; 곽현, 2017; 김태환, 2013; 박소영, 정영숙, 2011; 이정아, 2014)의 결과와 일관된다.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된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기결정이론은 내재 동기와 자율성에 기반한 외재적 동기로 인해 몰입이 발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동기가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 또한,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 간 개념적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로선택몰입의 관찰변인인 진로목표 동일시와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과 자율적 진로 동기의 관찰변인 간 상관이 .5 이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진로목표 동일시는 직업역할을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진로선택 확신 및 애착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가치, 바람직함, 자부심 등)을 느끼는 수준을 의미한다(김태환, 2019). 동일시 조절 동기가 특정 행동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발현된 수행 의도를 의미함을 고려할 때, 직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두 변인의 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확신과 애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선택몰입과 달리, 자율적 진로 동기는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려는 동기로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선택한 진로에 확신과 애착을 인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변인은 구분되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8)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할수록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수집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동기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진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다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과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탐색행동 간 정적인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박수영, 2021; 송현아 외, 2010; 신윤정, 2013; 장은영, 2012; 조규판, 장은영, 2012; Jiang et al., 2019; Paixao & Gamboa, 2021)의 결과와 일관된다.

그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동기는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었다(Schunk et al., 2012). 진로 연구 분야에서 또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

로서 동기를 제안한다. 진로와 관련한 동기가 진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인지진로이론, 진로구성이론, 진로정보처리이론 등 다수 진로 이론의 공통된 주장이다. 즉,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수정 모형 결과로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교수 진로지지의 표준화 경로계수에 비해, 자율적 진로 동기의 표준화 경로 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점은 초기 성인기로서 대학생 시기는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으로서 교수의 영향보다, 개인 차원의 동기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9)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에 관한 논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자주 탐색할수록 자신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진로행동이 진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다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et al., 2018)과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이 진로몰입을 야기한다는 진로의사결정이론(Reardon et al., 201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정적인 관계를 구명한 경험 연구(김태환, 2019; 이경아, 김진현, 2015; 홍은선, 2020)의 결과와 일관된다.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자신에 대한 탐색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흥미, 능력, 성격, 가치관에 근거한 직업분야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태환, 2019). 즉,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타인과 대화와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노력으로서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될수록 다양한 진로 대안이 자신의 특성과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신에 대한 탐색이 진로선택몰입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 김지근,

이기학(2011)의 연구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은 진로결정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연구자는 자신에 대한 탐색이 다소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특히, 진로탐색행동 관련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이영광, 김기민(202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탐색은 직업에 대한 탐색에 비해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인 결정성과의 효과크기, 진로의사결정 유형으로 직관적 유형, 합리적 유형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이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로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심층적인 직업탐색이 진로 대안을 줄이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진로탐색행동을 넓이와 깊이로 구분하는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이영광, 김기민, 2022). 선행연구(홍은선, 2020; Porfeli & Skorikov, 2010; Savickas et al., 2018)는 진로탐색행동을 구체적인 탐색과 전반적인 탐색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탐색을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으로, 전반적인 탐색을 새로운 정보를 전반적으로 수집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진로적응 과정 중 초기에 전반적인 진로탐색을 수행하고 이후 구체적인 진로탐색을 수행하게 된다는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02)의 주장과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함에 따라 점차 진로 대안을 줄여나가 진로에 몰입하게 된다는 진로의사결정이론(Reardon et al., 2017)의 주장을 고려할 때, 심층적 직업 탐색은 진로 대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진로를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최동선(2003)의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였다. 최동선(2003)의 조사 도구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로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연구에서의 진로탐색행동은 구체적인 진로탐색행동과 개념

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1) 자율적 진로 동기의 단순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가)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적성 등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를 개발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한다고 인식할 때, 대학생은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하고 선택한 분야에 몰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맥락 요인이 동기를 포함하는 개인 특성으로서 적응준비를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을 포함하는 적응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수 진로지지를 포함한 학교지원이 자기결정성 동기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신상훈 외(202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보처리이론 관점(Reardon et al., 2017)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에 따르면,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한 상태는 사전에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과정이 기반이 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진로에 관한 현실과 이상 간 차이를 인지하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자신과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진로 대안을 좁혀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진로선택과 진로몰입에 이를 수 있다(Reardon et al., 2017). 때문에, 진로선택몰입은 개인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서 교수의 진로지지는 진로선택몰입을 위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수 진로지지만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나)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적성 등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를 개발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한다고 인식할 때, 대학생은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여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주 탐색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맥락 요인이 진로 의도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의도가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적응준비가 진로탐색행동을 포함하는 적응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교수 진로지지와 같은 맥락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진로적응모형(Savicaks et al., 201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가 진로동기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구명한 경험 연구(강명희 외, 2016; 박한샘, 조화진, 201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수 진로지지 및 진로탐색행동의 개념과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다. 진로탐색행동은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인지적, 행동적 활동으로서(최동선, 2003) 흥미, 가치관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제공(자기탐색 함양)하고 직업세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수의 행동이 대학생의 입장에서 진로탐색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교수 진로지지의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결정성이론(Ryan & Deci, 2017)에 따르면, 자율적 동기는 긍정적 외적 사건이 기반될 때 함양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론 관점에서 교수 진로지지는 긍정적 외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교수 진로지지로 인해, 자율적 진로 동기가 함양될 수 있다. 또한, 그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동기를 제안한 점(Schunk et al., 2012)을 고려할 때, 긍정적 외적 사건인 교수 진로지지가 자율적 진로 동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간접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율적 진로 동기의 부분매개 효과가 도출된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대학생 진로에 초점은 교수의 행동으로서 교수 진로지지의 영향을 구명했다는 점이다. 반면, 경험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교수 행동을 측정하는 교수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구명하였고 일부 연구는 교수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보고하였다. 강명희 외(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함양하기보다, 동기를 매개할 때에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샘, 조화진(201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 진로동기를 매개할 때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연구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고 직접효과의 표준화 계수(β=.218, p<.05)가 간접효과(β=.108, p<.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교수 진로지지는 대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려는 동기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촉진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

자율적 진로 동기는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활용 및 조절할수록 대학생은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을 즐거운 것,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자율적 진로 동기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분야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상태와 바라는 상태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되며 궁극적으로 진로에 몰입하게 된다는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대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동기를 형성하고 나아가 진로에 몰입하게 된다고 주장한 임정아, 조아미(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정서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초기부터 발생한다. Reardon et al.(2017)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이 현실과 이상 간 차이를 인식하며 시작된다고 보았다. 현실과 이상 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서를 수반한다. 이후, 개인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동기를 형성하며 동기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게 된다. 즉, 정서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초기부터 발생되며 이후 동기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지능은 현실과 이상 간 차이를 인식할 때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활성화하는데 기반이 된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보처리이론이 제안한 진로의사결정 경로를 실증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간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가운데, 이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제3의 변인으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영향을 구명했다는 점에서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일부 선행연구는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은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타인의 정서를 공감할수록 자신의 의견을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김종운, 박성실, 2014; 최진규, 2018). 또한, 이현영(2018)은 정서지능이 오히려 학생의 진로결정을 확고하게 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의 주장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진로 동기가 매개변인으로 고려되었을 때, 정서지능이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하여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에 대한 정서지능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한 선행연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자 정서지능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데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한 결과이다.

라)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매개효과

자율적 진로 동기는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활용 및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대학생은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을 즐거운 것,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동기를 형성할수록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수집하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서를 포함한 개인 특성이 진로 의도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의도가 진로탐색행동과 같은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정서지능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관한 경험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못함을 고려할 때, 이 연구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긍정정서의 간접적인 영향을 구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서지능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정근, 2012; 유인나, 2011; 이애용, 2020; 허강석, 2017)가 보고된 반면,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양은영, 이계회, 2021; 전현정, 2011) 또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후자의 연구 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긍정적인 정서는 학업을 마치고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진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정서만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구 모형 결과로서 자율적 진로 동기에 대한 정서지능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정서지능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 연구의 결과가 상기 주장을 지지한다.

2) 진로탐색행동의 단순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진로탐색행동은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적성 등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를 개발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한다고 인식할 때, 대학생은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자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수집 행동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탐색이 진로몰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맥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Savickas, & Porfeli,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박명신, 한상훈, 2017; 이승희, 2013)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경험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에게 교수의 진로지지가 외적인 동기로 작용하여 외적 동기에 기반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Paixao & Gamboa (2021)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적 동기가 진로탐색을 촉진할 수 있으나 통제적 동기에 기반한 진로탐색은 오히려 진로 미결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진로탐색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자발적인 진

로탐색이 궁극적으로 진로미결정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대학생의 입장에서 교수의 진로지지가 진로탐색행동을 함양할 수는 있으나(직접효과) 교수의 진로지지만을 바탕으로 수행된 비자발적인 진로탐색행동이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간접효과)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COVID-19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비대면 수업이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시도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박진찬, 백민호, 2021; 성낙훈, 2021; 이미영, 서진선, 2022; 황정아, 정소미, 2021)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시 교수자가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고 2021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는(이재열 외, 2021) 2019년에 비해 2021년, 진로지도 및 상담 교과목이 축소되었고 대학생의 취·창업지원 조직 이용 경험 비율이 하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정 모형의 결과로서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간접효과는 다른 경로의 간접효과에 비해 가장 낮게 도출되었다. 특히,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으로 이어지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다른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낮았다. 즉, COVID-19로 인해, 대학생들이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고 진로탐색이 제한됨에 따라, 교수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의 간접효과 크지 않고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더욱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이중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가)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교수 진로지지는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가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적

성 등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채용정보, 직업에서의 자격 요건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를 개발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한다고 인식할 때, 대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느껴 자신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자주 수집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하고 선택한 분야에 몰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맥락 변인이 진로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주장한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며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이승희(2013)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다수 진로이론(Lent & Brown, 2013; Reardon et al., 2017; Savickas & Porfeli, 2012)의 관점으로 볼 때,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진로행동은 진로 성과로서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진로탐색행동은 동기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동기는 교수 진로지지와 같은 긍정적 외적 사건에 의해 촉진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교수 진로지지의 외적 사건을 시작으로 개인의 동기가 함양되며 동기를 바탕으로 수행된 진로탐색행동이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합될 수 있다.

앞서 단순매개효과 분석 결과,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반면, 진로탐색행동 매개효과의 유의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단순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논의할 때,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유의수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에게 교수의 진로지지가 외적인 동기로 작용하여 외적 동기에 기반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두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외부 영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이 수행될 수 있으나 비자발적인 진로탐색행동은 궁극

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진로탐색행동이 자율적 진로 동기에 영향을 받을 때에만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Paixao & Gamboa(2021)가 유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도 통제적 동기에 기반한 진로탐색이 오히려 진로 미결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율적 동기에 기반할 때에만 진로탐색이 진로 미결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행동의 양뿐만 아니라 자율적 진로 동기에 기반한 행동의 질을 함께 고려할 때, 진로선택몰입을 함양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진로이론과 경험연구의 주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진로탐색행동을 양적으로만 많이 수행하는 것보다 졸업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진로선택과 몰입에 중요함을 시사하며 그 가운데, 교수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나) 정서지능과 진로선택몰입의 관계에서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로 진로선택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 및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여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수집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 수집 행동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특성과 관련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개인 특성 변인이 진로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주장한 진로정보처리이론(Reardon et al., 2017), 진로구성이론 진로적응모형(Savickas & Porfeli,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의 주장을 지지하며 질적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탐색한 김은애, 진성미(2015), 임정아, 조아미(202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다수 진로이론(Lent & Brown, 2013; Reardon et al., 2017; Savickas & Porfeli, 2012)의 관점에서 정서는 동기에 기반이 된다. 긍정적 정서는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나 부정적 정서는 위험한 행동 또는, 행동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유발한다(공윤정, 2014). 동기는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요인(Schunk et., 2013)이며 동기에 기반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진로성과를 촉진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개인의 정서를 시작으로 동기가 함양되며 동기를 바탕으로 수행된 진로탐색행동이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COVID-19로 인해 진로탐색행동이 제한되었을지라도 대학생이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했을 때,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긍정 정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공윤정, 2014)에서 이 연구는 긍정 정서로서 정서지능이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COVID-19로 인해, 졸업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진로탐색행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형성하려는 개인의 능력 즉, 정서지능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과 진로에 몰입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경로에 대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경로에 대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성격이 진로 행동과 진로 성과의 직접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

의 주장과 차이가 있고 진로결정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과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환경에 대한 탐색 간 상호작용항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을 구명한 Xu & Tracey(2014)의 연구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비교문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Xu & Tracey(201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개념을 바탕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Xu & Tracey(2015)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4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용 1, 2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수용 1, 2번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3 미만으로 수용 요인에 부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또한, Xu & Tracey(2015)의 연구에서 수용 요인의 신뢰도는 .70이었으나 이 연구의 신뢰도는 .60이었다. Xu & Tracey(2015)의 측정도구를 번안한 이기세(2017)의 연구에서도 해당 측정도구의 통계적 타당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추후 연구에서 구인 타당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를 수용하는 것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Xu & Tracey(2015)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측정도구를 타당화하였다. 이 연구의 1, 2차 예비조사 시, 부하가 되지 않았던 문항은 'I enjoy tackling complex career decision making tasks'로서 '즐긴다'는 의미의 'enjoy'가 인내 또는 수용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Xu & Tracey(2015)의 연구에서는 이 문항은 관련 요인 내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높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내, 또는 수용을 이해하는 문화적 관점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마다 수용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아라, 2013), 진로탐색이 진로미결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모호함에 대한 인내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Xu & Tracey(2014)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진로탐색행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이 낮아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와 진로탐색행동 간 상호작용항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COVID-19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연구 대상인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가 다른 경로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김태환(2019)과 홍은선(2020)의 연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된 이 연구의 결과가 위의 주장을 지지한다. 때문에,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46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 간 표준화 경로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와 진로탐색행동 잠재변인의 잠재상호작용항은 진로선택몰입에 매우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쳤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외생변인으로 교수 진로지지와 정서지능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인으로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을 설정하였으며 조절된 매개변인으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를 설정하여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명하였다. 인과관계 구명을 위해, 변인 간 직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과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이 외생변인과 종속변인을 단순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외생변인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자율적 진로 동기가 단순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외생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를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이 이중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가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학교 3, 4학년 학생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표집 크기를 고려하여 490명의 적정 표집 크기를 결정하였고 층화 · 군집 · 비율표집 계획에 따라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1 · 2차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고 1차 예비조사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1개 학교씩 총 125명을 대상으로 3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총 8일간 수행되었고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 참여자 중 2차 예비조사 참여 희망자 108명을 대상으로 4월 1일(금)부터 4월 4일(월)까지 총 4일간 수행되었다. 본조사는 4월 5일(화)부터 4월 29일(금)까지 25일 간 수행되었다. 표집계획에 따라, 목표 표집 수 490부를 모두 확보하였다. 이 중, 불성실응답 37개, 이상치 40개를 제거하여 총 413개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국내 · 외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2차에 걸친 번안,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및 탐색적 ·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화하였고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 · 보완한 후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화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패키지와 R 4.1.1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패키지는 신뢰도 분석, R 4.1.1. 패키지는 표준화 잔차 탐색, 기술통계, 탐색적 · 확인적 요인분석, 매개분석,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였다. 둘째,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교수 진로지지와 자율적 진로 동기, 교수 진로지지와 진로탐색행동, 정서지능과 자율적 진로 동기,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선택몰입, 자율적 진로 동기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선택몰입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단순매개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진로탐색행동의 단순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율적 진로 동기의 단순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이중매개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진로선택몰입의 주요 변인으로서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을 선정하였고 변인 간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상정한 구조모형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은 교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 동기 및 행동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영향이 일련의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교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 동기, 행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정서, 동기 및 행동의 영향이 교수 진로지지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연구 모형을 기준으로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정서지능, 교수 진로지지 순으로 표준화 계수가 높았다. 교수 진로지지의 표준화 계수는 .023으로서 정서지능 표준화 계수(β=.214)에 비해 약 9배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로서 대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함에 있어, 개인의 정서, 동기, 행동 요인이 중요한 타인으로서 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특히,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교수의 진로지지는 대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간 관련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 변인을 통해 대학생 진로행동에 대한 교수 지지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일부 연구(강명희 외, 2016; 박한샘, 조화진, 2018)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을 함양하기보다 동기를 매개할 때에만 진로탐색행동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이 연구의 특징은 교수 진로지지 변인을 통해 대학생 진로에 초점을 둔 교수 행동의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이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교수 진로지지가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동기를 형성하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

를 탐색함에 있어, 학생 진로에 초점을 둔 교수의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교수 진로지지는 진로선택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관련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못하고 있고 COVID-19로 인해,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변인 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관한 연구 결과가 더욱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정서지능은 자율적 진로 동기를 촉진하여 진로선택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로서 정서지능은 진로선택몰입과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고자 하는 자율적 진로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간, 진로연구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 정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긍정정서 보다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공윤정, 2014)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긍정 정서로서 정서지능이 몰입과 행동이 아닌 동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구명하여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을 실증하였다. 긍정 정서로 인해 촉진된 자율적 진로 동기는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고 진로탐색행동이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개인의 긍정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진로탐색행동이 자율적 진로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때,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외생변인(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의 영향은 진로탐색행동만을 매개했을 때 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율적 진로 동기를 매개하거나 자율적 진로동기와 진로탐색행동을 이중매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연구 결과는 대학생이 진로탐색행동을 양적으로만 수행하기보다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행할 때,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즐거움과 가치를 함양함에 있어 교수의 진로지지와 정서지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는 진로선택몰입과 교수 진로지지,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조절하지 못한다. 연구 결과,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교수 진로지지, 자율적 진로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지능 자율적 진로 동기, 진로탐색행동,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 모두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가 더욱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로 인해,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못했고 진로탐색행동 또한,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속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이들이 긍정 정서, 졸업 후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선택몰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정서, 동기 및 행동이 기반되는 것이 필요함을 구명하였다. 특히, 단순히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진로선택몰입을 촉진할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 점차, 대학생 진로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정철영 외, 2022)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 동기 및 행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 진로선택몰입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 중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경로계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가족, 학교 선배 및 친구로부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

는 문항이 부하되지 않았다.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선행연구(김태환, 2019; 홍은성, 2020)의 결과와 진로탐색행동 관련 선행연구의 90% 이상이 최동선(2003)의 측정 도구를 사용할 만큼(이영광, 김기민, 2022) 타당도가 담보된 조사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영향과 양상이 선행연구와는 다름을 시사한다. 다수 진로이론(Lent & Brown, 2013; Reardon et al., 2017; Savickas & Porfeli, 2012)에서 공통적으로 진로선택몰입에 진로탐색행동이 기반이되어야함을 주장한 바, 대학생이 진로를 몰입하기 위한 대학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생이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뿐만 아니라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성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수의 진로지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교수가 대학생의 개인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할 때, 대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러한 동기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진로선택몰입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에 교수의 진로지지가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교수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 현장에서 교수는 진로지도 역량과 정보 부족,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장서영 외, 2014; 정윤경 외, 2017; 정은진 외, 2018) 대학생 또한, 교수로부터 충분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요행, 강옥희, 2010; 이희원 외, 2019; 정은진 외, 2018). 따라서, 교수의 진로지도 역량을 함양하는 지원, 교수의 진로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맥락을 고려한 교수 진로지지 및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활동된 교수 진로지지 측정도구는

중국의 맥락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로서 중국의 학제와 한국의 학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교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대학생 진로에 초점을 둔 교수의 행동의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향후 연구는 국내 대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여 교수의 진로지지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또한, 미국의 맥락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이다. 미국 대학생들이 겪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과 한국 대학생들이 겪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구성요인 중 수용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국 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의사결정 과정 간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도구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진로탐색행동의 특징을 구명하여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진로탐색행동 측정 도구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진로탐색행동 측정을 위해 최동선(2003)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진로탐색행동 관련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활용되는 측정도구로서 약 20년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오랫동안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어,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COVID-19 이전, 선행연구의 결과(김태환, 2019; 홍은선, 2020)와 차이가 있었다. 후속 연구는 양적 · 질적 연구를 통해, COVID-19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 양상을 확인하여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개발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차를 고려하여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 문화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박경, 2020).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비수도권 대학교 재학생이 열등감, 위축감을 갖게 하여(정용교, 이화경, 2012) 취업 시장으로의 진입

을 유예하거나 노력에 몰입하지 못하는(박경, 2019) 등 이들의 진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진로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제한되기 때문에(박성호, 2014)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비수도권 대학생 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지역 격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연구는 이 연구에서 구명한 구조적 모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진로동기간의 구조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9**(2), 27-48.

강민정.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현이.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대처방식간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혜정. (2021). 진로적응모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34**(1), 25-41.

고은숙. (201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90년대생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윤정. (2014).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15**(1), 27-43.

곽이랑. (2013). **다중지능, 정서지능 및 학문적 자아개념의 관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현. (2017). **대학생의 진로신념과 진로결정자율성, 계획된우연기술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현신. (2018). **후기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분석: 뷰티서비스계열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결정]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2%B0%EC%A0%9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선택]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84%A0%ED%83%9D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정서]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불확실성].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권순동. (2015). SEM에서 위계모형을 이용한 다중공선성 문제 극복방안 연구: 소셜커머스의 재구매의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응용관리연구, 22**(2), 149-169.

김계현. (1995). **상담 심리학: 적용 영역별 접근**. 학지사.

김남희.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 -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 간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대업. (2008). AMOS A to Z. 학현사.

김두리, 강규림, 현명호.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6), 1097-1113.

김랑, 문혁준. (2019).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자율성,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8**(2), 67-82.

김미정. (2019). **가족지지 및 교수지지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5).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학지사.

김수영. (2019).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학지사.

김수진. (2018).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의 진로신화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82**, 283-306.

김연숙.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 및 마인풀니스와 진로탐색행동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애, 진성미. (2015).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과정에서 겪는 경험: 근거이론적 접근. **직업교육연구, 34**(3), 67-90.

김은재, 김장회. (2020).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8**(2), 271-292.

김은혜, 황영호, 김동혁, 류태호. (2015). 체육교육에서 정서지능의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5), 1-5.

김정근. (2012). 개인 및 환경특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161-179.

김정원, 김병석. (2018). 대학생의 정서지능 및 마인풀니스와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849-867.

김종운, 박성실.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1**(2), 23-43.

김종운, 박성실. (2014).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279-300.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김지흔, 정민주. (2020). 항공서비스 전공학생들의 교수지지, 진로준비행동,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상품학연구, 38**(5), 45-53.

김청택. (2020). **사회과학을 위한 고급 통계학: R을 이용한 분석**. 학지사.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및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하늬, 김현주, 박소리, 손은령. (2019). 미취업 청년이 인식하는 구직실패 관련 변인 탐색. **직업과 자격 연구, 8**(1), 1-16.

남궁민, (2021). '코로나 취업한파' 현실로... 대졸 취업률 65% "10년새 최저".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762#home

류근관. (2005). **통계학.** 서울: 법문사.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4.

박경. (2019). 경북지역 대학생의 진로 인식과 자아정체성: K대학 S캠퍼스 사례. **대구경북연구, 18**(1), 67-88.

박경. (2020).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9**(2), 171-205.

박대호. (2019.). [데이터로 본 대학] '대학 떠나는 학생들 늘어난다' 중도탈락 학생 지난해 9만 명 돌파. Retrieved from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9316

박명신, 한상훈. (2017).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참여자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 21, 8**(2), 601-628.

박성호, 강영혜, 임후남, 이정미, 엄문영, 김본영, 백수현, 서은경, 설가인. (2014).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연, 이숙정. (2013).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관계성이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3), 611-628.

박소영, 정영숙. (2011).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7**(1), 18-39.

박수영. (202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의 매개효과**.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론. (2022).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박정아, 김상원, 이양희. (2019). 방임적 양육과 진로 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교사 애착과 교내외 체험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5**, 183-208.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찬, 백민호.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분야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의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7**(3), 640-654.

박한샘, 조화진. (2018).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591-616.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배상기.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몰입과 학습심리변인 및 교사 수업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순근. (2012).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육과학사.

변선정. (2018). **부모의 진로관여방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윤화. (2020).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우연대처기술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성식. (201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해 조절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작훈. (2021). 코로나시기 체육대학 교수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 탐색. 스포츠**인류학연구, 16**(2), 31-46.

성태제, 시기자. (2015). **연구방법론(2판).** 학지사.

성현승, 김현숙. (2021). 성인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정서지능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5**(1), 49-63.

송한슬, 최윤정.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65-83.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263-288.

송현영, 신소흥. (2016).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628-640.

신상훈, 정기주, 김문준. (2020). 폴리텍대학 재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기결정성 동기, 진로결정수준과의 구조관계 분석. **기업경영리뷰, 11**(3), 171-189.

신영숙, 김장회. (202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신념,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9**(4), 59-82.

신윤정. (2013). 진로관련 비관주의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및 자율성 동기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151-175.

신효정, 김영빈, 이상희, 이상빈 (2010).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73-190.

안윤정. (2015). 대학생의 직업정체성 단계에 따른 정서지능과 진로미래 관계 연구: D대학교 신입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8**(4), 17-40.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은영, 이계희. (2021).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릿(GRIT)의 매개효과. **관광연구저널, 35**(5), 145-161.

양인준. (20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와 직무자율성, 사회적 네트워크 및 적응수행의 구조적 관계에서 직무효능감과 학습민첩성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몪음 편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44**(4), 1131-1147.

유순덕.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안나. (2021).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경, 김진강. (2018). 진로결정몰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 탄력성의 조절효과: 환대산업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83**, 519-540.

윤선영. (2015).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및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민, 임웅. (2016). 정서지능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서지능의 구인타당성에 대한 고찰. **교육방법연구, 28**, 587-606.

이경아, 김진현. (2015).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인식. **간호학의 지평, 12**(1), 42-49.

이기세. (2017).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 결정 관련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의 관계: 멘토링 기능에 의해 조절된 걱정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영, 서진선. (2022). 대학 교수자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질적연구. **대학 교수-학습 연구, 15**(1), 23-54.

이민욱, 김대영, 장현진, 이가영. (2020).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대응을 위한 4년제 대학 교수의 진로지도 역량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지원개발, 52**(1) 67-95.

이선아, 신강현. (2018). 진로장벽과 구직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고용가능성의 조절효과: 경력단절여성 대상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20**(4), 2061-2076.

이성희, 문경숙. (202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그릿,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593-613.

이성희. (2020).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그릿,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경, 김연성. (2019).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매개효과: 진로결정몰입 중심으로.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4**(1), 125-144.

이수경. (2015).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미. (2010). **정서지능과 귀인양식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숙정, 김혜영. (2019). 정서지능이 자기결정성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229-239.

이슬. (2016).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엽. (2022). **일반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학교장 지원, 일 열의와 직무수행의 구조적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희. (2013). 체육계역학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93-108.

이아라. (2013).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애용. (2020). **관광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정서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광 (2020). 중학생 진로개발역량과 부모 진로 모니터링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진로일치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2), 23-47.

이영광, 김기민. (2022). 진로탐색행동과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1), 27-59.

이영광, 정철영. (2021).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각한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관여 유형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학부모의 자녀 의사소통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3), 51-76.

이요행, 강옥희. (2010). 대학교 직업진로지도 현황과 과제.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3**(5), 30-35.

이유우. (2020). **은행권 중년 남성 근로자의 외부고용가능성과 일능력, 비공식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경력적응력의 구조적 관계에서 연령차별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석. (2020). **대학생 진로탐색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의빈, 한창근. (2017).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가 내재적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9**, 87-114

이재열, 장주희, 최수현, 류지영, 이윤진, 박봉남. (2021).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202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재열, 정윤경, 류지영, 이윤진, 박봉남. (2020).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정아. (201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4), 19-34.

이진희, 이영미. (2017).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111-132.

이현림. (2007). **진로상담**. 양서원.

이현민.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영. (2018).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정서지능 및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형권. (2018). **Mplus 를 이용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신영사.

이혜승, 이형룡. (2020).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몰입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6), 101-116.

이환의, 차재빈. (2020). 학생-교수 관계의 질이 교육만족, 진로포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10**(3), 71-90.

이희원, 권진희, 김진희. (2019).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분석. **평생학습사회, 15**(4), 27-55.

임정아, 조아미. (2021). 대학생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4**(1), 205-229.

임정훈. (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서영, 정연순, 조아름, 이종범 (2014). **대학교 수용 학생 진로지도가이드 개발.** 한국고용정보원.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현진. (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정영미. (2018). 대학생의 교수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항공관광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2**(4), 831-853.

정용교, 이화경. (2012).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벌주의 실태와 대안. **중등교육연구, 60**(3), 699-724.

정은교. (2021).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은진, 정윤경, 김나라, 류지영, 김재희, 장현진 (2018).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철영, 이영광. (2020). 부모 진로지지 관련 변인과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125-151.

정철영, 이영광, 이승엽, 김동주, 김기민, 이진규, 김도현. (2022). 우리나라 국가 진로교육 정책 동향. **진로교육연구, 35**(1), 81-109.

조규판,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지연행동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1-20.

조규형. (2018).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선영, 이효정. (2021). 직업훈련생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추구와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4**(3), 173-197.

조애리.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아, 정철영. (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진현정. (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여진. (2015). **무용전공대학생의 공연자심감에 대한 정서지능과 신체적 자기지각의 중재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고은. (2022). **기술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 무형식학습, 개인흡수역량 및 창업가적 탄력성의 구조적 관계와 환경불확실성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보금, 조성희. (2013).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교육학연구, 52**(3), 29-54.

최성범, 한태용. (2020).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선택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체육학회지, 29**(5), 41-54.

최수미, 강유림 (2013). 부모지각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91-2306.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진규. (2018).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태순, 김대경, 유희경. (1994).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해결방안 및 예측에 관한 연구. **논문집, 27**, 323-333.

최헌철.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성동기, 정서지능, 자기조절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추스란, 조한익. (2016).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자율성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현대교육연구, 28**, 57-98.

탁진국. (2007). 성별과 직급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와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07-324.

탁진국. (2018).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2판)**. 학지사.

하정, 홍지영. (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허강석. (201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19**(10), 161-177.

홍은선. (2020). **대학생의 진로적응자원, 진로과업 실행의지, 진로탐색행동, 진로경험성찰 및 진로선택몰입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영아, 정소미. (2021). 코로나19로 인한 교수학습과정의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91-108.

황혜원. (n.d.). 대학 10명 중 4명, “2학기 휴학한다”. Retrieved from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18

Ademola, F. F., & Amina, A. B. (2020). Work motivation as predictor of career commitment among librarians in colleges of education in Southern Nigeria. *ATBU Journal of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 8*(1), 348-355.

Ainsworth, M.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Akinwande, M. O., Dikko, H. G., & Samson, A. (2015). Variance inflation factor: As a condition for the inclusion of suppressor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Open Journal of Statistics, 5*(7), 754.

Akos, P., Leonard, A. J., & Bugno, A. (2021). Federal work-study student perceptions of career readi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9*(1), 78-83.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 ological Bulletin, 103*(3), 411.

Arbona, C., Fan, W., Phang, A., Olvera, N., & Dios, M. (2021).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6907272110025.

Arnett, J. J. (2006). Socialization in emerging adulthood: From the family to the wider world, from socialization to self-socialization. In J. Grusec & P.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pp.208-231). Guilford Press.

Artur, M. B., Khapova, S. N. & Widerrom, C. P. (2005). Career success in a boundaryless career worl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ur, 26*(2), 177-202.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342-378.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 3 (Vol. 1). Random Hoyse. Furman, W., & Buhrmester, D. (2009). Methods and measures: Th e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Behavioral systems ver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470-478.

Boyatzis, R. E., Goleman, D., & Rhee, K. (2000). Clustering compet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ECI).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99*(6), 343-362.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759.

Brown S, D., & Lent, R, W. (2019).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guidance. In J., A. Athanasou & N., P., Harsha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2nd ed., pp. 147-166). Springer.

Brown, C., George-Curran, R., & Smith, M. L. (2003).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4), 379-392.

Brynjolfsson, E., & McAfee, A. (2014).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and brilliant technologies.* Norton & Company.

Budner, N. Y.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1. *Journal of Personality, 30*(1), 29-50.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Carleton, R. N., Norton, M. P. J., & Asmundson, G. J. (2007). Fearing the unknown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1), 105-117.

Chan, C. C. (2018).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self-efficacy,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choices of Taiwanese college athletes.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 Tourism Education, 22*, 105-109.

Chemers, M. M., Zurbriggen, E. L., Syed, M., Goza, B. K., & Bearman, S. (2011). The role of efficacy and identity in science career commitment among underrepresented minor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67*(3), 469-491.

Chemolli, E., & Gagne, M. (2014). Evidence against the continuum structure underlying motivation measures derived from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6*(2), 575-585.

Chen, S., Xue, Y., Chen, H., Ling, H., Wu, J., & Gu, X. (2021). Making a commitment to your future: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ncern and career commitment. *Sustainability, 13*(22), 12816.

Cheung, G. W., & Lau, R. S. (2015). Accuracy of parameter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in moderated mediation models: A comparison of regression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4), 746-769.

Chou, C. P.,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GE.

Citi. (2016). *Technology at work 2.0.* Citigroup.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rede, M. (2010). Random responding as a threat to the validity of effect size estimates in correlational research.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0*(4), 596-612.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Holt.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and Row.

Curran, P. G. (2016).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carelessly invalid res ponses in survey dat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6*(5), 4-19.

David, H.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3-30.

Davis, H. A. (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4), 207-234.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Dey, F., & Cruzvergara, C. Y. (2014). Evolution of career services in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48*, 5-18.

Di Fabio, A., & Palazzeschi, L. (2009).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sion difficult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9*(2), 135-146.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orton.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Flum, H., &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3), 380-404.

Frattaroli, J., & Thomas, M. (2011). Opening up in the classroom: Effects of expressive writing on graduate school entrance exam performance. *Emotion, 11*(3), 691-696.

Freeston, M. H., Rh□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Frenkel-Brunswik, E. (1949).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8, 108-143.

Frey, C. B. & Osborne, M.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Oxford Martin School.

Gagne, M., Forest, J., Vansteenkiste, M., Crevier-Braud, L., Van den Broeck, A., Aspeli, A. K., & Westbye, C. (2015). The multidimen-sional work motivation scale: Validation evidence in seven languages and nine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2), 178-196.

Gardner, W. A. (1984). Learning characteristics of stochastic-gradient-descent algorithms: A general study, analysis, and critique. *Signal Processing, 6*(2), 113-133.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Basic Books.

Gati, I., & Asher, I. (2001). Prescreening, in-depth exploration, and choice: From decision theory to career counseling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0(2), 140-157.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77-291.

Gati, I., Shenhav, M., & Givon, M. (1993). Processes involved in career preferences and compromi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1), 53.

Ginzberg, E., Axeland, S. and Herman, J. R.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Goleman (1995). *Emotion intelligence.* Bantam Book.

Golembiewski, R. T. (2019). *Handbook of organizational behavior, revised and expanded*. CRC Press.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77-97.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Advanced diagnostics for multiple regression: A supplement to multivariate data Analysis.*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Hillen, M. A., Gutheil, C. M., Strout, T. D., Smets, E. M., & Han, P. K. (2017). Tolerance of uncertainty: Conceptual analysis, integrative model, and implications for health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180*, 62-75.

Hirschi, A., Lee, B.,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13). Proactive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career behaviors: Investigating direc t,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1), 31-40.

Howard, J. L., Gagn□, M., Morin, A. J., & Forest, J. (2018). Using bifact or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for a continuum structure of motivation. *Journal of Management, 44*(7), 2638-2664.

Hoyle, R. H., & Kenny, D. A. (1999). Sample size, reliability, and test of statistical mediation. In R. H. Hoyle (Ed.), *Statistical strategies for small sample research*. SAGE.

Hoyt, K. B. (1974). *Career Education: Challenges for Counselors.*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

Igere, M. A., Adomi, E., & Nwosu, C. O. (2020). The predictive nature of work motivation and career commitment of librarians in Universities in Southern Nigeria.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1-24.

Jane, G. G. & Krumboltz, J. D. (Eds), *Soci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making* (pp. 19-49). Carole Press.

Jiang, Z., Newman, A., Le, H., Presbitero, A., & Zheng, C. (2019). Career exploration: A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338-356.

Jorda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42-7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Kahn, W. A.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Kashdan, T. B., Gallagher, M. W., Silvia, P. J., Winterstein, B. P., Breen, W. E., Terhar, D., & Steger, M. F. (2009). The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II: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987-998.

Kautish, P., Walia, S., & Kour, P. (2021).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nxiety and career commit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from India.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8*(8), 782-801.

Ketterson, T. U., & Blustein, D. L. (1997).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67-178.

Klein, K., & Boals, A. (2001). Expressive writing can increase working memory capac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0,* 520-533.

Kleine, A. K., Schmitt, A., & Wisse, B. (2021). Students' career explora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1*, 103645.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The Guilford Press.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ublications.

Koerner, N., & Dugas, M. J. (2008). An investigation of appraisals in individuals vulnerable to excessive worry: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5), 619-638.

Krejcie,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3), 607-610.

Krumboltz, J. D. (1979).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decision making. *Soci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19-49.

Kukah, A. S., Akomea-Frimpong, I., Jin, X., & Osei-Kyei, R. (2021). *Emotional intelligence (EI) research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Archit ectural Management.

Ladouceur, R., Gosselin, P., & Dugas, M. J. (2000).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 study of a theoretical model of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9), 933-941.

Latalova, V., & Pilarik, L. (2015).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strategies in women: The role of self-determination and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Studia Psychologica, 57*(2), 95.

Lazarides, R., Rohowski, S., Ohlemann, S., & Ittel, A. (2016). The role of classroom characteristics for students' motivation and career exploration. *Educational Psychology, 36*(5), 992-1008.

Lee, J. Y., & Lee, D. Y. (2021).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senior nursing students. *Annals of the Romanian Society for Cell Biology*, 1087-1092.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T.,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 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47-57.

Lipshitz, R., & Strauss, O. (1997). Coping with uncertainty: A naturalistic decision-making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49-163.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Beyers, W., & Vansteenkiste, M. (2005). Identity statuses based on 4 rather than 2 identity dimen-sions: Extending and refining Marcia's paradig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05-618.

Malecki, C. K., & Demaray, M. K. (2003). What type of support do they need? Investigating student adjustment as related to emotional, informational, appraisal, and instrumental suppor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3), 231.

Mallett, C., Kawabata, M., Newcombe, P., Otero-Forero, A., & Jackson, S. (2007). Sport motivation scale-6 (SMS-6): A revised six-fact or sport motivation scal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600-614.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

Matthews, G., Zeidner, M., & Roberts, R. D. (2004). *Emotional intelligen ce: Science and myth*. MIT press.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1). Basic Books.

Mayer, J. D., Salovey, P., & Caruso, D. R. (2004).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3), 197-215.

Mayne, T. J., & Ramsey, J. (2001). The structure of emo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 (Eds.), *Emotions.* Guilford.

Mayor, J., Salovey, P., & Caruso, D. R. (2004).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3), 197-215.

McDaniels, C. (1989). *The changing workplace: Career counseling strategies for the 1990s and beyond*. Jossey-Bass.

McEvoy, P. M., & Mahoney, A. E. (2012). To be sure, to be sure: Intolerance of uncertainty mediates symptoms of various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on. *Behavior Therapy, 43*(3), 533-545.

McLain, D. L. (2009). Evidence of the properties of an ambiguity tolerance measure: The multiple stimulus types ambiguity tolerance scale-II (MSTAT-II). *Psychological Reports, 105*(3), 975-988.

McMahon, M., & Patton, W. (2019). The Systems Theory Framework: A Systems Map for Caree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J., A. Athanasou & N., P., Harsha.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2nd ed., pp. 97-114). Springer.

Mustapa, N. S., Noor, K. M., & Mutalib, M. A. (2019). Social support and career motivation in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9*(2), 1034-1043.

Nevill, D. D., & Super, D. E. (1988). Career maturity and commitment to work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 139-151.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 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Nunnaily, J.C. (1978). *Psychometrtc Theory.* McGraw-Hill.

OZTEMEL, K. (2018). The predictor role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i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optimism. *Researcher Social Science Studies, 6*(1), 302-314.

Paixao, O., & Gamboa, V. (2017). Motivational profi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3), 207-221.

Paixao, O., & Gamboa, V. (2021). Autonomous Versus Controlled Motivation on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0894845321992544.

Peterson, G. W., Lumsden, J. A., Sampson Jr, J. P., Reardon, R. C., & Lenz, J. G. (2002). *Using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in career counseling with adults.*

Peterson, G. W., Sampson Jr, J. P.,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Thomson Brooks/ Cole Publishing Co.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Y., and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Porfeli, E. J., & Skorikov, V. B.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 853-871.

Reardon, R. C., Lenz, J. G., Peterson, G. W., & Sampson, J. P. (2017). *Career development and planning: A comprehensive approach*. Ken dall Hunt.

Reeve, J., Jang, H., Hardre, P., & Omura, M. (2002). Providing a rationale in an autonomy-supportive way as a strategy to motivate others during an uninteresting activity. *Motivation and Emotion, 26*(3), 183-207.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 17-34.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Guilford Publications.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 Lopes, P. N. (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abilities with the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Sarwar, A., & Khalid, S. (2015).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 motivation of day and night shift nurses. *PAFMJ, 65*(2), 257-261.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teven D. Brown & Robert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7-183). Wiley.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80*, 661-673.

Savickas, M. L., Porfeli, E. J., Hilton, T. L., & Savickas, S. (2018). The student career construction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138-152.

Schlesinger, J., O'Shea, C., & Blesso, J. (2021). Undergraduate student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center services: Faculty perspectiv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9*(2), 145-157.

Schunk, D. H., Meece, J. R., & Pintrich, P. R. (201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earson Higher.

Schwab, K.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새로운현재.

Sears, S. (1982). A definition of career guidance terms: A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perspectiv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Sheldon, K. M., Osin, E. N., Gordeeva, T. O., Suchkov, D. D., & Sychev, O. A. (2017). Evaluating the dimensionality of self-determination theory's relative autonomy continu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9), 1215-1238.

Skinner, B. F. (1953). Some contributions of an 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 to psychology as a whole. *American Psychologist, 8*(2), 69.

Storme, M., Celik, P., & Myszkowski, N. (2019). Career decision ambiguity tolera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in a French sample: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7*(2), 273-288.

Stumpf, S. A., & Lockhart, M. C. (1987). Career exploration: Work-role salience, work preferences, beliefs, and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258-269.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Super. D. E.(1973). The career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2), 37-50.

Symonds, J., Schoon, I., Eccles, J., & Salmela-Aro, K. (2019). The development of motivation and amotivation to study and work across age-graded transitions in adolescence and you 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6), 1131-1145.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3).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Harper & Row.

Tardy, C. H. (1985). Social support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2), 187.

Taveira, M. D. C., & Moreno, M. L. R. (2003). Guidance theory and practice: The status of career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1*(2), 189-208.

Tezci, E., Sezer, F., Gurgan, U., & Aktan, S. (2015).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motivation. *The Anthropologist, 22*(2), 284-292.

Thorndike, E. L. (1920). Intelligence examinations for college entra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 329-337.

Tracey, T. J., Lent, R. W., Brown, S. D., Soresi, S., & Nota, L. (2006). Adherence to RIASEC structure in relation to career exploration and parenting style: Longitudinal and idiothetic consider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248-261.

Tremblay, M. A., Blanchard, C. M., Taylor, S., Pelletier, L. G., & Villeneuve, M. (2009). Work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scale: Its value for organizational psychology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1*(4), 213-226.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271 360). Academic Press.

Van den Berghe, L., Cardon, G., Aelterman, N., Tallir, I. B., Vansteenkiste, M., & Haerens, L. (2013). Emotional exhaustion and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2* (3), 305-320.

Vondracek, F. W., Ford, D, H., & Porfeli, E. J. (2014). *A Living System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SENSE.

Vondracekm F., W., & Ford, D., H. (2019). Living systems theory of vocational behaviour and development. In N., Arthur & M., McMahon. (Eds.), *Contemporary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pp. 121-134). Routledge.

Waterman, A. S. (2015). What does it mean to engage in identity exploration and to hold identity commitments?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for the study of identity processes. *Identity, 15*(4), 309-349.

Werbel, J. D. (2000). Relationships among career exploration, job search intensity, and job search effectiveness in graduat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79-394.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

Wong, C. S., & Law, K. S. (2002).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The Leadership Quarterly.

Wong, L. P., Yuen, M., & Chen, G. (2020). Career-related teacher support: A review of roles that teachers play in supporting students' career planning.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1-12.

Woods, C. M. (2006). Careless responding to reverse-worded items: Implication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3), 186.

Xu, H. (2020).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ambiguity management in career decision-mak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8*(2), 158-172.

Xu, H., & Tracey, T. J. (2015). Career decision ambiguity tolerance scal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9.

Yogo, M., & Fujihara, S. (2008). Working memory can be improved by expressive writing: A randomized experiment in a Japanese sampl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 77-80

Young, R. A., Valach, L., & Collin, A. (1996). A contextual explanation of career.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 -velopment* (3rd ed., pp. 477-512). San Francisco: JosseyBass.

Yusran, N. A., Puad, M. H. M., & Omar, M. K. (2021).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influencing career choice among pre-university student.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9, 77-99.*

Zhang, J., Chen, G., & Yuen, M.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related Teacher Support Scale data from Chin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Zhu, D., Kim, P. B., Milne, S., & Park, I. J. (2020). A Meta-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69072720956983.

【부록 1】 교수 진로지지 번안 및 타당화[6)]

1. 번안 및 역번안 결과

1차 역번안은 2022년 1월 22일에 진행되었고 2차 역번안은 1월 24일에 진행되었다. 2차에 걸친 역번안 과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1> 교수 진로지지 2차 역번안 결과

구분	번호	원문항	2차 역번안 문항	번안 확정 문항
자기탐색함양	1	• Help me identify my strengths and weaknesses.	• help me identify my strengths.	•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2	• Help me develop my career values.	• help me develop my career values.	•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3	• Help me explore my career interests.	• help me explore my career interests.	•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4	• Help me develop my professional skills.	• help me develop my professional skills.	• 내가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5	• Guide me to explore the outside world of work(e.g., professional categories,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the profession, career paths, etc.).	• guide me to explore the outside world of work (e.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jobs, job requirements, career paths, etc.).	• 내가 외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유형 및 특징, 입직 요건, 경력경로 등)
정보적지지	6	• Help me analyze which job position is suitable for me	• help me analyze which jobs are right for me.	•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하는 것을 도와준다.
	7	• Explain to me the prospects of my profession.	• explain the prospects of my profession field.	• 내 전공 분야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8	• Explain to me possible career paths of related positions.	• explain career paths in related occupations that can be entered.	• 내가 진출 가능한 직업의 진로 경로를 설명해주신다.

<표 계속>

6) 교수 진로지지 본조사 결과는 'Ⅲ. 연구방법' 결과 참조

<부록 표-1> 계속

구분	번호	원문항	2차 역번안 문항	번안 확정 문항
정보적 지지	9	• Explain to me the requirements of some job positions.	• explain some job requirements.	• 일부 직업의 요구사항을 설명해주신다.
	10	• Give me tips and tricks for workplace situations.	• give me tips and tricks for the workplace.	• 직장생활을 위한 팁이나 요령을 가르쳐주신다.
	11	• Provide me with employment information.	• provide recruitment information.	•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정서적 지지	12	• Hope that I can have good career prospects.	• want me to have a positive career prospect.	• 내가 긍정적인 진로 전망을 갖길 바라신다.
	13	• Believe that I am qualified for the work they assign to me.	• believe that I a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given to me.	• 나에게 할당하신 일에 내가 적임자라고 믿으신다.
	14	• Believe that I can successfully finish the task(e.g. finish homework, organizing activities, and participating competition).	• believe that I will finish the task successfully • (e.g. doing homework, organizing activities, participating in competitions).	• 내가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다(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15	• Give me a lot of confidence for my career development.	• give me confidence for my career development.	• 내가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16	• Believe that I can make good plans for my future.	• believe that I can make good plans for my future.	• 내가 향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다.

2.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결과

2022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로교육 관련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번인 및 수정(안) 관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커미티 위원 5인으로부터 측정도구 수정(안)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2> 교수 진로지지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결과

구분	번호	번안 확정 문항에 대한 연구자 수정(안)	전문가 내용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수정(안)
자기탐색함양	1	•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 help를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로 수정한 명확한 근거 필요 • 조력 행위를 시간 마련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판단됨. • help를 지도해주신다가 아닌 '도와주신다' 로 원문 그대로 번안할 것을 제안	•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2	•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 help를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로 수정한 명확한 근거 필요 • 조력 행위를 시간 마련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판단됨. • help를 지도해주신다가 아닌 '도와주신다' 로 원문 그대로 번안할 것을 제안	•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3	•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 help를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 로 수정한 명확한 근거 필요 • 조력 행위를 시간 마련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판단됨. • help를 지도해주신다가 아닌 '도와주신다' 로 원문 그대로 번안할 것을 제안	•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표 계속>

<부록 표-2> 계속

구분	번호	번안 확정 문항에 대한 연구자 수정(안)	전문가 내용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수정(안)
자기탐색함양	4	• 내가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 help를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로 수정한 명확한 근거 필요 • professional skill을 전공 관련 역량으로 수정 고려 • 조력 행위를 지도로 확대 해석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판단됨. • help를 지도해주신다가 아닌 ‘도와주신다’로 원문 그대로 번안할 것을 제안	• 내가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5	• 내가 외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유형 및 특징, 입직 요건, 경력경로 등)	-	•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6	•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 help를 ‘지도해 주신다.’로 수정한 명확한 근거 필요 • 조력 행위를 지도로 확대 해석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판단됨. • help를 지도해주신다가 아닌 ‘도와주신다’로 원문 그대로 번안할 것을 제안	•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정보적지지	7	• 내 전공 분야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	•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8	• 내가 진출 가능한 직업의 진로 경로를 설명해주신다.	• career paths를 경력 경로로 수정하는 것 고려 • ‘(예)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 분야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수정 검토 필요	•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주신다.
	9	• 일부 직업의 요구사항을 설명해주신다.	• ‘일부 직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명해주신다’ 수정 고려 • some’을 ‘일부’가 아닌 ‘몇몇 / 몇 가지’로 번안하는 것 검토 필요	•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10	• 직장생활을 위한 팁이나 요령을 가르쳐주신다.	• tip을 한글로 표현 필요 • workplace를 직장이 아닌 일터로 번안 고려 필요 • tips and tricks를 ‘(예) 노하우’ 등으로 번역하는 것 고려 필요	•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표 계속>

<부록 표-2> 계속

구분	번호	번안 확정 문항에 대한 연구자 수정(안)	전문가 내용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수정(안)
정서적 지지	11	•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	•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12	• 내가 긍정적인 진로 전망을 갖도록 격려해주신다.	• 서술어를 '~격려해 주신다.' 로 수정한 명확한 근거 필요 • '전망' 이라는 의미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정 고려 필요 • '(예) 향후 진로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13	• 나에게 할당하신 일에 내가 적임자라고 격려해주신다.	• believe를 생각하신다로 번안 고려 '할당하신 일' 이라는 의미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정 고려 필요 • '(예) 수업 중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나에게 할당하신 일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신다.
	14	• 내가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격려해주신다(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 believe를 생각하신다로 번안 고려 • '(예) 나에게 과업(예: 과제 완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과업(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5	• 내가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	• 내가 나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16	• 내가 향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신다.	• believe를 생각하신다로 번안 고려 • '(예) 미래 계획을 긍정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3. 대학생 안면타당도 결과

2022년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학생 9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3> 교수 진로지지 전문가 안면타당도 결과

구분	번호	연구자 수정(안)	대학생 안면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최종 수정(안)
자기탐색함양	1	•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	유지
	2	•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	유지
	3	•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	유지
	4	• 내가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	유지
	5	•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 예시 내용이 자기탐색보다 정보적 지지에 가깝다고 느껴짐	유지
	6	•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	유지
정보적지지	7	•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	유지
	8	•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주신다.	-	유지
	9	•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	유지
	10	•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	유지
	11	•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	유지

<표 계속>

<부록 표-3> 계속

구분	번호	연구자 수정(안)	대학생 안면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최종 수정(안)
정서적 지지	12	•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	유지
	13	• 나에게 할당하신 일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신다.	• 읽었을 때 바로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음 • 진로가 아니라 일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음. • 할당하신 일에 대한 예시가 진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것 필요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지 세지 필요	•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4	•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과업(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 진로가 아니라 일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음	•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5	• 내가 나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	유지
	16	•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	유지

4. 1차 예비조사 결과

2022년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1개학교 총 125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탁진국(2018)이 제안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4>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교수 진로지지		.933
	자기탐색 함양	.882
	정보적 지지	.824
	정서적 지지	.886

주) 탁진국(2018)은 신뢰도 크기가 .90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보았고 .80 이상일 때,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보았음.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번, 8번, 15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문항과 관련한 요인보다 다른 요인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FI, TLI, RMSEA, SRMR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표준화 요인부하량 또한, 이형권(2018)이 제안한 기준치 .5 이상으로 나타났다.

1차 예비조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번, 8번, 15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문항을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록 표-5> 교수 진로지지 1차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자기탐색 함양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89	-.01	-.01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51	.24	.02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3	.14	-09
	4	내가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7	.38	.17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57	.08	.25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6	-.07	.12
정보적 지지	7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16	.15	.40
	8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주신다.	.46	-.02	.39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06	.04	.84
	10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10	.19	.49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13	-.02	.63
정서적 지지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22	.55	.08
	13	향후 진로를 위해 나에게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6	.67	.00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1	.88	-.04
	15	내가 나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41	.47	.00
	16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9	.88	.08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부록 표-6> 교수 진로지지 1차 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 오차	Z
자기 탐색 함양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00	.836	-	-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833	.723	.090	9.211*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916	.762	.092	9.920*
	4	내가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681	.589	.096	7.079*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1.133	.814	.104	10.929*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14	.767	.101	-10.015*
정보적 지지	7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1.000	.619	-	-
	8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주신다.	1.355	.771	.199	6.822*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1.242	.732	.189	6.582*
	10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1.276	.676	.205	6.216*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1.261	.684	.201	6.269*
정서적 지지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1.000	.771	-	-
	13	향후 진로를 위해 나에게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970	.713	.117	8.274*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009	.840	.101	10.022*
	15	내가 나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1.133	.785	.122	9.260*
	16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028	.827	.105	9.834*

주1) 적합도 지수: χ^2=167.525(p<.05), CFI=.943, TLI=.932, RMSEA=.072, SRMR=.059

2) *p<.05

5.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 보완 하였고 수정 · 보완한 문항에 대해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는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자 중 2명으로부터 3월 22일부터 28일동안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후, 커미티 위원 2인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7> 교수 진로지지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구분	번호	예비조사 문항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연구자 최종 수정(안)
자기탐색함양	4	• 내가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 Help me develop my professional skills.	•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자기탐색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수정 후에, 본조사 결과 확인한 후, 해당 문항 삭제하는 것 고려 필요	•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정보적 지지	8	•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주신다. • Explain to me possible career paths of related positions.	• '관심을 두고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해당 문항이 자기탐색함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보적지지 개념을 기반으로 문항을 수정하는 것 검토 필요	•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
정서적 지지	15	• 내가 나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 Give me a lot of confidence for my career development.	• '나의' 표현으로 인해, 자기탐색함양에 요인부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됨. • '나의' 와 같은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을 줄이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행위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문항 수정 검토 필요	•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주) 向我介紹相關職業的發展路徑: 경력개발 경로를 소개하다.
職業的發展路徑: 경력개발 경로(방법)

6. 2차 예비조사 결과

2022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1개 학교 총 10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탁진국(2018)이 제안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8> 교수 진로지지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교수 진로지지		.904
	자기탐색 함양	.919
	정보적 지지	.810
	정서적 지지	.902

주) 탁진국(2018)은 신뢰도 크기가 .90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보았고 .80 이상일 때,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보았음.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번, 8번, 9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문항과 관련한 요인보다 다른 요인에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치 .3 이상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FI, TLI, RMSEA, SRMR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표준화 요인부하량 또한, 이형권(2018)이 제안한 기준치 .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탐색적 요인분석과 비교할 때, CFI, TLI, RMSEA 모형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다.

<부록 표-9> 교수 진로지지 2차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자기탐색 함양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85	-.02	-.03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2	.15	.11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84	.10	-.16
	4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62	.32	-.19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65	.14	.12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74	-.03	.23
정보적 지지	7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58	-.09	.08
	8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58	-.08	.36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42	.01	.34
	10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42	-.07	.48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03	.21	.75
정서적 지지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16	.60	.02
	13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3	.89	.02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06	.85	.11
	15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43	.43	.08
	16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32	.66	-.07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부록 표-10> 교수 진로지지 2차 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 오차	Z
자기 탐색 함양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00	.805	-	-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015	.872	.094	10.767*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926	.822	.094	9.885*
	4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953	.762	.107	8.900*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1.047	.802	.110	9.548*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1.165	.809	.120	9.672*
정보적 지지	7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1.000	.597	-	-
	8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1.483	.816	.239	.239*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1.212	.668	.222	.222*
	10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1.420	.695	.252	.252*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1.349	.640	.254	.254*
정서적 지지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1.000	.719	-	-
	13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263	.825	.151	.151*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223	.789	.153	.153*
	15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1.336	.800	.165	.165*
	16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1.371	.896	.152	.152*

주1) 적합도 지수: χ^2=165.537(p<.05), CFI=.944, TLI=.933, RMSEA=.077, SRMR=.061

2) *p<.05

【부록 2】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번안 및 타당화[7)]

1. 번안 및 역번안 결과

1차 역번안은 2022년 1월 22일에 진행되었고 2차 역번안은 1월 24일에 진행되었다. 2차에 걸친 역번안 과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11>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2차 역번안 결과

구분	번호	원문항	2차 역번안 문항	번안 확정 문항
정보수집선호	1	• I am interested in exploring the many aspects of my personality and interests.	• I am interested in exploring various aspects of my personality and interests.	• 나의 성격과 흥미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2	• I am excited that I can learn new things about myself or about the world when making a career decision	• It is interesting that I can learn new things about myself or the world when I make career decisions.	•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나 자신 또는 세상에 관한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3	• I am excited to see a creative way to match my interests with a career	• It is interesting to learn creative ways to connect my interests with career paths.	•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흥미롭다.
	4	• It is interesting to discover new strengths and weaknesses	• It is exciting to discover my new strengths and weaknesses.	•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다
	5	• I am not interested in knowing new information about myself	• I am not interested in learning new information about myself.	•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 없다.
	6	• I am open to careers which I have never heard of or thought of before	• I am open to career paths I have never heard of or thought about before.	• 전에 듣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 대해 개방적이다.
	7	• I enjoy tackling complex career decision making tasks	• I enjoy dealing with complex career decision-making tasks.	• 복잡한 진로의사결정 과제들을 다루는 것을 즐긴다.

<표 계속>

7)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본조사 결과는 'Ⅲ. 연구방법' 결과 참조

<부록 표-11> 계속

구분	번호	원문항	2차 역번안 문항	번안 확정 문항
수용	8	• I am tolerant of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my perception and the reality of a career	• I can accept (or tolerate well)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my thoughts on one career path and the actual one.	• 한 가지 진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실제 진로 사이의 발생가능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9	• I am able to make a choice when multiple options seem equally appealing	• When multiple career options are equally attractive, I can choose one.	• 다양한 진로 대안이 동등하게 매력적일 때, 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10	• I am tolerant of the unpredictability of a career	• I can accept (or tolerate) the unpredictability of one career path.	• 한 가지 진로의 예측불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11	• I am tolerant with the possibility that my interests could change in the future	• I can accept (or tolerate) the possibility that my interests may change in the future.	•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12	• I do not mind changing my career in the future if necessary	• It is okay to change my career in the future if necessary.	• 필요할 경우, 미래에 나의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
	13	• I try to avoid complicated career decision making tasks	• I try to avoid complex career decision-making tasks.	• 복잡한 진로의사결정 과제들을 피하려고 한다.
부적응및회피	14	• I find it difficult to make career decision as things cannot be predicted clearly	• I think it is difficult to make a career decision because the career path cannot be clearly predicted.	• 진로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15	• I am afraid of sorting out the complex aspects of a career	• I am afraid to select complex aspects of one career path.	• 진로의 복잡한 측면들을 분류하는 것이 두렵다.
	16	• The career decision making process, which involves so many considerations, is just daunting	• I find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verwhelming when there are too many things to consider.	•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벅차다.
	17	• I try to avoid a career in which the prospects cannot be foreseen clearly.	• I try to avoid careers where the prospects are not clearly predictable.	• 나는 전망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진로를 피하려고 한다.
	18	• People's different or sometimes contradictory perspectives about a career makes me uncomfortable	• People's different or conflicting views about one career path make me anxious.	• 한 가지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 또는 상반된 관점들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2.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결과

2022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로교육 관련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번인 및 수정(안) 관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커미티 위원 5인으로부터 측정도구 수정(안)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12>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결과

구분	번호	번안 확정 문항에 대한 연구자 수정(안)	전문가 내용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수정(안)
정보수집선호	1	• 나의 성격과 흥미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 성격과 흥미워 다양한 측면이 곧 성격과 흥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interested를 관심이 있다/없다로 해석하는 것 고려 필요	•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2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 또는, 세상에 관한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또는’ 표현 지양 • ‘(예) 진로결정을 통해 나 자신과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수정 검토 필요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3	•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흥미롭다.	-	•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창의적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흥미롭다.
	4	•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롭다.	-	•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5	•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 없다.	• interested를 관심이 있다/없다로 해석하는 것 고려 필요	•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표 계속>

<부록 표-12> 계속

구분	번호	번안 확정 문항에 대한 연구자 수정(안)	전문가 내용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수정(안)
정보수집선호	6	• 전에 듣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 대해 개방적이다.	• ‘개방적이다.’ 라는 표현에 대한 수정 고려 •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측정도구 중 6번 문항은 ‘할 수 있다.’ 고 표현하기보다, ‘흥미롭다, 흥미를 가진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에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는다.
수용	7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업을 해결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 ‘즐긴다’ 와 ‘즐거움을 느낀다’ 는 다른 의미로 판단됨. • ‘(예)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복잡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8	• 특정 진로에 대한 내 생각과 실제(reality)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 ‘a career’ 를 내가 생각하는 진로로 수정 고려 • 실제(reality)를 현실로 번역 고려 • ‘(예)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 다양한 진로 대안이 동등하게 매력적일 때, 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 ‘(예)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10	• 진로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 ‘a career’ 를 내가 생각하는 진로로 수정 고려	•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	•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 필요하다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	•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계속>

<부록 표-12> 계속

구분	번호	번안 확정 문항에 대한 연구자 수정(안)	전문가 내용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수정(안)
부적응및회피	13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업을 피하려고 한다.	• (예) 진로결정에 있어, 복잡한 과업을 피하려고 한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을 피하려고 한다.
	14	•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점들로 인해, 나는 진로의사결정을 어려워 한다.	• '어려워 한다.' 를 어렵다로 수정 고려 • '(예) 나는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
	15	• 진로의 복잡한 측면들을 정리하는 것이 두렵다.	• 정리를 분석으로 수정 고려 • '(예)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 복잡한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로 수정 검토 필요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16	•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벅차다.	-	•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17	• 나는 전망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진로를 피하려고 한다.	• 17번 문항 이해 어려움	• 미래 전망이 불분명한 진로는 피하려고 한다.
	18	• 한 가지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 또는 상반된 관점들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 'a career' 를 내가 생각하는 진로로 수정 고려 • 한 가지 진로에 관해 사람들이 가진으로 수정 고려 • 18번 문항 이해 어려움	•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3. 대학생 안면타당도 결과

2022년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학생 9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안면타당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13>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대학생 안면타당도 결과

구분	번호	연구자 수정(안)	대학생 안면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최종 수정(안)
정보수집선호	1	•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	유지
	2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가독성이 낮음(장세희).	유지
	3	•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창의적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흥미롭다.	• ‘창의적’ 의미가 모호함 • 가독성이 낮음	•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4	•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	유지
	5	•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	유지
	6	• 전에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는다.	-	유지
수용	7	•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지
	8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	유지
	9	•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지

<표 계속>

<부록 표-13> 계속

구분	번호	연구자 수정(안)	대학생 안면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최종 수정(안)
수용	10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복잡한 사안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 제시 필요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11	•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지
	12	•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지
부적응 및 회피	13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을 피하려고 한다.	• 복잡한 사안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 제시 필요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14	•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	-	유지
	15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하는 것 필요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예: 나와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특징, 진로 대안별 특징, 선택한 진로를 준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부록 표-13> 계속

구분	번호	연구자 수정(안)	대학생 안면타당도 주요 의견	연구자 최종 수정(안)
부적응 및 회피	16	•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	유지
	17	• 미래 전망이 불분명한 진로는 피하려고 한다.	-	유지
	18	•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	유지

4. 1차 예비조사 결과

2022년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1개학교 총 125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 결과, 수용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14>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646
정보수집 선호	.826
수용	.513
부적응 및 회피	.798

주) 탁진국(2018)은 신뢰도 크기가 .90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보았고 .80 이상일 때,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보았음.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8번, 10번 및 17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특히, 수용의 경우 8번과 10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17번 문항의 경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8번, 10번, 17번 문항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록 표-15>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1차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정보수집 선호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80	.00	-.09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73	-.14	.01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73	.04	-.01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71	-.01	.07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84	.07	.00
	6	전에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는다.	.37	.02	.21
수용	7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7	.12	.65
	8	진로와 관련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17	-.20	-.02
	9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01	.56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41	-.20	.09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5	-.09	.60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7	-.04	.41
부적응 및 회피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10	.55	-.10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	.00	.74	.17
	15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예: 나와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특징, 진로 대안별 특징, 선택한 진로를 준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06	.82	-.06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06	.84	-.03
	17	미래 전망이 불분명한 진로는 피하려고 한다.	-.09	.20	.20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00	.46	.19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부록 표-16>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1차 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 오차	Z
정보 수집 선호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00	.796	-	-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153	.781	.125	9.244*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1.075	.716	.129	8.335*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37	.719	.124	8.388*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08	.808	.105	9.602*
	6	전에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는다.	.715	.360	.183	3.915*
수용	7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0	.687	-	-
	8	진로와 관련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094	-.062	.162	-.578
	9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59	.560	.207	4.161*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064	.041	.167	.383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65	.541	.187	4.095*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65	.411	.194	3.421*
부적응 및 회피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1.000	.545	-	-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	1.518	.791	.253	6.010*
	15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예: 나와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특징, 진로 대안별 특징, 선택한 진로를 준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1.364	.818	.224	6.100*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1.539	.805	.254	6.056*
	17	미래 전망이 불분명한 진로는 피하려고 한다.	.512	.293	.176	2.915*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1.017	.512	.221	4.593*

주1) 적합도 지수: χ^2=271.328(p<.05), CFI=.816, TLI=.786, RMSEA=.091, SRMR=.122
2) *p<.05

5.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 보완 하였고 수정 · 보완한 문항에 대해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는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자 중 2명으로부터 3월 22일부터 28일동안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후, 커미티 위원 2인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17>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구분	번호	예비조사 문항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연구자 최종 수정(안)
수용	8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 진로 대안이라는 표현이 대학생들에게 어렵게 인식될 수 있어, 진로 대안이 아닌 진로로 수정하는 것 고려 필요	• 다양한 진로에 관심이 있을 때,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10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해결하고자 노력' 하는 것은 수용이라기 보다, 정보수집 선호와 더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수용' 의 개념을 기반으로 의역하는 것을 제안함.	•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 (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표 계속>

<부록 표-17> 계속

구분	번호	예비조사 문항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연구자 최종 수정(안)
부적응 및 회피	17	• 미래 전망이 불분명한 진로는 피하려고 한다.	• 번안된 문장은 진로 전망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이해되며 이는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이해될 수 있음. • 때문에, 진로 자체의 전망이 불분명하다기 보다, 특정 진로에 대해 개인이 잘 모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기타	6	• 전에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는다.	•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를 간략하게 표현 고려 필요	•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진로에도 관심이 있다.
	12	•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do not mind’ 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괜찮다.’ 로 번안 고려 필요 • 이기세(2017)가 ‘괜찮다.’ 로 번안한 바 있음.	•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4	•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	• 해당 문항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어, 부적응 및 회피 개념을 고려할 때, 어렵다 보다 힘들다로 번안하는 것을 제안함.	•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15	•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예: 나와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특징, 진로 대안별 특징, 선택한 진로를 준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 해당 문항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어, 부적응 및 회피 개념을 고려할 때, 어렵다 보다 두렵다로 번안하는 것을 제안함.	•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6. 2차 예비조사 결과 및 3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2022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 1개 학교 총 10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로서 교수 진로지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18>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조사 도구 내적 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 일치도 계수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732
	정보수집 선호	.840
	수용	.502
	부적응 및 회피	.818

주) 탁진국(2018)은 신뢰도 크기가 .90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보았고 .80 이상일 때,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로 보았음.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번, 8번 및 9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특히, 수용의 경우 8번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자 2인을 대상으로 3차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고 검토 결과 6번 문항은 '새로 알게된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거리낌 없다.', 8번 문항은 '여러 진로가 고민이 될 때,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9번 문항은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번 문항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업(예: 진로 선택,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회피하려고 한다.'로 수정하였다.

<부록 표-19>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2차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정보수집 선호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91	.07	-.07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81	-.05	.02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71	.00	.08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76	-.02	.10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78	-.10	-.01
	6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진로에도 관심이 있다.	.11	.04	.38
수용	7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20	.32
	8	다양한 진로에 관심이 있을 때,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03	.01	-.11
	9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38	.26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 (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14	-.36	.29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9	.05	.81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03	.03	.65
부적응 및 회피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13	.57	.03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08	.71	.15
	15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06	.71	-.03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09	.76	.11
	17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14	.56	-.38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02	.69	-.05

주) 추정 방법: ML, 요인 회전: Oblimin

<부록 표-20> 진로의사결정 불확실성 인내 2차 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B	β	표준 오차	Z
정보 수집 선호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00	.867	-	-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877	.822	.083	10.549*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790	.740	.088	8.970*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1.029	.801	.102	10.127*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883	.795	.088	10.004*
	6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진로에도 관심이 있다.	.301	.224	.133	2.254*
수용	7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00	.453	-	-
	8	다양한 진로에 관심이 있을 때,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210	-.068	.334	-.630
	9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70	.372	.399	2.929*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 (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667	.229	.335	1.994*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430	.871	.615	3.952*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783	.602	.459	3.883*
부적응 및 회피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1.000	.533	-	-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1.691	.754	.328	5.162*
	15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1.588	.727	.313	5.070*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1.736	.789	.330	5.265*
	17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974	.435	.268	3.639*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1.394	.675	.286	4.874*

주1) 적합도 지수: χ^2=258.228(p<.05), CFI=.824, TLI=.796, RMSEA=.094, SRMR=.107

2) *p<.05

【부록 3】 1차 예비조사 질문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관련 질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진로선택몰입과 관련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지는 총 8면**이며, **응답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해당 문항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질문지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성실하지 않은 응답으로 간주될 경우, **사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내용에 성실하게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불성실 응답 탐지를 위해 조사 가운데 하나의 문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설문 중간에 **"나는 이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영 광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0000-0000 / e-mail: gloryee2017@snu.ac.kr

Ⅰ	다음은 수업이나 상담, 동아리 등을 통해 **만나는 소속 대학 교수님들**에 관한 여러 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①	②	③	④	⑤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어떻게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터에서의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진로를 위해 나에게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나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전에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와 관련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측면(예: 나와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특징, 진로 대안별 특징, 선택한 진로를 준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①	②	③	④	⑤
17	미래 전망이 불분명한 진로는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서 나의 진로목표를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 및 조절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타인의 정서를 잘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주변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언제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항상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기분을 통제하고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가 날 때 흥분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이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5점)'를 입력하지 않을 시 분석에 제외되므로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이나 일을 하려는 이유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학업을 마친 후 장래에 취업이나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1	내가 하고자 하는 일(직업)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일하면서 겪는 도전들이 흥미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일하는 것이 삶의 일부로서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일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일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Ⅵ	다음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15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의 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로부터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예: 전화, E-mail 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이공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직접 기입) _____

6. 귀하의 소속 대학명은?
(직접 기입) _____

7. 사례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및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② 핸드폰 번호: _____

【부록 4】 2차 예비조사 질문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관련 질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진로선택몰입과 관련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지는 총 3면**이며, **응답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해당 문항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질문지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영 광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0000-0000 / e-mail: gloryee2017@snu.ac.kr

Ⅰ	다음은 수업이나 상담, 동아리 등을 통해 **만나는 소속 대학 교수님들**에 관한 여러 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①	②	③	④	⑤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진로에도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양한 진로에 관심이 있을 때,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 (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예: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다양한 진로 대안 마련, 금전적 여유 부족 및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진로 장벽 등)을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①	②	③	④	⑤
17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년은?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이공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직접 기입) _____

6. 귀하의 소속 대학명은?
(직접 기입) _____

7. 사례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및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② 핸드폰 번호: _____

【부록 5】 본조사 질문지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관련 질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진로선택몰입과 관련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지는 총 8면**이며, **응답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해당 문항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질문지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성실하지 않은 응답으로 간주될 경우, **사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내용에 성실하게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불성실 응답 탐지를 위해 조사 가운데 하나의 문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설문 중간에 **"나는 이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이 영 광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0000-0000 / e-mail: gloryee2017@snu.ac.kr

Ⅰ	다음은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상담, 동아리 등을 통해 **만나는 소속 대학 교수님들**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1	내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진로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진로에 관한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진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예: 전공 분야 및 특징, 전공 분야의 자격 요건, 경력 경로 등)	①	②	③	④	⑤
6	어떠한 직업이 나에게 적합할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 분야의 미래 전망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공과 관련한 직업에 진출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몇몇 직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터에서 실무를 위한 노하우를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채용정보를 제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향후 진로를 위해 제안하신 과제(예: 나의 강점과 약점 이해, 전공 분야 직업 정보 수집 등)들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향후 진로를 위해 어떠한 일이든(예: 과제 완수, 여러 활동 조직, 각종 대회 참여)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향후 진로를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성격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관심사를 진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새로 알게된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거리낌없다.	①	②	③	④	⑤
7	관심이 있는 진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현실(reality)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여러 진로가 고민이 될 때,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의 전망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 (예: 다양한 직업 정보 수집, 금전적 여유 부족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에 나의 흥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필요하다면, 미래에 진로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업(예: 진로 선택,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어려움 대처 등)을 회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미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진로의사결정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예: 다양한 직업 정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정보 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벅차다.	①	②	③	④	⑤
17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진로(예: 증강현실전문가와 같은 신직업, 스타트업 창업 등)는 회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진로목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분야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흥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를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할 직업분야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할 직업분야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취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통해 내가 꿈꾸어왔던 사람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을 통해 옳다고 믿는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취업 후 역량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진로계획은 향후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계획은 나의 신념 및 가치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추구해야할 가치로서 나의 진로목표를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진로목표가 나에게 바람직한 목표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진로목표는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진로목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뿌듯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은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 및 조절하는 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타인의 정서를 잘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주변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언제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항상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내 자신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기분을 통제하고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가 날 때 흥분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이 설문을 성실히 응답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5점)'를 입력하지 않을 시 분석에 제외되므로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이나 일을 하려는 이유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학업을 마친 후 장래에 취업이나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1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직업)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일하면서 겪는 도전들이 흥미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일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일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일하는 것이 삶의 일부로서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Ⅵ	다음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1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상담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 문제를 상담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15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의 관련 자료를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관련기관/부서(예: 경력개발센터 등)로부터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상담이나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예: 전화, E-mail 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학년은?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이상

4.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이공계열

5. 귀하의 세부전공은?
(직접 기입) _____

6. 귀하의 소속 대학명은?
(직접 기입) _____

7. 사례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및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② 핸드폰 번호: _____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Professors' Career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by Yeong Gwang Lee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2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professors' career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s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analyzed the fitness of the established structural model, 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3rd and 4th year of undergraduate students. Adequate sampling size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presented in previous study was 490. Data we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stratification, clustering, and ratio sampling plan. The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and main surveys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nd data had been collected from April 5, 2022 to April 29, 2022. All 490 data of the target sample were secured, of which 37 insincere responses and 40 outliers were removed, and a total of 413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for data collection was a q uestionnaire consisting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cale, emotion al intelligence scal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scale and demographi cal characteristics. The instruments of professors' career support and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 making were translated, confirm ed content validity, facial validity, and statistical validity. After revising and supplementing some questionnaires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 9 situation,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strument was validated thr ough content validity, facial validit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6.0 and R 4.1.1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professors' career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as sufficient. Second, a direct effect is significant between professors' career support and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professors' career support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Third, the indirect effects of the exogenous variable mediating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n the dependent variable were insignificant,

whereas the indirect effects of the exogenous variable mediating th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to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all indirect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in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First, there is a causal relations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professors' career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students. Second, the influence of individual emotions, motivations and behavior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f undergraduate students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professors' career support. Third, professors' career support can directly contribute to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and their jobs as well as helping undergraduate students to recognize the pleasure and value of working after completing their studies. Fourth, emotional intelligence has an indirect effect on undergraduate student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by promoting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Fifth, wh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s influenced by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it can promote undergraduate student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ixth,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does not affect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practices and studies are as follows. As a practical suggestion, when supporting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ir positive emotions, motivation to work after graduat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career exploration for college stu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professors' career guidance. As a suggestion for follow-up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ors' career support and uncertainty tolerance in career decision-making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context.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ement a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strument that reflects social change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fter post COVID-19.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stud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Keywords: Undergraduate Student, Professor's Career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eer Motivati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Uncertainty Tolerance of Career Decision-Making, Moderated Mediation Effect, Structural Relations

Student Number : 2019-34377